

북한주민 통일외식
2016



목 차

제1장 서장

- 1. 서론 12
- 2. 조사배경 및 조사목적 15
- 3. 설문내용 및 조사방법 17
- 4. 인구학적 배경변수의 특징 21

제2장 통일인식

- 1. 서론 38
- 2. 통일의 필요성과 염원 40
- 3. 통일의 이유 43
- 4. 통일의 방식과 예상 시기 45
- 5. 통일에 대한 기대감 48
- 6. 통일정책의 효용성 51
- 7. 통일 후 사회통합 56
- 8. 소결 58

제3장 대남인식

- 1. 서론 64
- 2. 남한의 존재 인식 66
- 3. 대남인지도 74
- 4. 남한의 대북지원 77
- 5. 소결 83

제4장 북한실태인식

- 1. 서론 88
- 2. 경제활동과 생활수준 90
- 3. 사회통제 97
- 4. 문화의식 103
- 5. 정치사상의식 108
- 6. 소결 120

제5장 주변국 관계인식

- 1. 서론 126
- 2. 가장 친밀한 국가 127
- 3. 가장 위협적인 국가 134
- 4. 주변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희망과 협조의 필요성 140
- 5. 소결 147

제6장 남한적응실태

- 1. 서론 152
- 2. 북한주민에 대한 친근감과 남한사회의 포용성 153
- 3. 북한이탈주민의 자기정체성, 남한사회에서의 만족도 158
- 4. 소결 165

제7장 결장

- 결장 1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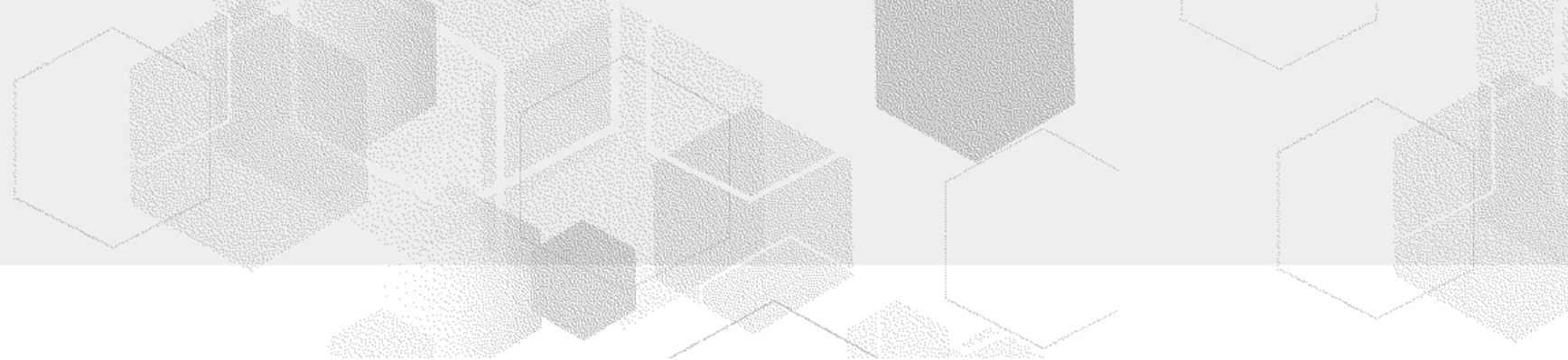
- 부록 집계표 2016 177
- 설문지 2016 245

표목차

〈표 1-1〉 조사방법·표본·조사내용	19	〈표 4-1〉 공식 소득수준(2014-2016)	94
〈표 1-2〉 성별·연령별 분포	21	〈표 4-2〉 실제 소득수준(2014-2016)	96
〈표 1-3〉 탈북 후 입국까지 걸린 시간	23	〈표 4-3〉 탈북 후 북한소식 경험의 정도(2008-2016)	99
〈표 1-4〉 탈북 전 최종 거주지	24	〈표 4-4〉 연령별 주체사상 자부심(2016)	110
〈표 1-5〉 북한에서의 교육수준별 분포	25	〈표 4-5〉 연령별 주체사상 자부심(2011-2015)	111
〈표 1-6〉 북한에서의 직업별 분포	26	〈표 4-6〉 연령별 김정은 지지도(2016)	113
〈표 1-7〉 북한에서의 당원 여부 분포	27	〈표 4-7〉 연령별 김정일·김정은 지지도(2011-2015)	114
〈표 1-8〉 북한에서의 공식 월수입의 분포	28	〈표 5-1〉 가장 친밀하게 느끼는 주변국가	128
〈표 1-9〉 북한에서의 비공식 월수입의 분포	30	〈표 5-2〉 성별 중국과 한국에 대한 친밀감	131
〈표 1-10〉 장사활동 경험 유무	31	〈표 5-3〉 학력별 주변국에 대한 친밀감	132
〈표 1-11〉 탈북 후 북한의 소식에 대한 접근성	32	〈표 5-4〉 당원 여부에 따른 주변국에 대한 친밀감	134
〈표 1-12〉 탈북 전 남한 친척의 유무	33	〈표 5-5〉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	136
〈표 1-13〉 혼인 상태에 따른 분포	34	〈표 5-6〉 성별 미국과 중국에 대한 위협 인식	137
〈표 1-14〉 자녀의 수 분포	35	〈표 5-7〉 학력별 주변국에 대한 위협 인식	138
〈표 2-1〉 통일의 이유	44	〈표 5-8〉 당원 여부에 따른 주변국에 대한 위협인식	140
〈표 2-2〉 통일의 방식	46	〈표 5-9〉 주변국의 한반도 통일 희망 정도	142
〈표 2-3〉 통일의 예상 시기	48	〈표 5-10〉 미국의 한반도 통일 희망 정도	144
〈표 3-1〉 남북간 이질성에 대한 인식(2016)	77	〈표 5-11〉 북중경협 강화에 대한 인식	145
		〈표 5-12〉 발전에 필요한 국가	147

표목차

〈표 6-1〉 남한주민에 대한 친근감	154
〈표 6-2〉 남한주민의 포용성에 대한 인식	155
〈표 6-3〉 남한주민에 대한 친근감과 남한주민의 포용성 교차표(2016)	155
〈표 6-4〉 북한이탈주민들의 자기정체성	159
〈표 6-5〉 남한주민에 대한 친근감과 북한이탈주민의 자기정체성 교차표(2016)	160
〈표 6-6〉 남한주민의 포용성과 북한이탈주민의 자기정체성 교차표(2016)	160
〈표 6-7〉 남한사회에서의 생활 만족도	161
〈표 6-8〉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	162
〈표 6-9〉 남한에서의 생활만족도와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 교차표(2016)	163
〈표 6-10〉 남한사회에서의 취업형태	164



그림목차

〈그림 2-1〉	통일의 필요성	41	〈그림 4-3〉	직장 내 생산규율(2008-2016)	93
〈그림 2-2〉	통일예의 의지	42	〈그림 4-4〉	타지역 이동경험(2008-2016)	98
〈그림 2-3〉	통일의 집합적 이익 기대감	49	〈그림 4-5〉	생활총화 출석률(2011-2016)	100
〈그림 2-4〉	통일의 개인적 이익 기대감	51	〈그림 4-6〉	사회통제수준	101
〈그림 2-5〉	대북지원의 통일에 대한 효용성	53	〈그림 4-7〉	정부비판행위(낙서, 삐라 등)(2008-2016)	102
〈그림 2-6〉	남북 사회문화교류의 통일에 대한 효용성	54	〈그림 4-8〉	한류접촉경험(2008-2016)	104
〈그림 2-7〉	남북 경제협력의 통일에 대한 효용성	55	〈그림 4-9〉	개인/집단 우선 가치(2008-2016)	107
〈그림 2-8〉	남북 정기회담의 통일에 대한 효용성	56	〈그림 4-10〉	주체사상에 대한 자부심(2008-2016)	109
〈그림 2-9〉	통일 후 거주 희망 지역	58	〈그림 4-11〉	김정일-김정은에 대한 지지도(2008-2016)	112
〈그림 3-1〉	북한주민의 대남인식(2008-2016)	67	〈그림 4-12〉	경제침체의 원인	115
〈그림 3-2〉	남한주민의 대북인식(2008-2016)	71	〈그림 4-13〉	북한 사회주의 정권 지속 여부(2008-2016)	118
〈그림 3-3〉	남북한의 상호무력도발 가능성 인식(2008-2016)	73	〈그림 4-14〉	경제체제 선호도(2008-2016)	119
〈그림 3-4〉	북핵위협인식(남북한비교)	74			
〈그림 3-5〉	북한주민의 대남인지도(2011-2016)	75			
〈그림 3-6〉	대북지원 인지도	78			
〈그림 3-7〉	대북지원 효용성에 대한 평가	80			
〈그림 3-8〉	대북지원 정책에 대한 태도	81			
〈그림 3-9〉	대북경제 투자에 대한 인식	82			
〈그림 3-10〉	개성공단에 대한 인식	83			
〈그림 4-1〉	장사경험 유무	91			
〈그림 4-2〉	직장 내 생산규율(2016)	92			



제1장 서장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제1장 서장

1. 서론

최근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북한에서 금지곡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의 소원은 독립'이라는 가사 말을 개사해 만들어진 본 곡은 북한에서도 대중화되어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함께 애창했던 곡이다. 이 사건은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남북관계의 현주소를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2015년 북한의 목함 지뢰 사건으로 경색되기 시작한 남과 북의 사이는 이후, 2016년 새해 벽두부터 감행된 북한의 4차 핵실험, 그리고 연이은 미사일 발사로 급격히 악화되었다. 우리 정부 역시 이러한 북한의 도발에 대하여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 한반도 사드배치 결정 등으로 응수하면서 남북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있다. 과거 우리 민족이 함께 부르던 독립의 꿈은 실현된 지 어언 70년이 지났지만, 양국이 분단되어 부르고 있는 통일의 꿈은 오히려 더 멀어져만 가는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고 양국이 하나 되기를 힘쓰기 위해서는 먼저 서로의 다름에 대해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분단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과 통일에 대한 생각 역시 멀어지는 만큼, 그 차이를 조금이라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서

로가 가진 생각을 읽어내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먼저 남한주민의 통일의식에 대해서는 다양한 학문분과의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꾸준히 연구되어 오고 있다. 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도 2007년부터 꾸준히 남한주민을 대상으로 통일의식조사를 수행함으로써 남한주민들이 통일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파악하기 위해 힘써오고 있다. 특히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남한의 통일의식조사에서는 지난 10년간 우리 국민들이 보여 온 통일의식에 관한 전반적인 경향성과 함께 2016년에 나타난 다양한 변화들을 담아내었다.

이렇게 남한주민의 통일의식에 대한 연구들은 많이 축적되어 왔지만, 상대적으로 북한주민들의 통일에 대한 의식을 파악하려는 노력은 부족하였다. 통일이란 서로 다른 두 민족이 하나가 되는 일인 만큼, 통일의 또 다른 당사자인 북한주민들의 생각을 이해하는 것은 바람직한 통일 담론의 형성 및 효과적인 통일정책의 수립에 있어 필수적이다. 즉, 북한주민들이 얼마나 통일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 여기는지, 어떠한 방식의 통일을 원하는지, 남과 북의 정권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지 등을 파악함으로써 양국의 차이를 이해하고 좁혀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2015년 여름 이후 악화된 오늘날의 남북관계와 국제정세를 생각할 때,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북한주민들의 통일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는 2008년부터 매년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북한에 거주할 당시의 통일 전반에 대한 인식과 남한 내 적응 실태 등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해오고 있다. 물론 남한에 들어온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기에 현재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은 아니지만,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북한을 나온 지 1년 이내의 북한이탈주민들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간접적으로나마 오늘날 북한주민들의 의식을 파악하려 하고 있다.

2012년 김정일의 권력승계 이후 북한은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얻기 위한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고, 이 같은 안보적 위기 상황 가운데 현재 남과 북에서 건설적인 통일에 관한 논의 및 교류협력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아시아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중국의 전략, 그리고 유럽 전역에서 불고 있는 극우화의 바람 등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 역시 한 치 앞을 알기 어려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통일과 북한에 대한 연구 역시 이러한 여러 정치적 어려움으로 인해 난관에 봉착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북한 주민이 통일과 남한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나아가 한반도의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흔치 않은 분석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향후 통일을 준비하는데 이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한 민족이라는 인식을 기반으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다름을 줄여나가는 데 본 조사가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조사배경 및 조사목적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하 통일평화연구원)은 2007년부터 해마다 『통일의식조사』를 수행하여 남한주민의 통일 및 북한 인식, 대북정책 평가, 주변국 관계 인식, 한국사회의 변화 인식 등을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축적하고 있다. 남한사회에서는 아직 통일의 파트너인 북한주민의 의식에 대한 경험적이고 계량적이며 시계열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관심과 노력이 상대적으로 소홀하다. 따라서 통일평화연구원에서는 2008년부터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간접적으로나마 북한주민의 통일의식 및 대남인식, 북한사회의 변화 인식, 주변국 관계 인식, 적응 실태 등을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다.

국내외에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실시되어 왔고, 관련 조사의 양적 데이터도 상당히 축적되어 있다. 특히 몇 년 전부터 남북하나재단이 주도적으로 북한이탈주민 생활실태조사를 전수조사 수준에서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수많은 조사들과 연구들은 대체로 남한사회 안에서 그들의 삶과 의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에 북한에 거주하고 있었던 시기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포괄적인 의식을 파악하려거나 통일에 초점을 두고 이뤄진 조사는 부재하였다. 통일평화연구원은 통일과 남북관계의 현실진단과 미래전망에 대한 논의에서 남북한 사회통합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 같은 사회통합의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써 북한주민의 통일의식조사를 다년간 기획하고 이를 수행하

고 있다.

남북한주민이 통일과 통합의 파트너임을 인정하고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뤄가길 원한다면 남한주민의 통일외식조사와 더불어 북한주민의 통일외식을 이해하기 위한 시도들이 필요하다. 북한주민의 통일외식은 어떠한 남한주민의 통일외식과의 차이점 및 공통점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다면 정책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기술한 문제외식을 바탕으로 통일평화연구원의 북한주민 통일외식조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진다. 첫째, 이 조사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통해 간접적으로 북한주민의 통일, 북한실태, 남한사회, 남한의 대북정책, 주변국 관계, 남한사회 적용실태 등에 대한 종합적인 외식조사를 수행함으로써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학술적·정책적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1차적 목적을 둔다. 둘째, 이 조사의 결과는 통일평화연구원이 2007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는 『남북한통합지수』의 외식통합지수를 산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셋째, 이 조사의 결과는 남한주민의 통일외식조사의 결과와 비교 분석됨으로써 통일과정 및 통일 후 사회통합의 문제를 예측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활용된다.

북한주민 통일외식조사는 북한지역의 현장조사 형태로 진행되지 못하기 때문에 조사방법론상 여러 가지의 한계점들을 내포할 수밖에 없다. 우선적으로 지적될 수 있는 한계점은 표본의 대표성 문제이다. 이미 남한사회에서 살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의 결과가 과연 실제 북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주민의 외식을 대변할 수 있는가라는

지적이 있다. 이 지적은 매우 합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주민만의 통일외식을 가지고 남북한 모두의 통일 또는 통합의 문제를 논하는 것 또한 ‘절름발이’의 접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어진 제약과 환경 속에서 가능한 방법론적 엄밀성을 확보해가며 남북한 주민 모두의 통일외식에 대한 시계열적 자료를 축적하고, 그에 기반하여 다양한 학술적·정책적 접근을 시도하려는 노력 또한 현실적으로 필요한 유의미한 작업일 것이다.

3. 설문내용 및 조사방법

북한주민의 통일외식조사의 설문 내용은 크게 6개의 범주로 분류된다. 첫 번째 설문 범주는 통일외식이다. 통일외식에는 통일의 필요성, 통일의 염원도, 통일의 이유, 통일 가능시기 예상, 통일의 집합적·개인적 이익에 대한 기대, 통일 이후 주요 사회문제의 개선에 대한 기대, 대북정책의 통일 기여도, 통일 방식,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의 유대감, 통일 후 거주 지역 등의 설문 문항들이 포함된다. 두 번째 범주는 대남외식이다. 여기에는 남북한 관계외식, 남한사회에 대한 정보 인지 수준, 남한문화의 접촉 여부, 남한문화에 대한 친숙성, 남북한 사회의 이질성, 남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남한의 핵무기 위협수준, 남한의 대북지원 인지 여부, 남한의 대북지원 효과성, 남한의 대북지원 규모, 남한의 대북 경제투자 효과성 등의 설문 문항들이 포함된다. 세 번째 범주는 북한실태 변화이다. 이 범주에는 주체사상에 대한 자부심,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한 지지도, 공간기관에 의한 사회통제 수준, 정치적 비판 행위, 북한체제의 지속가능성, 북한

경제위기의 원인, 장사인구의 규모, 직장 내 생산규율의 실효성, 생활총화, 경제체제의 선호도, 거주 이동의 자유, 집단주의 대 개인주의, 생활비 등의 설문 문항들이 포함된다. 네 번째 범주는 주변국에 대한 인식으로, 2012년 설문조사부터 포함되었다. 여기에는 주변국의 친밀감, 주변국에 대한 위협감, 주변국의 통일 희망도, 통일을 위한 주변국의 협조 필요성이 포함된다. 다섯 번째 범주는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 실태로서 이 설문범주는 2011년 설문조사부터 포함되었다. 이 범주에는 남한출신 주민에 대한 친근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주민의 포용성,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 생활 만족도,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 현 취업상태, 월평균 수입, 월평균 근로일수와 일일 평균 근로시간이 포함된다. 마지막 범주는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정보에 대한 설문이다.

이 설문조사는 북한이탈주민들의 현재의 의식이나 태도를 파악하기보다 그들이 북한에 거주할 당시 자신 혹은 다른 북한주민들의 의식이나 태도가 어떠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¹⁾ 따라서 질문의 형식은 다섯 번째 설문 범주인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실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설문 문항에서는 “귀하는 북한에 거주할 당시 … … 생각하십니까?”, “귀하는 북한주민들이 … …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와 같이 제시되었다.

1] 2016년 설문지는 부록에 수록되어 있다.

〈표 1-1〉 조사방법·표본·조사내용

(단위: 명)

조사연도	2008	2009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조사기간	7월	10월	4/15-6/4	4/6-6/2	6/13-7/16	5/20-7/7	7/1-7/24	6/10-8/8
입국연도	응답자	응답자						
2000년 이전	54	78						
2001 - 2004	87	94						
2005 - 2008	142	-						
2005 - 2009	-	175						
무응답	13	23						
탈북연도			응답자	응답자	응답자	응답자	응답자	응답자
2010			104	-	-	-	-	-
2011			1	127	-	-	-	-
2012			-	-	133	-	-	-
2013			-	-	-	149	-	-
2014			-	-	-	-	146	-
2015	-	-	-	-	-	-	-	135
2016	-	-	-	-	-	-	-	3
총 계	296	370	105	127	133	149	146	138
조사방법	하나원 방문조사		면대면 설문조사					
조사내용								
통일외식	Y	Y	Y	Y	Y	Y	Y	Y
대남외식	Y	Y	Y	Y	Y	Y	Y	Y
북한실태 변화	Y	Y	Y	Y	Y	Y	Y	Y
남한적응 실태	-	-	Y	Y	Y	Y	Y	Y
주변국 인식	-	-	-	Y	Y	Y	Y	Y

〈표 1-1〉에 나타나듯이 연도별 표본 구성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2008년과 2009년 조사의 경우에는 표집의 기준이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시기에 맞춰졌기 때문에 표본의 탈북시기가 제각각이다. 이와 같은 표집 방법은 표본의 접근성 측면에서는 용이하지만 탈북시기가 동질적이지 않기 때문에 특정 시기의 실태를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했다. 2011년 조사부터는 표본의 탈북시기를 동일하게 맞춰 조사가 실행되는 직전 해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들만을 표집하였다. 이 경우 연도별 실태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연도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반면에 모집단의 규모가 크게 줄면서 표본의 접근성이 매우 낮아져 표집과정에서의 어려움이 발생했다.

2011년 조사부터 표집방법은 1차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 지원을 돕고 있는 전국의 하나센터와 탈북자단체 및 탈북자지원 민간단체, 그리고 개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모집하였고, 1차로 모집하여 설문조사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들로부터 눈덩이표집(snowballing) 방법으로 2차 표집이 이뤄졌다. 이 조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준수하며, 조사 대상자들에게 조사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개인정보 활용 및 보호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한 후 실시되었다. 2011년부터 면대면(face-to-face) 방식으로 설문조사가 이뤄졌다. 연구참여자인 북한이탈주민들의 일정에 따라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조사가 이뤄지기도 하고, 일부는 조사 연구원이 연구참여자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방문하여 조사가 이뤄지기도 했다. 〈표 1-1〉에 나타나듯이, 2016년 설문조사의 유효 표본 수는 138명이다.

4. 인구학적 배경변수의 특징

(1) 성별·연령별 분포

〈표 1-2〉는 6년 조사 대상자들의 성별, 연령별 분포를 보여준다. 2016년 조사에서 응답자의 성별 분포는 남성 38.4%, 여성 61.6%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남성의 비율은 약 0.6% 감소했고 반면에 여성의 비율은 약 0.6% 증가했다.² 연령대별 비중을 보면, 20대 37.7%, 30대 23.2%, 40대 24.6%, 50대 11.6%, 60대 이상 2.9%를 나타내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작년과 거의 비슷한 분포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1-2〉 성별·연령별 분포

(단위: 명(%))

연령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10대	0 (0.0)	0 (0.0)	0 (0.0)	0 (0.0)	1 (33.3)	2 (66.7)	2 (66.7)	1 (33.3)	0 (0.0)	1 (100.0)	0 (0.0)	0 (0.0)
20대	14 (38.9)	22 (61.1)	23 (51.1)	22 (48.9)	24 (52.2)	22 (47.8)	15 (33.3)	30 (66.7)	16 (36.4)	28 (63.6)	14 (26.9)	38 (73.1)
30대	11 (40.7)	16 (59.3)	11 (47.8)	12 (52.2)	17 (58.6)	12 (41.4)	13 (46.4)	15 (53.6)	20 (44.4)	25 (55.6)	16 (50.0)	16 (50.0)
40대	6 (35.3)	11 (64.7)	11 (32.4)	23 (67.7)	11 (29.0)	27 (71.1)	12 (30.8)	27 (69.2)	13 (35.1)	24 (64.9)	15 (44.1)	19 (55.9)
50대	1 (7.7)	12 (92.3)	5 (38.5)	8 (61.5)	7 (43.8)	9 (56.3)	6 (31.6)	13 (68.4)	6 (37.5)	10 (62.5)	7 (43.8)	9 (56.3)
60대 이상	4 (33.3)	8 (66.7)	6 (50.0)	6 (50.0)	0 (0.0)	4 (100.0)	2 (13.3)	13 (86.7)	2 (66.7)	1 (33.3)	1 (25.0)	3 (75.0)
합계	36 (34.3)	69 (65.7)	56 (44.1)	71 (55.9)	59 (44.4)	74 (55.6)	50 (33.6)	99 (66.4)	57 (39.0)	89 (61.0)	53 (38.4)	85 (61.6)

² 통일부의 통계에 의하면, 2016년에 입국한 전체 북한이탈주민 중 여성의 비중은 약 79%이다.

(2) 탈북 후 입국까지의 소요기간 및 재북 거주지

응답자들의 탈북연도와 입국연도의 분포를 살펴보면 <표 1-1>에 나타나듯 2011년 조사의 전체 응답자 105명 중 104명은 2010년에 탈북했고, 1명은 2011년에 탈북했다. 이들 중 89명이 2010년에 입국했으며, 14명이 2011년에 입국했다. 2012년 조사의 전체 응답자 127명은 모두 2011년에 탈북하여 같은 해에 입국했다. 2013년 조사의 전체 응답자 133명의 경우에는 131명이 2012년에 탈북하여 같은 해에 입국했고, 2명은 2012년에 탈북하여 이듬해인 2013년에 입국했다. 2014년 조사의 전체 응답자 149명 중 141명이 2013년에 탈북하여 같은 해에 입국했고, 8명은 2013년에 탈북하여 이듬해인 2014년에 입국했다. 2015년 조사의 전체 응답자 146명은 모두 2014년도에 탈북했으며, 이 중 129명은 2014년도에 입국했으며, 17명은 2014년도에 탈북하여 이듬해인 2015년에 입국했다. 2016년 조사의 전체 응답자 138명 중 135명이 2015년도에 탈북하였으며, 이 중 99명이 같은 해 입국하였고 36명이 2016년 입국하였다. 2016년에 탈북하여 같은 해 입국한 응답자는 3명이었다.

각 조사의 응답자들이 탈북하여 입국하기까지 걸린 기간을 살펴보면, <표 1-3>에서 보이듯 2011년 평균 3.63개월, 2012년 평균 3.57개월, 2013년 평균 3.37개월, 2014년 평균 2.26개월, 2015년 평균 2.49개월로 탈북하여 입국까지의 소요 기간이 점점 단축되다가 2016년 3.33개월로 조금 늘어났다. 특히 2015년 조사의 경우에는 탈북과 입국까지의 소요 기간이 2개월 이하에 해당하는 응답자의 비중이 69.8%로 나타났고 2016년에도 44.9%를 보였다. 이것은 상당수의 탈북자들이 제3국에서 장기간 체류하지 않고 탈북하여 바로 남한으로 입국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러

한 패턴을 반영하여 이들을 '직행탈북자'라고 부르기도 한다.

<표 1-3> 탈북 후 입국까지 걸린 시간

(단위: %)

조사연도 소요기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개월 미만	0.0	0.0	0.0	3.4	0.0	1.4
1개월	2.9	1.6	0.0	26.8	30.8	21.0
2개월	25.7	18.1	29.3	48.3	39.0	22.5
3개월	38.1	48.8	47.4	8.1	14.4	15.2
4개월	14.3	14.2	8.3	2.0	6.8	14.5
5개월	1.0	6.3	5.3	4.7	2.1	15.2
6개월	2.9	4.7	1.5	2.7	1.4	2.9
7개월	5.7	0.8	3.8	2.0	0.7	1.4
8개월	1.9	2.4	1.5	1.3	0.0	0.7
9개월	0.0	0.8	0.8	0.7	1.4	1.4
10개월	2.9	1.6	2.3	0.0	3.4	0.7
11개월	1.9	0.8	0.0	0.0	0.0	1.4
무응답	2.9	0.0	0.0	0.0	0.0	1.4
평균(개월)	3.63	3.57	3.37	2.26	2.49	3.33
합계(명)	105	127	133	149	146	138

응답자들의 탈북하기 전 최종 거주지 분포는 지역적 편중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표 1-4>에 나타나듯, 함경북도와 양강도 출신의 응답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각 조사에서 두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90.5%, 2012년 81.9%, 2013년 82.5%, 2014년 83.9%, 2015년

84.9%, 2016년 87.7%를 보이고 있다.³⁾ 이러한 응답자의 지역적 편중현상은 탈북 현상이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1-4〉 탈북 전 최종 거주지

(단위: 명(%))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평양	0 (0.0)	0 (0.0)	1 (0.8)	3 (2.0)	3 (2.1)	5 (3.6)
개성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남포	0 (0.0)	1 (0.8)	0 (0.0)	2 (1.3)	1 (0.7)	2 (2.4)
평안남도	5 (4.8)	0 (0.0)	2 (1.5)	4 (2.7)	3 (2.1)	2 (1.4)
평안북도	0 (0.0)	1 (0.8)	6 (4.5)	0 (0.0)	3 (2.1)	1 (0.7)
함경남도	4 (3.8)	14 (11.0)	11 (8.3)	9 (6.0)	5 (3.4)	4 (2.9)
함경북도	55 (52.4)	65 (51.2)	51 (38.6)	53 (35.6)	64 (43.8)	58 (42.0)
자강도	0 (0.0)	0 (0.0)	0 (0.0)	1 (0.7)	0 (0.0)	0 (0.0)
양강도	40 (38.1)	39 (30.7)	58 (43.9)	72 (48.3)	60 (41.1)	63 (45.7)
황해남도	0 (0.0)	3 (2.4)	0 (0.0)	1 (0.7)	1 (0.7)	0 (0.0)
황해북도	1 (1.0)	3 (2.4)	1 (0.8)	2 (1.3)	4 (1.3)	0 (0.0)
강원도	0 (0.0)	1 (0.8)	2 (1.5)	2 (1.3)	2 (1.4)	3 (2.2)
무응답	0 (0.0)	0 (0.0)	1 (0.8)	0 (0.0)	0 (0.0)	0 (0.0)
합계(명)	105	127	133	149	146	138

3) 통일부의 통계에 의하면 2016년 12월 말 입국자 기준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북한 거주지 중에서 함경북도와 양강도의 비중은 각각 61.9%, 14.1%를 차지한다.

(3) 교육수준·직업 분포

네 차례의 조사에서 응답자들의 교육수준 분포를 보면, 고등중학교의 학력을 가진 이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각 조사에서 고등중학교 학력의 응답자 비중은 2011년 66.7%, 2012년 65.4%, 2013년 71.4%, 2014년 66.7%, 2015년 61.0%, 2016년 74.6%로 나타났다. 남한의 전문대학교에 상응하는 전문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의 비중은 2011년 32.4%, 2012년 28.3%, 2013년 27.8%, 2014년 31.6%, 2015년 36.3%, 2016년 24.6%로 나타나 고학력을 가진 북한이탈주민들도 1/3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1-5〉 북한에서의 교육수준별 분포

(단위: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대학교	11.4	10.2	16.5	13.6	19.9	13.0
전문학교	21.0	18.1	11.3	18.0	16.4	11.6
고등중학교	66.7	65.4	71.4	66.7	61.0	74.6
인민학교	1.0	3.2	0.0	1.6	2.1	0.7
무학	0.0	1.6	0.8	0.6	0.7	0.0
무응답	-	1.6	-	-	-	-
합계(명)	105	125	133	147	146	138

응답자들의 북한에서의 직업 분포를 보면, 〈표 1-6〉에서 보이듯 노동자라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크다. 하지만 노동자 비중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1년 27.6%, 2012년 37.0%, 2013년 31.6%, 2014년 30.6%, 2015년 26.0%, 2016년 22.5%로 노동자의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직업 범주는 각 조사에서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2011년 조사에서는 사무원(12.4%)이, 2012년에는 장사(11.1%)와 주부(11.1%)가, 2013년에는 주부(16.5%)가, 2014년에도 주부(19.1%)가, 2015년에는 장사(20.5%), 2016년에는 주부(13.0%)가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직업이었다. 특히, 장사의 비중이 2014년 4.8%에서 2015년 20.5%로 큰 폭으로 증가하다가 2016년 다시 12.3%로 떨어졌다.

〈표 1-6〉 북한에서의 직업별 분포

(단위: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노동자	27.6	37.0	31.6	30.6	26.0	22.5
농민	8.6	8.7	3.8	7.5	4.8	9.4
사무원	12.4	4.7	9.8	12.2	8.9	10.9
전문가 (교원, 의사, 기술자 등)	7.6	7.1	8.3	3.4	5.5	7.2
학생	6.7	6.3	6.0	7.5	4.8	4.3
군인	5.7	3.9	4.5	4.8	4.8	8.0
외화벌이일군	1.0	2.4	2.3	0.0	4.1	2.9
장사	10.5	11.1	13.5	4.8	20.5	12.3
주부	10.5	11.1	16.5	19.1	11.6	13.0
무직 및 기타	3.8	6.3	3.8	10.2	8.2	9.4
무응답	5.7	1.6	-	-	0.7	-
합계(명)	105	127	133	147	146	138

(4) 당원 가입 여부

응답자의 당원 여부는 〈표 1-7〉에서 보이듯 북한에서 당원이었던 응답자의 비중은 2016년 조사에서 18.8%에 불과하고, 반면에 비당원의 비중은 81.2%를 차지한다. 연도별 당원과 비당원의 비중은 큰 변동이 없고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5년 조사에서 당원이라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서 직업 분포를 보면, 사무원 30.8%, 노동자 19.2%, 군인 19.2%의 순서로 비중이 나타났다. 2011년부터 2014년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을 모두 합한 경우에서 직업별 당원 비중을 보면, 노동자>사무원>군인 순서로 비중이 많이 나타났으나, 2015년의 경우에는 노동자>사무원>전문가 순서로 당원 비중이 높게 나왔다. 2016년에는 사무원의 수가 가장 높았고 노동자와 군인의 비중이 같은 비중으로 뒤를 이었다. 작년까지 비교적 높았던 전문가의 수는 올해 3.8% 비중이 매우 낮았다. 장사, 외화벌이 직업을 가진 사람은 없었다.

〈표 1-7〉 북한에서의 당원 여부 분포

(단위: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당원	9.5	14.4	14.3	13.5	17.8	18.8
후보당원	1.0	0.0	0.0	0.7	0.7	0.0
비당원	85.7	84.3	85.7	85.8	80.0	81.2
무응답	3.8	1.6	-	-	0.7	-
합계(명)	105	127	133	147	146	138

(5) 북한에서의 경제활동

북한주민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원적인 수입 경로가 있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본 조사 역시 북한주민의 경제활동 및 생활수준을 이해하기 위하여 ‘공식 월수입’과 ‘비공식 월수입’을 조사했다. 공식 월수입의 경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수입 수준은 6년 연속 5,000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표 1-8>에 나타나듯이 그 비중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공식 월수입이 ‘5,000원 이하’라는 응답률은 2011년 45.1%, 2012년 43.4%, 2013년 37.4%, 2014년 26.2%, 2015년 35.6%, 2016년 26.8%로 나타났다. 또한, 공식 월수입이 ‘0원’이라는 응답률 역시 2011년 32.9%, 2012년 30.2%, 2013년 52.7%, 2014년 61.1%, 2015년 54.8%, 2016년 58.0%로 나타나 최근 4년간 10명 중 5명 이상이 공식 월수입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북한에서의 공식 월수입의 분포

(단위: 명(%))

공식 월수입	조사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0원	27 (32.9)	32 (30.2)	69 (52.7)	91 (61.1)	80 (54.8)	80 (58.0)
1,000원 이하	7 (8.5)	10 (9.4)	2 (1.5)	13 (8.7)	7 (4.8)	7 (45.1)
5,000원 이하	37 (45.1)	46 (43.4)	49 (37.4)	39 (26.2)	52 (35.6)	37 (26.8)
1만 원 이하	2 (2.4)	4 (3.8)	5 (3.8)	2 (1.3)	1 (0.7)	4 (2.9)
10만 원 이하	6 (7.3)	9 (8.5)	0 (0.0)	3 (2.0)	4 (2.7)	5 (3.6)
50만 원 이하	2 (2.4)	5 (4.7)	4 (3.1)	0 (0.0)	0 (0.0)	3 (2.2)

공식 월수입	조사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00만 원 이하	1 (1.2)	0 (0.0)	2 (1.5)	0 (0.0)	1 (0.7)	2 (1.4)
100만 원 초과	0 (0.0)	0 (0.0)	0 (0.0)	1 (0.7)	1 (0.7)	0 (0.0)
무응답	23 (21.9)	21 (16.5)	2 (1.5)	0 (0.0)	0 (0.0)	0 (0.0)
합계(명)	105	127	133	149	146	138

이와 대조적으로 비공식 월수입의 경우는 점차 고소득 월수입의 응답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표 1-9>에서 보이듯 비공식 월수입의 경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50만 원 이하’로 2011년 23.2%, 2012년 40.4%, 2013년 40.6%, 2014년 30.3%, 2015년 29.5%, 2016년 26.8%로 나타났다. 가장 눈에 띄게 변화한 것은 ‘100만 원 이하’의 응답과 ‘100만 원 초과’의 응답으로 전자의 비중은 2011년 7.3%에서 2016년 23.9%로 크게 증가하였고, 후자의 비중은 2011년 7.3%에서 2016년 15.2%로 증가했다. 반면에 ‘10만 원 이하’의 응답의 비중은 2011년 22.0%에서 2016년 8.0%로 크게 감소했다. 이와 같은 소득 격차의 변화는 공식 소득 부분에서보다 비공식 소득 부분에서 훨씬 더 불평등한 구조가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비공식 소득 구성의 변화는 비공식 경제활동의 규모가 커지면서 고소득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동시에 시장의 차별적 분배 메커니즘에 의해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1-9〉 북한에서의 비공식 월수입의 분포

(단위: 명(%))

비공식 월수입	조사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0원	18 (22.0)	21 (19.3)	32 (25.0)	33 (23.2)	24 (16.5)	32 (23.2)
1,000원 이하	6 (7.3)	0 (0.0)	3 (2.3)	4 (2.8)	0 (0.0)	2 (1.4)
5,000원 이하	7 (8.5)	2 (1.8)	0 (0.0)	2 (1.4)	0 (0.0)	1 (0.7)
1만 원 이하	2 (2.4)	2 (1.8)	3 (2.3)	2 (1.4)	0 (0.0)	1 (0.7)
10만 원 이하	18 (22.0)	25 (22.9)	9 (7.0)	26 (18.3)	9 (6.2)	11 (8.0)
50만 원 이하	19 (23.2)	44 (40.4)	52 (40.6)	43 (30.3)	43 (29.5)	37 (26.8)
100만 원 이하	6 (7.3)	8 (7.3)	10 (7.8)	17 (12.0)	36 (24.7)	33 (23.9)
100만 원 초과	6 (7.3)	7 (6.4)	19 (14.8)	15 (10.6)	34 (23.2)	22 (15.2)
무응답	23 (21.9)	18 (14.2)	2 (1.5)	2 (1.4)	0 (0.0)	0 (0.0)
합계(명)	105	127	133	144	146	138

북한주민들이 비공식 수입을 획득하는 주요 경제활동은 장사이다. 〈표 1-10〉을 보면 응답자들의 10명 중 약 8명이 북한에서 장사 경험이 있다. 장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1년 68.6%, 2012년 69.3%, 2013년 74.4%, 2014년 69.8%, 2015년 76.7%, 2016년 68.8%로 조사 연도 별로 약간씩의 응답률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교육 수준별 장사 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직업별 장사 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6년간의 통합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여 직업별 장사 경험의 응답률을 보면, 노동자 67.8%, 농민 55.4%, 사무원 68.8%, 전문가 66.0%, 학생 40.4%, 군인 57.5%, 외화벌이 82.4%, 가정부인 87.3%로 나타났다. 북한주민들 중 장사를 가장 적극적으로 하는 직업군은 가정부인과 외화벌이군으로 10명 중 8명 이상이 장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학생, 농민, 군인의 경우는 장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회집단임을 보여준다.

〈표 1-10〉 장사활동 경험 유무

(단위: %)

장사 경험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있다	68.6	69.3	74.4	69.8	76.7	68.8
없다	27.6	29.9	25.6	30.2	23.3	31.2
무응답	3.8	0.8	-	-	-	-
합계(명)	105	127	135	149	146	138

(6) 탈북 후 정보접근성 및 남한 친척의 유무

본 조사는 북한이탈주민들이 탈북 후에도 북한 내부의 정보나 소식을 얼마나 자주 접하고 있는가를 파악했다. 〈표 1-11〉에서 보이듯 거의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은 탈북 후에도 북한의 내부 소식을 ‘조금씩’ 또는 ‘거의 대부분’ 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내부 소식을 ‘조금씩’ 또는 ‘거의 대부분’ 접하고 있다는 응답비율은 2011년 68.5%, 2012년 78.8%, 2013년 79.7%, 2014년 82.6%, 2015년 74.0%, 2016년 76.8%이다.

이와 같은 응답결과는 남북한 간 정보교류가 상당히 활발하며 동시에 정보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남한의 북한이탈주민과 북한 내부의 구성원 간의 정보교류에서 휴대폰은 주요 매개체이다. 최근 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이집트 이동통신사인 오라스콤(Orascom)과 북한 조선체신회사의 합작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고려링크를 이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가입대수는 2014년 기준으로 280만대에 이르며, 평양을 포함한 15개 주요 도시와 86개의 작은 도시까지 이동통신 서비스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⁴⁾ 이처럼 북한사회에서의 정보통신의 빠른 보급은 북한이탈주민과 북한 내부의 구성원 간의 정보교류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 사이에 '직행탈북자'의 증가 현상과도 무관하지 않다. 다시 말해서, 북한 내부 구성원은 이미 남한에서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로부터 남한사회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탈북 방법 및 탈북경로 등과 관련된 정보를 획득하여 탈북 후 입국의 소요기간을 크게 단축하고 있다.

〈표 1-11〉 탈북 후 북한의 소식에 대한 접근성

(단위: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13.3	19.7	22.6	24.8	19.2	26.1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55.2	59.1	57.1	57.8	54.8	50.7
거의 접할 수 없었다	28.6	21.3	20.3	17.5	25.3	23.2
무응답	2.9	-	-	-	0.7	-
합계(명)	105	127	133	149	146	138

4) KDB산업은행, 『북한의 산업 2015』(서울: KDB산업은행, 2015), p.756.; 미국의소리, 『북한의 휴대전화 사용실태』, 『KDI 북한경제리뷰』(2014.3.)

탈북하기 전에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친척의 유무 관계는 위에서 언급한 탈북 후 북한의 소식에 대한 접근성과 탈북 후 입국까지의 소요시간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6년간의 조사결과를 보면, 탈북 후 북한 소식에 대한 접근성은 점차 높아져 가고 또한 탈북 후 입국까지의 소요 시간이 점차 단축되고 있는 것과 동시에, 탈북 전에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친척이 있다는 응답률 역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1-12〉에서 나타나듯이 탈북하기 전에 남한에 친척이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1년 58.1%, 2012년 62.2%, 2013년 65.4%, 2014년 69.1%로 4년 연속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5년 41.8%, 2016년 39.1%로 감소하였다. 남한의 친척 유무와 탈북 후 입국까지의 기간을 교차분석 해본 결과, 남한에 친척이 있는 경우는 탈북 후 입국까지의 소요기간이 친척이 없는 경우보다 더 짧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 결과는 남한에 먼저 이주한 가족이나 혹은 남한에 있는 친척들이 추가 탈북자들의 이동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1-12〉 탈북 전 남한 친척의 유무

(단위: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없다	39.1	37.8	34.6	30.9	58.2	60.9
있다	58.1	62.2	65.4	69.1	41.8	39.1
무응답	2.9	-	-	-	-	-
합계(명)	105	127	133	149	146	138

(7) 가족생활

응답자들의 현재 혼인상태를 살펴보면, <표 1-13>에서 보이듯 미혼 상태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1년 52.4%, 2012년 45.7%, 2013년 37.6%, 2014년 30.9%로 계속 감소하다가 2015년 39.0%로, 2016년에는 42.0%로 증가했다. 이와 반대로 결혼 상태에 있는 응답자의 비중은 2011년 41.9%, 2012년 44.1%, 2013년 53.4%, 2014년 55%로 계속 증가하다가 2015년에는 42.5%, 2016년에는 27.1% 대폭 감소했다. 흥미로운 것은 이혼 상태에 있는 응답자의 비중이 5년 사이에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혼 상태에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1년 0%, 2012년 9.5%, 2013년 9.0%, 2014년 14.9%, 2015년 17.8%로 계속 증가하다가 2016년에 들어 10.9%로 다시 감소했다. 이혼 비율의 증가는 남한사회의 적응 및 정착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혼 응답비율은 30대와 4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 연령대에서 이혼으로 인한 가족해체 또는 가족위기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문제 접근 및 정책 수립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표 1-13> 혼인 상태에 따른 분포

(단위: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미혼	52.4	45.7	37.6	30.9	39.0	42.0
결혼(동거포함)	41.9	44.1	53.4	55.0	42.5	27.1
이혼	0.0	9.5	9.0	14.9	17.8	10.9
무응답	5.7	0.8	-	-	0.7	-
합계(명)	105	127	133	149	146	138

응답자의 자녀수를 파악한 결과, <표 1-14>에서 나타나듯 0명이라는 응답 비중이 가장 많다. 자녀의 수는 결혼 상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미혼자의 수와 자녀의 수가 0명인 응답률이 동반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2016년 조사에서 1명이라는 응답률은 전년 대비와 같이 2순위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2명이라는 응답률은 전년 대비에 감소하였으나 전체 비중으로는 세 번째로 전년과 같게 나타났다. 이혼 상태에 있는 응답자 중에서 자녀가 있는 사례가 2012년과 2013년 조사에서는 각각 12명, 2014년에 21명, 2015년에는 26명, 2016년에 15명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응답자들은 다른 응답자들에 비해 우리 사회에 적응하고 정착하는데 더 힘들기 때문에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상대적으로 더 필요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14> 자녀의 수 분포

(단위: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0명	22.9	24.4	38.4	34.2	39.7	43.5
1명	27.6	27.6	32.3	27.5	35.6	33.3
2명	17.1	19.7	24.1	29.5	21.2	18.8
3명	5.7	7.1	4.5	6.7	2.1	4.3
4명	3.8	1.6	0.8	1.3	1.4	0.0
5명	-	-	-	0.7	-	0.0
무응답	22.9	19.7	-	-	-	-
합계(명)	105	127	133	149	146	138



제2장 통일인식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제2장 통일인식

1. 서론

통일이란 정권 대 정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제도적 통합을 의미함과 동시에, 시민 대 시민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통합을 의미한다. 정치 엘리트들이 어떠한 통일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통일 정책을 수립해나가는 지 역시 통일에 있어 중요한 문제이지만, 통일의 또 다른 주체인 시민들이 통일을 어떻게 바라보고 얼마나 통일을 염원하는지 역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시민 수준에서 어느 정도 통일에 대한 생각과 필요가 공유될 때 통일에 대한 정책들이 탄력을 얻어 추진될 수 있고, 통일 과정과 이후의 통합 문제 역시 큰 갈등 없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정책은 시민의 선호에 기반해야 한다는 대의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도 시민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을 올바르게 파악해야 이를 근거로 제대로 된 통일 정책들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시민 차원의 통일인식을 논의할 때 통일의 또 다른 당사자라 할 수 있는 북한주민들의 통일에 대한 시각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⁵ 북한주민들이 통일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또 이러한 인

5] 강동완·박정란, "북한주민의 통일인식 조사 연구: 북한주민 100명 면접조사를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23권 2호 (2014), pp. 1-31.

식은 남한주민과 비교하였을 때 얼마나 다른지를 파악하는 것은 통일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상대방의 생각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만의 관점으로 통일정책을 마련할 경우, 북측이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울러 통일 과정과 이후의 사회적 통합을 생각하더라도 서로의 인식에 대한 깊은 이해는 바람직한 통일을 이루기 위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본 장은 북한주민들의 통일인식을 여러 부문에 걸쳐 분석해 보고자 한다. 물론 북한주민의 의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직접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으나, 현재의 남북관계에서 그러한 조사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비록 차선책이기는 하나 북한을 이탈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북한 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이들이 북한에 거주할 당시 가지고 있던 통일에 대한 생각 및 그들이 보고 느꼈던 주변 주민들의 태도와 동향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간접적으로나마 북한주민들의 인식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샘플이 가지는 대표성의 문제는 이전의 조사에서도 꾸준히 제기되었으나, 김병로 등이 주장하듯⁶ 매년 시행된 조사를 통해 샘플의 크기가 커져 어느 정도의 인구 통계적 다양성이 확보되었고, 또한 다른 실제 북한주민 조사와의 비교분석해 보더라도 많은 항목에서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서 이러한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통일의 필요성, 통일에 대한 의지,

6] 김병로, "탈북자 면접조사를 통해 본 최근 북한사회의 변화," 『북한연구학회보』, 제18권 2호 (2012), pp. 147-172; 김병로, "탈북자 면접조사를 통해 본 최근 북한주민의 대남인식 변화," 『통일과평화』, 6집 2호 (2014), pp. 39-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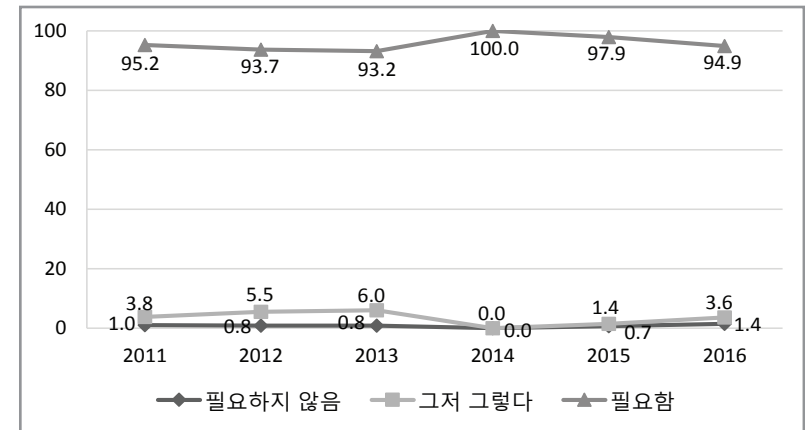
통일의 이유와 시기에 대한 예상, 통일의 방식, 통일의 집단적·개인적 효용성, 대북정책의 평가, 통일 후 남북주민간의 통합 등에 대해 올해 나타난 북한이탈주민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분석해 보겠다.

2. 통일의 필요성과 염원

먼저 북한주민의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 문항을 사용하였다. 결측치를 제외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한 2016년의 조사결과 ‘매우 필요하다’(89.1%)와 ‘약간 필요하다’(5.8%)를 합하여 94.9%의 응답자가 통일을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의 97.9%에 비하면 다소 낮아진 수치이기는 하나 여전히 95%에 가까운 절대 다수의 응답자가 통일의 필요성을 피력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절대적인 통일에 대한 필요성은 남한주민의 응답과 비교할 때 더욱 두드러진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서 비슷한 시기에 남한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통일외식조사』 설문 결과, 동일한 질문에 대해 53.7%의 응답자만이 통일을 필요하다고 대답하였다. <그림 2-1>의 그래프가 보여주듯 사실상 거의 모든 응답자가 통일을 필요하다 말하는 경향이 매년 반복되고 있기에 통일은 그만큼 북한주민에게 당연하고 절대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1> 통일의 필요성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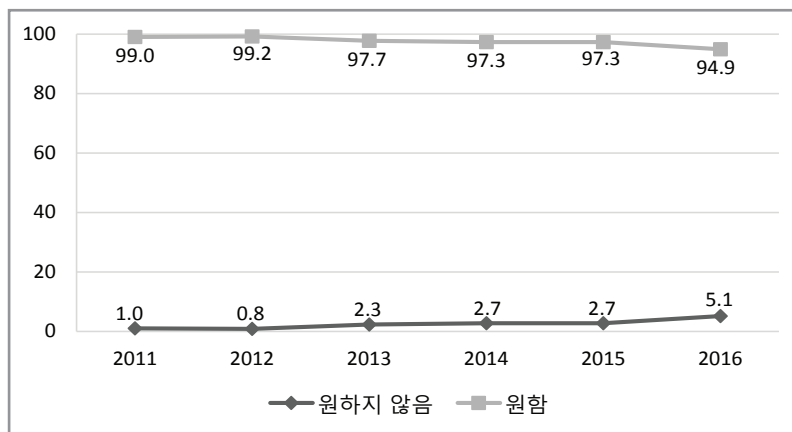
통일의 당위성과 통일에 대한 염원은 다른 문제일 수 있다. 특히 북한과 같이 심각한 경제난과 체제의 위험을 겪고 있는 사회에서는 통일을 자신들이 당면한 문제 해결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경향이 강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필요성과는 별개로 북한주민이 진정 통일이 되기를 원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북한의 정치사회화 정도가 그 어느 사회보다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인의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해 자신의 진정한 선호를 드러내기보다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쪽으로 응답할 가능성이 크다.⁷⁾ 이러한 ‘사회적 적절성에 대한 오류’(Social desirability bias)를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응답자 자신이 아닌 ‘북한주민’이라는 일반화된 타자가 통일을 얼마나 원하는지를 물었다.

7] Adam Berinsky, "Two Faces of Public Opin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4 (1999), 1209-30.; Matthew Streb et al., "Social Desirability Effects and Support for a Female Presidential Candidate," *Public Opinion Quarterly* 72 (2008), 76-89.

조사 결과, “귀하는 북한주민이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되기를 얼마나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94.9%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통일을 매우(88.4%), 내지는 약간(6.5%)이라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북한주민은 대부분 통일을 필요하다 여길 뿐 아니라 통일에 대한 강한 염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설문 초기에 비해 해가 갈수록 통일에의 의지가 조금씩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는 있으나, 아직은 그 차이가 추가적인 해석을 필요로 할 만큼 두드러지는 것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림 2-2〉 통일에의 의지

(단위: %)



3. 통일의 이유

다음으로 북한주민은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다. 2014년부터 조사된 해당 설문 문항은 〈표 2-1〉에 나타난 총 다섯 가지의 통일 이유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물었다. 올해의 결과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북한주민이 잘 살 수 있도록’이라는 실용주의적 이유가 42.0%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같은 민족이니까’라는 민족주의적 응답이 30.4%로 두 번째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남북 간 전쟁 위협의 해소’, ‘이산가족의 고통 해결’, 그리고 ‘북한의 선진국 도약’이 그 뒤를 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 2년의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민족적 당위에 기반을 둔 이유보다 북한주민의 생활 개선이란 도구적 이유가 더 중요한 통일의 이유라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년 민족주의적 이유가 실용주의적 이유를 상회하게 나타나는 남한주민의 설문결과와는 상반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올해 남한주민의 통일인식조사 결과, 오직 14.2%의 응답자만이 ‘남한의 선진국 도약’을 선택했지만, ‘같은 민족이니까’를 선택한 응답자는 39.0%에 달했다. 물론 이 같은 결과로 남한주민들이 북한주민들에 비해 통일을 보다 민족적 당위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고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다. 경제 부문에서 어느 한쪽이 치우친 경우, 보다 못 사는 사회가 잘 사는 사회에 비해 통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더 크게 기대할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즉, 북한주민이 통일을 통해 경제적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남한주민의 경우에는 북한과의 통합이 과연 경제적 측면에서 득이 될지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 따

라서 통일의 이유에 대한 남북한 주민의 상이한 응답은 양측의 불균형적 경제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올해의 설문 결과에서 더욱 주목해보아야 할 것은, 3년에 걸친 조사에서 ‘같은 민족이니까’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올해의 조사에서는 ‘이산가족의 고통 해결’을 가장 중요한 통일의 이유로 고른 응답자 역시 8.7%를 차지하여, 작년보다 5.2%나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반해 ‘북한주민의 생활 개선’ 및 ‘북한의 선진국 도약’을 선택한 응답자는 올해 46.4%로, 작년의 57.8%에 비해 11.4%나 감소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북한주민이 통일을 민족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어느 정도 증가하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문항은 조사가 이루어진지 아직 오래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향이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결과를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2-1〉 통일의 이유

(단위: %)

	같은 민족이니까	이산가족의 고통 해결	남북간 전쟁 위험 해소	북한주민이 잘 살 수 있도록	북한의 선진국 도약	합계(명)
2014	24.1	7.6	11.7	47.6	8.3	145
2015	28.2	3.5	8.5	47.9	9.9	142
2016	30.4	8.7	12.3	42.0	4.4	138

4. 통일의 방식과 예상 시기

통일 이슈에 있어 가장 뜨거운 논쟁 중 하나는 바로 어떠한 방식으로 통일을 이룰지에 대한 문제일 것이다. 남북 각자의 체제로 흡수통일을 할 것인지, 두 체제를 절충할 것인지, 아니면 통일 이후에도 각각의 체제를 유지할 것인지 등, 통일의 방식에 대한 생각은 사람마다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먼저 올해 남한주민을 대상으로 한 통일인식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남한의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답변한 사람이 48.9%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하지만 양 체제의 절충안, 혹은 서로의 체제를 유지하는 안 또한 각각 33.8%, 13.4%를 기록해 상당수의 시민들이 남한식 흡수통일 외에 다른 방식의 통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북한주민들의 생각은 어떨까.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사용하여 조사한 결과,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한의 체제로 통일’을 이룬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42.8%)을 차지했다. 이전 년도의 응답률(48.6%)에 비하면 다소 줄어들긴 하였으나, 남북한 주민 모두가 남한 체제로의 통일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 체제로의 통일’에 대해서는 5.8%의 낮은 수치를 기록하여, 공산주의 체제로의 통일은 대부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남북한 체제의 절충’(14.5%) 혹은 ‘양 체제의 공존’(8.0%)은 남한주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어떤 체제이든 상관없다’는 응답(29.0%)은 남한주민(3.8%)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어떤 체제이든 상관없다는 응답이 북한주민에게서 유독 높게

나타난 것은 아마도 반체제적 선호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강도 높은 정치사회화에 오랜 세월 길들여진 경우, 쉽사리 체제에 반하는 의견을 표시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남한 사회만큼 다양한 정치체제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는 북한의 상황을 고려할 때, 체제의 선택에 대한 질문은 응답자에게 인지적 부담을 주었을 수도 있다. 어떠한 종류의 부담이든 응답자가 답하기 곤란한 질문의 경우 '모호한 응답'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실제 선호를 감춘다는 기존 연구에 비추어 볼 때,⁸⁾ 이러한 결과 역시 같은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표 2-2〉 통일의 방식

(단위: %)

	북한의 현 체제로 통일	남북한의 체제 절충	남북한 두 체제 공존	남한의 현 체제로 통일	어떤 체제이든 상관없음	합계(명)
2014	2.0	21.6	4.7	39.9	31.8	148
2015	3.4	17.1	6.9	48.6	24.0	146
2016	5.8	14.5	8.0	42.8	29.0	138

다음으로 응답자가 통일의 시기를 언제로 예상하는지를 물었다. 〈표 2-3〉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통일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한 응답자가 44.2%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응답은 '10년 이내'(31.9%)였고, '5년 이내'(13.0%)가 그 뒤를 이었다. 즉, 통일의 시기

를 예상함에 있어 북한주민의 응답 간에 양극화가 심하게 나타났다. 통일 시기에 대해 이렇게 과도한 낙관론과 비관론이 공존하는 것은, 남한주민의 응답과 비교하면 더욱 두드러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올해 조사된 동일한 설문 문항에 대해 남한주민들은 '5년 이내'(3.8%), '10년 이내'(14.2%), '20년 이내'(25.2%), '30년 이내'(15.0%), '30년 이상'(17.9%), '불가능'(24.2%) 등 응답 간에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이렇듯 대조적인 북한주민들의 응답 가운데서도, 통일이 불가능할 것이라 예견한 사람들이 2012년을 기점으로 꾸준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북한주민의 절대다수가 통일에 대한 높은 수준의 당위성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 응답자들이 남한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할 때, 남한 사회나 남한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통일을 불가능하다 여기게 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그보다는 2012년이 김정은의 권력 승계가 본격화된 시점이란 점에서, 숙청 등 강력한 내치를 통한 김정은 정권의 내구성과 계속되는 핵 도발로 인한 국제사회의 제재 등, 통일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북한의 대내외적 현실로 인해 통일에 대한 낙관론을 접은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다.

8] Adam Berinsky, "Two Faces of Public Opin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4 (1999), 1209-30.; Diane Binson and Joseph Catania, "Respondents' Understanding of the Words Used in Sexual Behavior Questions," *Public Opinion Quarterly* 62 (1998), 190-208.

〈표 2-3〉 통일의 예상 시기

(단위: %)

	5년 이내	10년 이내	20년 이내	30년 이내	30년 이상	불가능 하다	합계(명)
2011	20.2	30.8	12.5	2.9	6.7	26.9	104
2012	11.8	29.1	8.7	1.6	5.5	43.3	127
2013	12.0	22.6	8.3	4.5	8.3	44.4	133
2014	18.9	18.2	9.5	3.4	4.7	45.3	148
2015	11.0	30.3	6.9	2.1	6.2	43.5	145
2016	13.0	31.9	6.5	2.2	2.2	44.2	138

5. 통일에 대한 기대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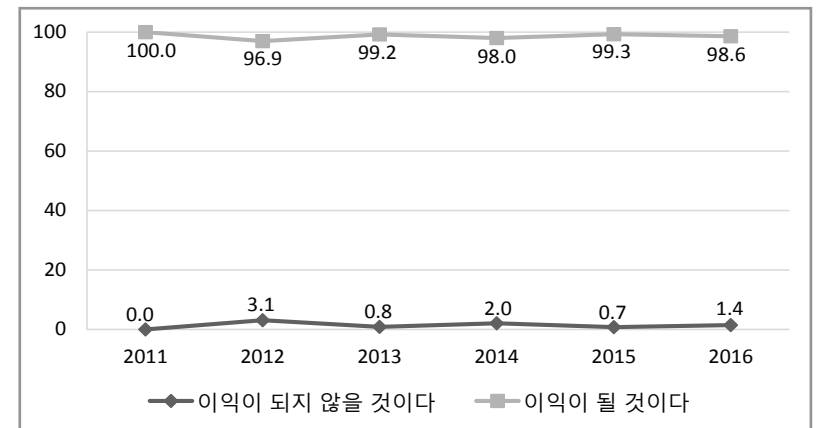
앞서 통일에 대한 당위성과 열망을 물었다면, 여기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통일의 편익에 대한 기대감을 질문하였다. 통일을 얼마나 이익으로 인식하는지, 또는 비용으로 인식하는지는 통일인식에 있어 중요한 문제이다. 감정적 차원의 민족주의적 당위성을 넘어 합리적 차원에서 통일을 이로운 것으로 인식할수록, 통일에 대한 지지는 보다 견고하고 적극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익이란 개념은 집합적 이익과 개인적 이익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거시적 관점에서 통일이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 기대하더라도 자신의 이익과는 무관할 것이라 생각할 수 있고, 반대로 통일이 오히려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 예상하더라도 자신에게는 새로운 이익 창출의 기회가 될 것이라 여길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집합적 차원의 이익에 대해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북한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까?”란 질문을 사용하

였다. 〈그림 2-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92.8%)와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5.8%)를 합한 98.6%의 응답자가 통일이 북한 사회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답하였다. 즉, 북한주민은 대부분 통일이 북한 사회에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조사가 시행된 2011년 이래 꾸준히 관찰되었다. 이는 올해 남한 주민 중 통일이 남한 사회에 이익이 될 것이라 응답한 사람의 비중이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11.2%)와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41.3%)를 합하여 52.5%에 불과하였다는 점과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보인다. 남한주민들이 통일을 이익뿐 아니라 비용으로도 인식하고 있는 반면, 북한주민들은 통일을 이익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경향이 강한 것이다. 북한주민들의 이러한 통일에 대한 기대는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로 ‘북한주민이 잘 살 수 있도록’을 가장 많이 꼽았던 앞의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북한이 상대적으로 통일로 인한 수혜를 많이 보게 될 것이고, 이것이 북한주민이 통일을 바라는 주된 이유로 작용한 것이다.

〈그림 2-3〉 통일의 집합적 이익 기대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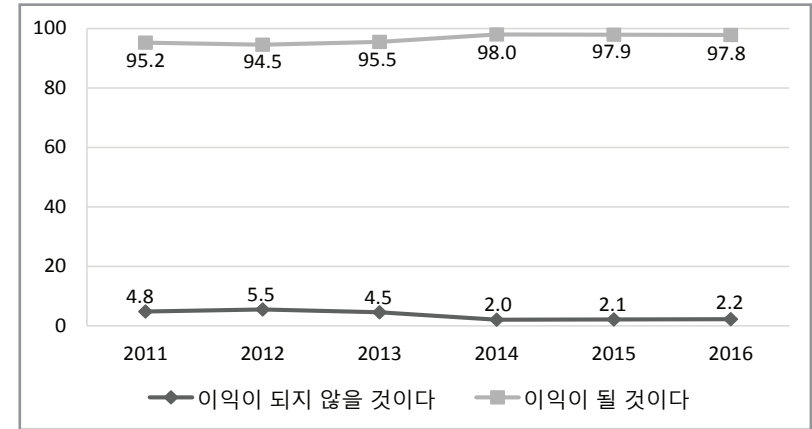
(단위: %)



다음으로 개인적 차원의 이익에 대해서는 “그럼 귀하는 통일이 자신에게는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북한주민의 생각을 엿고자 하였다. 집합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의 이익에 있어 다른 인식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개인적 차원에서도 북한주민들은 통일을 이로운 것으로 여기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4>를 보면 97.8%의 절대다수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통일이 개인적 차원에서도 이익이 될 것이라 답하였고, 이러한 경향은 예년과 비슷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이 중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80.4%에 그쳐, 집합적 이익의 기대감에서 동일한 응답을 한 97.8%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주민들이 통일이 북한사회에 큰 이익이 될 것이라는 점에는 대부분 동의하나, 과연 그것이 자신에게도 비슷한 수준의 이익을 가져다줄지에 대해서는 그만큼 강하게 동의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적 이익에 대한 기대감 역시 남한주민과 비교하면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의 조사에서 남한주민은 같은 항목에 대해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2.8%)와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21.9%)를 합쳐 총 24.8%의 응답자만이 통일이 개인에게 이로울 것으로 여겼다.

<그림 2-4> 통일의 개인적 이익 기대감

(단위: %)



6. 통일정책의 효용성

통일을 이루기 위한 여러 정책들에 대해 북한주민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대부분 통일정책이 남한의 주도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남한이 마련한 일련의 대북정책이 북한 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정책의 효용성을 가늠하는 데 있어서도 특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대북지원, 남북 간 사회문화교류와 경제협력, 그리고 정기적인 남북 회담 등 일련의 통일정책들이 통일을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어으로써 각 정책의 효용성에 대한 평가를 내리도록 하였다. 남한 사회에서는 통일과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를 속한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 입장, 혹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당파적 관점에 따라 내리는 경향이 강하다. 북한과 통일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남한 사회 내부의 이른바 ‘남남 갈등’은, 특히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이후 진보적 통일관에 바탕을 둔 대북지원 정책들이 추진되면서 본격화되었다. 하지만 이념과 당파에 따른 분화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북한 사회에서는 통일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와는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동일한 통일정책에 대해 남과 북이 얼마나 인식을 하고 있는지를 비교해서 보는 것 또한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이다.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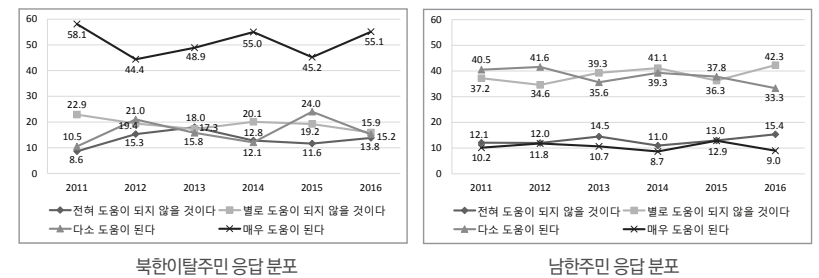
〈그림 2-5〉부터 〈그림 2-8〉은 각각의 통일정책이 갖는 효용성에 대해 남한과 북한주민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나란히 비교하고 있다. 먼저 〈그림 2-5〉는 인도적 대북지원에 대한 남북한 주민들의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올해의 결과에서 북한주민들은 70.3%가 ‘매우 혹은 다소 도움이 된다’라고 응답한 반면, 남한주민들은 42.3%만이 그러한 응답을 하였다. 특히 대북지원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인식은 작년에 비해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전체 응답률은 비슷했지만 그 안에서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인식한 응답자가 10% 가량 늘어남으로써 보다 강하게 대북지원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한주민들은 예년보다 대북지원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남북 간을 비교하면 대북지원의 효용성에 대해 북한주민들이 남한주민들보다 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더 두드러진 차이는, 남한 사회에서는 긍정과 부정의 응답 간에 뚜렷한 양극화가 관찰되는 반면 북한에서는 그러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남한의 경우 ‘다소 도움이 된다’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상반된 응답이 매년 1, 2위를 바

이 특히 통일정책의 효용성에 대한 질문은 다른 문항과 달리 북한에 살 때가 아닌 조사 시점에서의 생각을 물어음으로써, 동일한 질문에 대한 남한주민 조사결과와의 직접 비교를 가능케하였다.

뀌가며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하였고, ‘매우 도움이 된다’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양극단의 응답 역시 매년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매우 도움이 된다’는 강한 긍정의 답변이 매년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낸 가운데, 나머지 항목들이 비슷한 범위 안에서 자리바꿈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대북지원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 북한주민들의 인식에서는 아직 남한 사회의 ‘남남 갈등’과 비슷한 수준의 갈등은 아직 관찰되지 않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림 2-5〉 대북지원의 통일에 대한 효용성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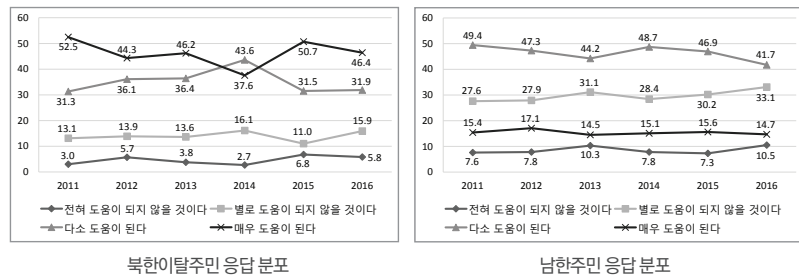


이러한 결과는 다른 통일정책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림 2-6〉에서 보듯, 학술계와 예술계, 체육계와 종교계 등 분야를 막론한 남북 간의 사회문화교류가 가지는 효용성에 대해 올해 북한주민들은 대다수인 78.3%가 긍정적인 답변을 보인 반면, 남한주민들은 56.4%만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대북지원에 대한 인식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경우 ‘매우 도움이 된다’와 ‘다소 도움이 된다’가 차례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한 것과 달리 남한에서는 ‘다소 도움이 된다’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가 1, 2위의 응답률을 보였다. 즉, 사회문화교류의 효용성에서도 북한의 인식

이 남한보다 긍정적임이 드러난 것이다. 작년의 결과와 비교하면, 남북 모두에서 부정적인 응답이 증가하였다. ‘전혀 혹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북한주민은 2015년 17.8%에서 2016년 21.7%로 늘어났고, 남한주민 역시 2015년 37.5%에서 2016년 43.6%로 증가한 양상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경향은 남북관계의 경색이 장기화되고, 특히 2016년 들어 발생한 일련의 안보위기로 기존의 교류 사업들이 대부분 중단되면서, 이렇게 남북관계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회문화교류 정책이 과연 통일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감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림 2-6〉 남북 사회문화교류의 통일에 대한 효용성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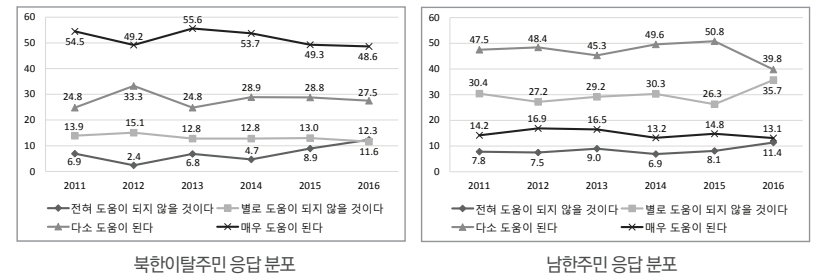


사회문화교류 못지않게 남북관계 악화의 직격탄을 맞은 것은 경제협력이다. 특히 금강산 관광 중단에 이어, 2016년 벽두에 터진 북핵 위기로 개성공단마저 폐쇄되면서 현재 남북 간의 경제협력은 모두 차단된 상태이다. 남북 간의 활발한 경제협력이 통일의 물꼬를 트고 나아가 정치적 협력으로 이어질 것이란 희망은 정치적 논리에 의해 좌절되었고, 이러한 좌절이 올해의 의식조사 결과에도 반영되었다. 〈그림 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올해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인식은 남북 모두에서 예년보다 부정적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북한주민의 경우 76.1%라는 다수의 응답자가 도움이 된다고 보기는 하였지만, ‘매우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응답은 2014년 이후 계속 증가하여 올해 처음으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를 능가하였다. 남한주민 사이에 이러한 부정적 변화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다소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작년의 50.8%에서 올해 39.8%로 크게 줄어든 반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26.3%에서 35.7%로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즉,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이자 최후의 보루로 여겨져 온 개성공단의 폐쇄로 인해 경제협력의 실질적 효용에 대한 시민들의 의구심이 커지게 된 것이다.

〈그림 2-7〉 남북 경제협력의 통일에 대한 효용성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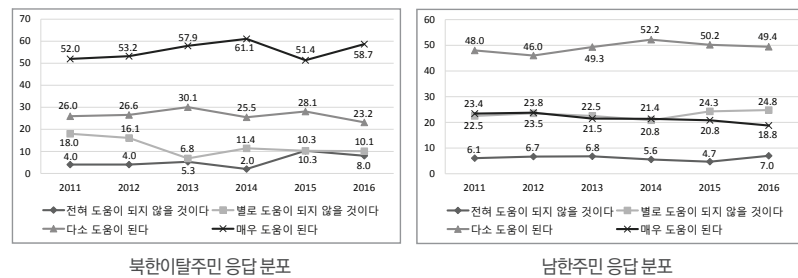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남북 간의 정기적 회담은, 〈그림 2-8〉에서 보듯 남북한 주민 모두가 다른 정책들보다 높은 효용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북 정기회담은 다양한 정치·경제·문화적 교류의 초석이 됨과 동시에 그 자체가 남북 화해무드의 상징이라는 점에서, 통일로 가는 과정에 필수불가결적 요소라 할 수 있다. 물론 과거의 경험에서 보듯 남북 간 회담이

제대로 된 결실을 맺지 못한 채 정치적 기류에 의해 좌절될 가능성 또한 얼마든지 있다. 하지만 모든 통일과 교류·협력에 대한 논의가 남북 간의 만남을 통해 성사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남북 주민들 모두가 높은 효용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과 북의 응답을 비교하면, ‘다소 또는 매우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남한의 경우 68.2%, 북한의 경우에는 81.9%를 기록, 역시 북한주민들의 통일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남한주민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8〉 남북 정기회담의 통일에 대한 효용성

(단위: %)



7. 통일 후 사회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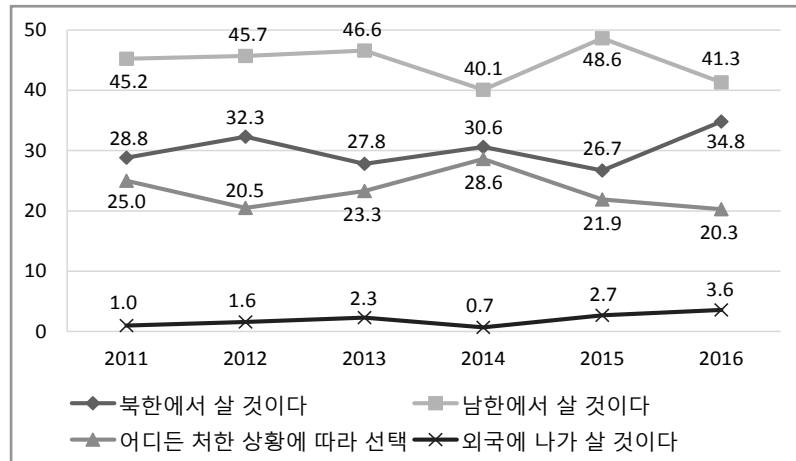
통일 이후 사회 양상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에 대해 남한 사회 내부에서는 기대감과 함께 우려감이 섞여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반세기 이상 서로 다른 체제와 문화 속에서 살아온 두 민족이 어떻게 함께 어우러져 살지의 문제는, 제도적 통일을 이루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특히 통일 이후 북한주민이 대량으로 남한 사회에 이주해 옴으로써 파생

될 수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걱정들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북한주민들이 통일 후 어느 지역에 거주할지에 대한 의향을 파악하는 것은 다가올 사회통합을 대비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설문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귀하는 통일이 되면 어느 지역에서 거주할 생각이십니까?”라 물었다.

〈그림 2-9〉에서 나타난 응답 결과, 작년에 비해 통일 후 남한에 거주하겠다는 응답은 48.6%에서 41.3%으로 감소한 반면, 북한에 남겠다는 응답은 26.7%에서 34.8%로 크게 늘어 조사가 시작된 2011년 이래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올해의 자료만을 본다면 통일 후 북한주민의 대거 이동은 기우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을 낳게 한다. 상당수의 주민들이 북한에 남기를 희망할 뿐 아니라,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라 대답한 사람과 외국에 나가 살 것이라는 응답자 역시 포함 24.0%에 달하기 때문이다. 물론 아직 남한에 온 지 1년 미만의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란 점에서 이들이 앞으로 남한 사회에 어떻게 적응하느냐에 따라 이러한 생각은 변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남한 사회에 대한 희망적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을 이들조차 상당수가 체제의 억압과 경제적 궁핍만 아니라면 북한에 계속 남아있고 싶다고 응답한 것은 우리의 예상과는 사뭇 다른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림 2-9〉 통일 후 거주 희망 지역

(단위: %)



8. 소결

본 장에서는 탈북민들이 통일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 질문을 통하여 분석해보았다. 분석의 일부는 탈북민이 과거 북한에서 살 때를 상정한 질문들이었고, 나머지는 현재의 견해를 묻는 질문들이었다. 또한 일부 질문은 응답자 본인의 생각을 물어보았고, 일부는 북한주민들의 전반적인 생각이 어떤지를 추측하도록 하는 질문을 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질문지를 통하여 비단 현재 남한에 거주하는 탈북민들의 의식을 조사할 뿐 아니라, 현재 북에 살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의식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 올해에도 지난 몇 년간 보여 온 통일인식의 경향이 큰 틀 안에서 어느 정도 유지되는 가운데 질문에 따라 조금씩 변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먼저 통일의 필요성과 염원에 대해서는 약간의 감소세가 있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절대 다수의 주민들이 통일을 필요하다고 여기고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통일에 대한 당위성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남한주민들의 의식과 비교하였을 때 특히 두드러지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통일의 이유에 대해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북한주민의 생활 개선을 위한 실용적 관점이 가장 높은 응답을 차지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응답은 남북한의 경제수준의 격차를 생각할 때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보다는 ‘같은 민족이니까’라는 민족주의적 관점의 응답이 계속해서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민족주의적 통일인식의 증가가 어떠한 배경에서 나온 것인지, 이것이 향후에도 지속될 경향을 나타낸 것인지는 계속해서 지켜보아야 할 문제로 보인다.

통일방식에 대해서는 남한 체제로의 통일을 탈북민들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자신의 반체제적 성향을 나타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다양한 정치체제 간의 선택이라는 인지적 부담으로 인해 ‘어떤 체제이든 상관없다’라는 모호한 답변을 한 응답자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통일의 시기에 대해서는 낙관론과 비관론이 공존하는 가운데, 특히 김정일이 권력을 승계한 2012년 이후 통일이 불가능할 것이라 여기는 응답이 꾸준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김정일의 공포통치로 생각보다 북한의 정권이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고 아울러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적 상황이 악화일로를 걸음에 따라, 통일의 가능성이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는 평가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일의 이익에 대한

기대감은 통일이 북한사회와 자신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남한보다 경제적 상황이 훨씬 어려운 북한이 통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집합적, 개인적 이익이 더 많다는 것에 북한주민들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통일을 이익과 동시에 사회적 비용으로 생각하는 남한주민들의 인식과는 사뭇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대북지원, 사회문화교류, 경제협력, 그리고 정기회담 등 일련의 통일 관련 정책에 대한 효용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남한주민에 비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신의 이념적 성향과 당파성에 따라 정책의 효용성에 대한 평가가 양극화를 보이고 있는 남한주민들과 달리, 북한주민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견해를 가진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남북관계의 경색이 지속됨에 따라 경제협력과 사회문화교류의 폭이 점차 줄어들면서, 두 정책에 대해 탈북민들이 느끼는 효용감은 특히 올해 들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남북 간의 정기적 회담에 남북한 주민 모두의 효용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점은 서로 간의 만남과 대화를 시작으로 이러한 국면을 타개해 나갈 수 있으리라는 국민들의 소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마지막으로 통일이후 거주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의외로 많은 비중의 응답자가 북한의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소된다면 북한에 계속 남기를 희망한다고 답변함으로써, 통일 과정에서 어떻게 북한 내부의 정치경제적 변화를 효과적으로 이끌어 낼지가 통일 이후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남북 간의 통합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됨을 말해주고 있다.



제3장 대남인식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제3장 대남인식

1. 서론

김정은 정권 5년 차에 접어든 북한은 주민들의 대남인식이 어떻게 바뀌고 있을까?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통일을 강성국가와 연결지며 높은 기대감을 갖고 통일문제를 바라보았다. 특히 2015년은 남과 북 모두에게 해방·분단 70년을 맞아 관계개선의 물꼬를 터보겠다는 의지와 기대가 높았던 해였다.¹⁰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8월 4일 비무장지대(DMZ)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여 긴장이 매우 고조되었다. 북한이 매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폭발 지뢰가 폭발하여 남한 병사 2명이 다리가 절단되는 부상을 입은 것이다. 이에 대해 북한 국방위원회는 8월 14일 “우리 군대가 그 어떤 군사적 목적을 필요로 했다면 막강한 화력 수단을 이용하였지 3발의 지뢰 따위나 주물러댈겠는가”라며 지뢰매설을 전면 부인하였다. 이러한 설전이 오가는 가운데 남한은 8월 8일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를 전격 결정하였으며 북한이 남한의 대북확성기를 향해 포격(8월 20일)을 가하고 48시간 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철폐하지 않으면 전면전을 불사하겠다고 천명함으로써 일촉즉발의 위기가 조성되었다. 남북 고위당

10] 북한은 2015년 신년 공동사설에서 “조국해방 일흔 뚝이 되는 올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는 구호를 내걸고 ‘최고위급회담’까지 언급하며 대화의지를 천명하였다.

국자회담(8.25)으로 가까스로 고비를 넘겼지만 이러한 군사적 충돌과 위기가 북한주민의 대남인식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작년 8.25합의 이후 남북 간에는 이산가족상봉과 노동자 축구가 진행되고 북한에 억류된 남한주민을 송환하는 등 유화적 조치도 뒤따랐다. 또 10월 10일 당창건 70주년 기념행사에 중국 공산당 류윈산 정치국 상무위원을 초청하여 그간 소원했던 북·중 관계를 복원하는 노력도 기울이며 화해의 분위기를 도출하였다. 이렇게 조성된 분위기를 토대로 10월 30일 제 7차 당대회를 2016년 5월에 개최한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모처럼 조성된 북·중 협력분위기는 모란봉악단 중국공연의 전격 취소(12월 12일), 이듬해 1월 6일 제 4차 핵실험 단행, 개성공단 폐쇄(2월 10일) 등으로 이어지면서 북·중관계와 남북관계는 다시 냉각되었다. 게다가 중국 내 북한식당 종업원 13명의 집단탈북(4월 7일)을 둘러싸고 남북 간에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다. 북한은 이 사건을 ‘납치’로 규정하고 CNN을 동원하여 “딸들을 돌려 달라”는 가족들의 호소를 방영하며 대남 선전전을 전개하였다.

2016년 조사에 나타난 북한주민의 대남인식은 대체로 이러한 환경 속에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주민의 대남인식은 남북관계의 사건과 인적·물적 교류 상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므로 지난 1년 동안의 남북관계 사건을 염두에 두고 조사 자료를 해석해야 할 것이다. 북한주민이 남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통일준비와 직결된다. 왜냐하면 통일은 궁극적으로 북한주민이 남한의 체제를 선택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동독주민들이 서독의 체제를 동경하여 서독체제로 통일하기를 열망하였듯이 한반도에서도 북한주민들이 남한과의 통일열망이 높아진다면 통일 가능성은 그만큼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점에서 북한주민들이 남

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협력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지 아니면 경계해야 할 대상 혹은 적대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파악한다면 통일을 예측하고 준비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또한 남북 간 문화적 차이와 이질성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남한의 대북지원에 대한 기대는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등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이다. 북한주민의 인식변화를 가늠해 보면 통일이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2016년 북한주민의 대남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본다.

2. 남한의 존재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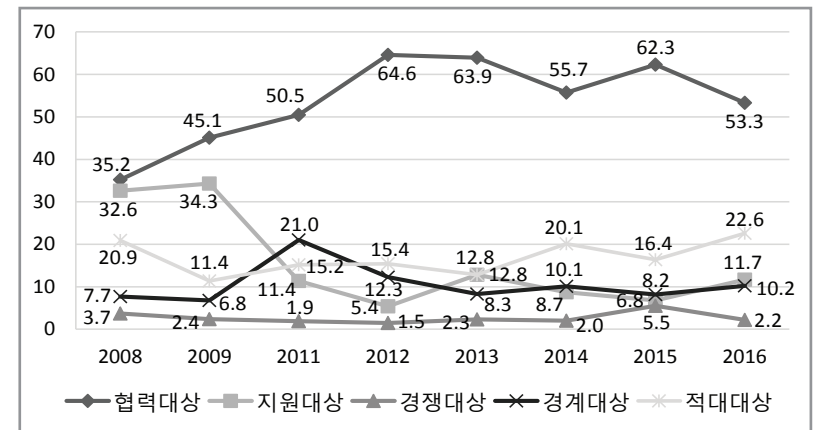
(1) 북한주민의 남북관계 인식

북한주민들에게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이 북한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도와주어야 할 지원 대상’(지원대상),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협력대상), ‘선의의 경쟁을 하는 대상’(경쟁대상), ‘경계해야 할 대상’(경계대상),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대상’(적대대상)이라는 선택지를 제시했다. 그 결과 2016년 북한주민의 대남인식은 작년에 비해 ‘협력대상’이라는 인식은 1년 사이에 62.3%→53.3%로 9.0%p 하락하였으며, ‘적대대상’이라는 인식은 16.4%→22.6%로 6.2%p 상승하였다. 이는 지난 1년 동안 자신들의 핵·인권·평화 정책에서 성과를 얻지 못한 북한이 대남 및 대미 비난 선전활동을 강화한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그림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2012년 이래 북한주민의 대남인식이 가장 적대적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2012년 이후 남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인식은 64.6%(2012년)→63.9%(2013년)→55.7%(2014년)→53.3%(2016년)으로, ‘적대대상’ 인식은 15.4%(2012년)→12.8%(2013년)→20.1%(2014년)→16.4%(2015년)→22.6%(2016년)으로 각각 변했다. 2012년 이후 남한을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는 북한주민이 최저치로 감소한 반면, 안보를 위협하는 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최고치로 높아졌다.

<그림 3-1> 북한주민의 대남인식(2008-2016)

(단위: %)



북한주민의 대남인식이 지난 1년 사이에 ‘적대적’으로 변화된 것은 남북관계의 상황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서론에서 설명했듯이 2015년에 남북 간 극적인 ‘8.25합의’가 있었음에도 대북확성기

방송을 둘러싸고 남북갈등이 계속되었으며 북한은 이를 주민들의 대남 경각심을 고취하는데 적극 동원하였다. 북한은 8월 28일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개최하여 남북 간에 무력충돌의 위기가 있었음을 알리고 '자위적 핵억제력' 때문에 이러한 위기를 타개할 수 있었다고 자평하며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활용하여 핵보유를 정당화하고 대남 경계심과 적대인식을 자극하였다.

특히 북한의 지뢰도발로 촉발된 2015년 8월의 긴장 상황과 관련하여 미국과 남한에 대한 적개심을 극도로 고취하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도하였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8월 23일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면서 인민군 입대와 복대를 탄원한 청년이 100만명을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지역별로 황해북도에서 18만여명, 강원도 7만 4170여명, 평안북도 7만 8840명 등"이라고 소개했다.¹¹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서도 남한의 대북확성기 방송과 빼리살포 등에 관한 뉴스를 내보내며 대남 적대인식을 자극하였고, 휴전선 지역의 준전시 상태 선포에 대해 보도하며 청년과 대학생 및 각 계각층의 주민들을 비장한 각오를 내보냈다.¹² 신문에서는 "미제와 박근혜 패당의 무분별한 도발광기를 무자비하게 짓밟개버리자" "도발자들에게 죽음을 주라!"는 원색적 비난 발언을 드러냈다.¹³ 또한 2016년 1월에 들어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하였고 수중발사탄도미사일(SLBM) 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 등을 연거푸 감행함으로써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 데서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6년 2월 개성공단

11] 연합뉴스, 2015년 8월 24일

12] 조선중앙TV, 2015년 8월 23일, 8월 24일

13] 민주조선, 2015년 8월 24일

폐쇄 결정은 강력한 대북제재를 실행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북한은 이에 대한 대남비난을 강화하였다.

한편, 2016년 상반기에 전개되었던 대립적 남북관계도 북한주민의 대남 적대인식을 강화하는 데 일조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2016년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대부분 2015년에 북한을 탈출했으므로 2016년 사건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겠지만, 탈북 이후 남한에서 교육을 받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건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북한은 중국 내 식당종업원 집단탈출 사건(2016년 4월 7일)을 남한정부의 '납치'로 규정하고 미국 CNN 방송을 동원하여 "딸들을 돌려 달라"고 호소하며 남한정부 규탄과 비난 공세를 전개하는가 하면, "지금도 내 자매가 남조선에서 굶주림으로 의식 불명인 것을 생각하면 잠을 못 이룰 지경이다...남조선 괴뢰 범죄자들을 찢어버리고 싶다"고 말하는 가족의 인터뷰 장면을 내보내며 남한에 대한 분노와 적대감을 고취하였다.¹⁴ 나아가 미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악화로 대남 적대인식이 동반 상승했을 개연성도 존재한다. 올해 조사에서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미국을 지목한 응답이 64.4%→84.1%로 19.7%p 급상승하였는데, 이러한 전반적인 대외환경의 악화가 남한에 대한 적대인식 상승을 견인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그림 3-1>에서 보듯이 북한주민 중 '남한과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한다'는 의식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북한주민들의 대남 적대인식이 남북관계의 경색과 북한당국의 대남비난 선전 활동에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불안정한 남북관계에도 불구하고

14] 연합뉴스, 2015년 5월 12일

하고 북한주민의 53.3%라는 다수가 남한을 협력대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북한주민들이 남한을 통일의 미래로 간주하고 협력대상으로 바라보는 의식이 통일을 촉진한다고 할 때 북한주민의 다수가 남한을 협력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은 통일의 긍정적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대중국 선호도(76.8%)와 함께 비교하면 대남 선호도(15.9%)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통일 환경이 여유롭지만은 않지만, 남한을 적대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협력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사실은 통일을 전망하는데서 긍정적인 부분이다.

대남인식의 세대별 차이는 2016년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성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세대별 추이가 예년과는 다른 흐름을 보였다. 즉 2011-2015년에는 이른바 ‘고난의 행군 세대’로 불리는 40대 연령층이 남한을 협력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고 적대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낮아 합리적 해석이 가능하였다. 즉 ‘고난의 행군’ 시기에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청년시기를 보냈던 사람들은 북한체제에 대한 비판의식이 다른 세대보다 강하며, 남한에 대해서도 적대감이 약하고 협력의식이 강한 집단을 형성하고 있다는 이른바 ‘고난의 행군 세대 가설’을 증명해 주었다.¹⁵ 그러나 2016년에는 40대 연령층의 협력의식이 하락(67.6%→50.0%)하고 적대의식이 상승(10.8%→23.5%)하는 역현상이 나타났다. 기존의 흐름과는 완전히 반대의 현상이 진행된 것이다. 그 결과 대남 협력의식은 50대+(60%) > 30대(53.1%) ≒ 20대(52.9%) > 40대(50.0%)로 40대가 가장 낮고, 적대의식에서는 20대(27.5%) > 40대(23.5%) > 30대(18.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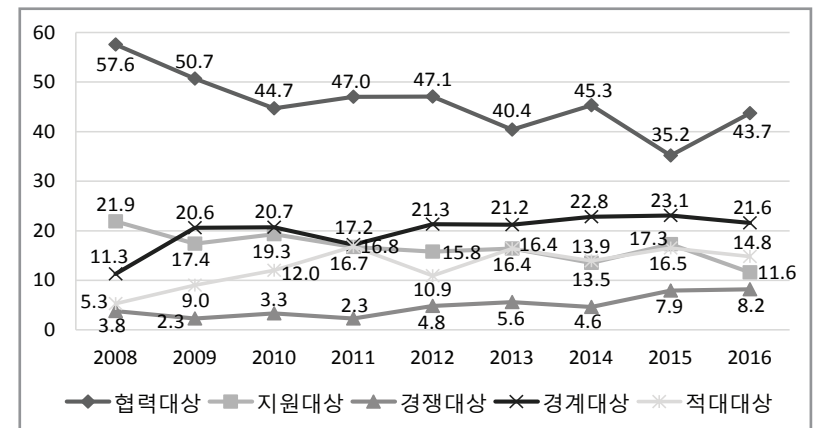
15] 정은미·김병로·박명규·최규빈 저, 『북한주민 통일외식 2015』(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16), pp. 77-78.

50대+(15.0%)로 40대가 20대 다음으로 높아졌다. 40대의 이러한 변화가 일시적으로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인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주민의 대북인식이 적대적으로 변화한 흐름과는 반대로 남한주민의 대북인식은 협력의식이 대폭 상승하였다. <그림 3-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남한주민의 대북인식은 지난 1년 동안 ‘협력대상’ 라는 인식이 35.2%→43.7%로 8.5%p라는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적대대상’ 의식은 16.5%→14.8%로 1.7%p 소폭 감소하였다. 남한주민의 입장에서는 2015년 전쟁 일촉즉발 위기에서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이끌어낸 ‘8.25합의’를 중요한 성과로 인식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8.25합의’ 이후 재개된 남북 회담과 이산가족상봉 등으로 북한에 대한 호의적 태도가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4차 핵실험과 유엔의 대북제재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2016년 5월의 제7차 당대회 등 북한의 최근 변화들이 보도됨으로써 북한에 대한 협력의식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3-2> 남한주민의 대북인식(2008-2016)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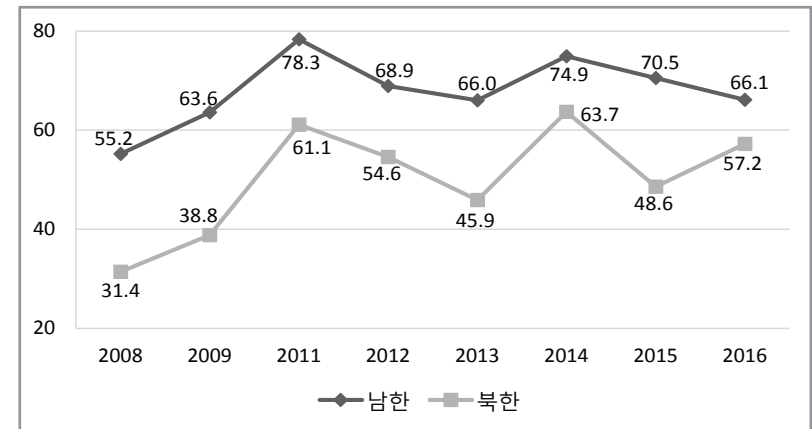
(2) 남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북한주민들은 “남한이 무력으로 북한을 침공할 가능성”에 대해 ‘많이 있다’(29.7%), ‘약간 있다’(27.5%)를 합하여 57.2%가 ‘있다’라고 응답했다. 반면, ‘없다’는 응답은 ‘전혀 없다’(20.3%), ‘별로 없다’(22.5%)를 합하여 42.8%로 ‘있다’는 응답이 14.4%p 많았다. 남한에 의한 무력도발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은 2014년 63.7%에서 2015년에 48.6%로 낮아졌다가 2016년에 다시 57.2%로 높아졌다. 북한주민들의 안보불안이 지난 1년 동안 8.6%p 상승한 것이다. 북한주민의 안보불안의식이 이처럼 고조된 이유는 작년 8월 DMZ 지뢰폭발 이후 대북 확성기방송 재개와 전쟁위기 고조 등으로 남한의 군사적 대응에 대한 두려움이 증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림 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6년 북한주민의 안보불안의식은 한국인의 안보불안의식(북한이 무력으로 남한을 공격할 가능성)과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즉, 한국인의 안보불안의식은 지난 1년 사이 70.7%→66.1%로 소폭 완화된 것과는 반대로 북한주민의 안보불안의식은 오히려 높아졌다. 남한의 경우에는 작년의 극적인 ‘8.25합의’로 군사적 긴장감이 해소되었다고 본 반면, 북한의 경우에는 국제사회는 물론 남한까지도 대북압박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안보불안감이 커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결과 작년까지 대칭적으로 움직이던 남북주민의 안보불안의식이 올해 들어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그림 3-3〉 남북한의 상호무력도발 가능성 인식(2008-2016)

(단위: %)



(3) 북핵위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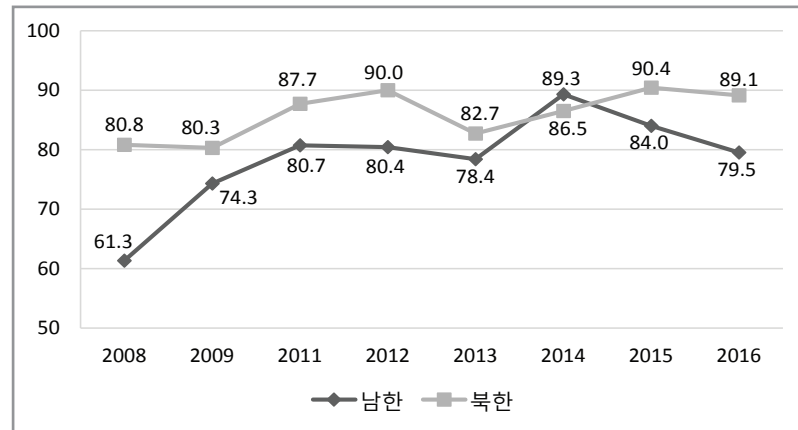
북한주민들은 “북한의 핵무기가 남한에 얼마나 위협적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89.1%가 ‘위협적일 것’이라고 응답했다. 그 중 63.0%는 ‘매우 위협적일 것’이라고 응답했고, 26.1%는 ‘다소 위협적일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작년의 90.4%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북한주민들은 북한 핵무기의 위력에 대해 여전히 높은 평가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대남 및 대미 방어 수단으로서 핵무기를 인식하도록 하는 대주민 학습효과가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북한주민들은 남한주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북한 핵의 위력과 파괴력을 높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즉 북한주민들은 북한의 핵무기가 남한에 매우 위협적인 수단이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남한주민들은 80% 정도가 위협적이라고 여기고 있는

반면, 북한주민들은 90%가 자신들의 핵무기가 위협적 수단이라는 의식이 있다.

〈그림 3-4〉 북핵위협인식(남북한비교)

(단위: %)



3. 대남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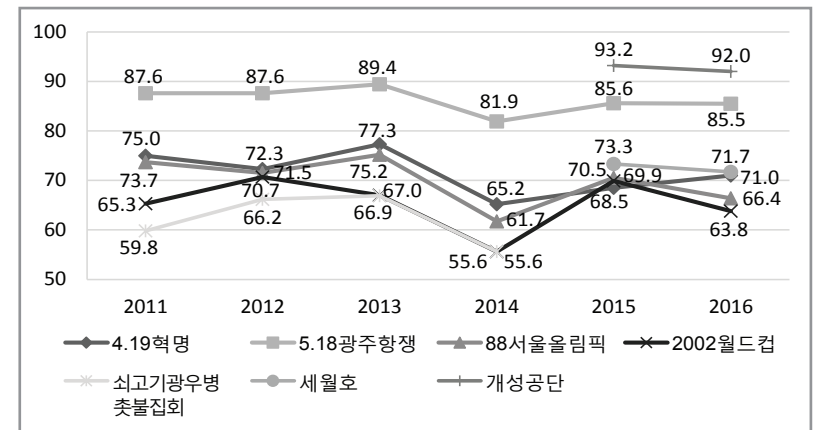
(1) 남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

〈그림 3-5〉는 2011-2016년 시기 북한주민의 남한 인지도를 표시하고 있다. 북한주민들에 대해 시기별로 남한의 대표적인 역사적 사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북한주민들은 작년에 처음으로 제시한 ‘개성공업지구’(92.0%)를 가장 많이 알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1980년 ‘5.18광주항쟁’(85.5%)을, 그 다음으로는 역시 올해 처음으로 제시한 ‘세월호’(71.7%)와 4.19혁명(71.0%)을 많이 인지하고 있었고,

88서울올림픽(66.4%), 2002월드컵(63.8%) 등이 뒤를 이었다. 작년에 처음으로 제시한 개성공업지구는 북한의 거의 모든 주민들이 알고 있을 정도로 인지도가 높았다. 이처럼 북한주민의 인지도가 높았던 개성공단의 전격적 폐쇄가 주민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앞서 분석하였듯이 남한당국의 대북정책을 비난함으로써 북한주민의 대남 적대인식 상승을 견인한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5.18 광주민주화 사건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이유는 북한이 ‘광주항쟁’, ‘5.18정신’ 등의 담론을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환기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림 3-5〉 북한주민의 대남인지도(2011-2016)

(단위: %)



작년과 비교할 때 북한주민의 대남인지도에는 큰 변화가 없다. 작년 평균 76.8%에서 올해는 75.1%로 변화는 미미하다. 남북교류가 단절된 상황이라 지난 1년간 북한주민들이 남한을 새롭게 더 알아갈 기회는 거의 없

있기 때문에 대남인지도에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

(2) 남북 간 차이, 이질성 인식

북한주민들은 남한과 북한 간에 여러 면에서 차이가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2016년의 경우, 선거방식(94.2%), 생활수준(96.4%), 역사인식(94.9%), 언어사용(93.5%), 생활풍습(89.1%), 가치관(90.6%) 등 모든 면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작년의 평균 93.6%와 비교할 때 올해는 93.1%로 거의 변화가 없다. 즉, 모든 면에서 북한주민들은 남북간 차이와 이질성이 매우 크다고 인식하고 있다. 북한주민들의 이러한 심각한 이질성 인식은 2008년 이후 지난 9년 동안 큰 변화 없이 지속되고 있다.

〈표 3-1〉에서 볼 수 있듯이, 남북 간의 이질성은 남한주민들도 마찬가지로 느끼고 있다. 남한주민들의 경우는 선거방식(92.4%), 사회복지(94.9%), 언어사용(81.3%), 생활풍습(77.8%), 가족중시(64.6%) 등으로 북한주민들이 느끼는 이질성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심각한 차이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한 주민들이 모두 서로에 대한 이질감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올해 조사에서 남한주민에 대해서는 생활수준 대신 사회복지, 가치관 대신 가족중심가치를 포함하였다. 남북한 주민 간 차이를 굳이 따져보면 남한주민들은 언어사용과 생활풍습에서 북한주민들보다 동질감을 조금 더 느끼고 있는 정도라 할 수 있다.

〈표 3-1〉 남북간 이질성에 대한 인식(2016)

(단위: %)

	남한	북한
선거방식	92.4	94.2
사회복지(생활수준-북)	94.9	96.4
역사인식	-	94.9
언어사용	81.3	93.5
생활풍습	77.8	89.1
가족중시(가치관-북)	64.6	90.6
평균	82.2	93.1

4. 남한의 대북지원

(1) 대북지원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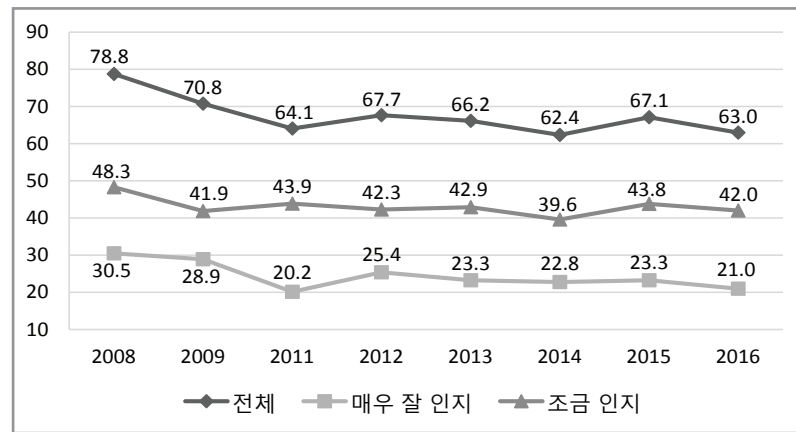
남북관계의 단절로 대북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남한사회 내 갈등요인으로 부각되어 있지 않지만, 대북지원 문제는 오랫동안 남남갈등의 뜨거운 쟁점이었다. 2015년 총 254억 원 지원금액 가운데 정부의 민간단체 지원금 23억 원과 유진벨재단을 비롯한 소수의 민간단체가 114억 원을 지원하였다. 북한주민들은 이러한 대북지원 이슈와 관련하여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를 조사하였다. “귀하는 북한주민들이 남한이 쌀, 비료 등을 북한에 지원한 적이 있다는 것을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잘 알고 있다’(21.0%), ‘조금 알고 있다’(42.0%)를 합하여 총 63.0%가 남한의 대북지원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모르고 있다’는 응답은 ‘별로 잘 알지 못하고 있다’(26.8%),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10.1%)를 포함하여 총 36.9%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주민의 대북지원 인지도는 작년과 비교할 때 67.1%→63.0%로 4.1%p 소폭 감소하였다. 시기별로 보면, 2011년 이후 64.1%→67.7%→66.2%→62.4%→67.1%로 변화해 왔으며 2016년에는 다시 소폭 하락하였다. 반면, 대북지원을 ‘모르고 있다’는 응답은 1년 사이 32.9%→36.9%로 4.0%p 소폭 증가했다. 2008년 이후 대북지원이 급격히 감소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 상황에서도 작년 한 해 동안 132,101명이 북한을 방문하였고 이산가족 972명의 상봉이 성사되었다.¹⁶ 대북지원 인지도가 소폭 하락한 가운데서도 63.0%라는 인지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그나마 이러한 인적, 물적 교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림 3-6〉 대북지원 인지도

(단위: %)



(2) 대북지원 효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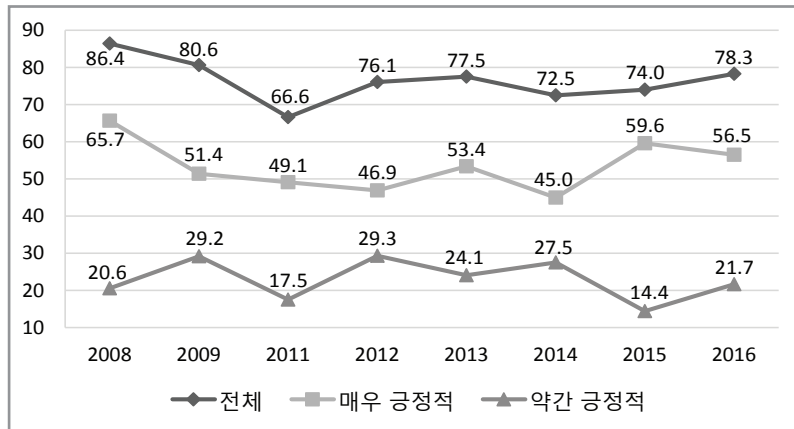
북한주민들에 대해 “귀하는 북한주민들이 남한의 대북지원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묻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응답은 78.3%로 높았으며, 그 중 56.5%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응답하였다. 탈북자의 평가로 볼 때, 북한주민의 절대다수가 남한의 대북지원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북한주민들은 남한의 대북지원이 북한사회를 변화시키고 주민들의 호의적인 대남인식 형성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시기별로 보면 〈그림 3-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난 1년 동안 74.0%→78.3%로 소폭 상승하였다.

북한주민들이 대북지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북한주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전략으로 대북지원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를 명백해 보여준다. 분배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주민들에게 대북지원의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경우도 있겠으나 종합적으로 볼 때 북한주민의 의식을 변화시키는데 있어서 대북지원의 효용성은 적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주민의 마음을 얻는데 대북지원이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통일전략으로 대북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6]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content.do?cmsid=3099> (검색일: 2016년 8월 23일).

〈그림 3-7〉 대북지원 효용성에 대한 평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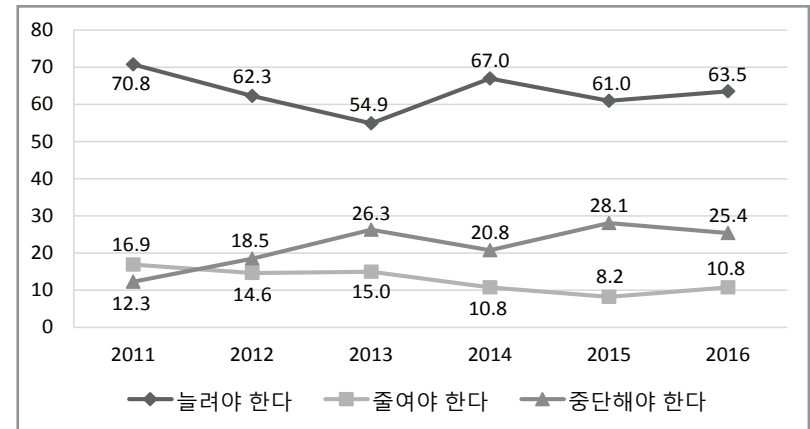


(3) 대북지원 정책

대북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63.5%, ‘줄여야 한다’ 10.8%로 응답한 반면,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은 25.4%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74.3%는 늘리거나 줄이더라도 대북지원을 해야 한다는 데 찬성하는 쪽이라면, 25.4%는 대북지원을 반대하는 의견이라 할 수 있다. 북한주민의 의견을 기준으로 보면, 대북지원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약 7 대 3 정도로 나뉜다. 작년과 비교하면 ‘늘려야 한다’ 61.0%→63.5%, ‘중단해야 한다’ 28.1%→25.4%로 큰 변화는 없으며, 북한주민의 경제생활이 더 어려워짐으로써 남한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8〉 대북지원 정책에 대한 태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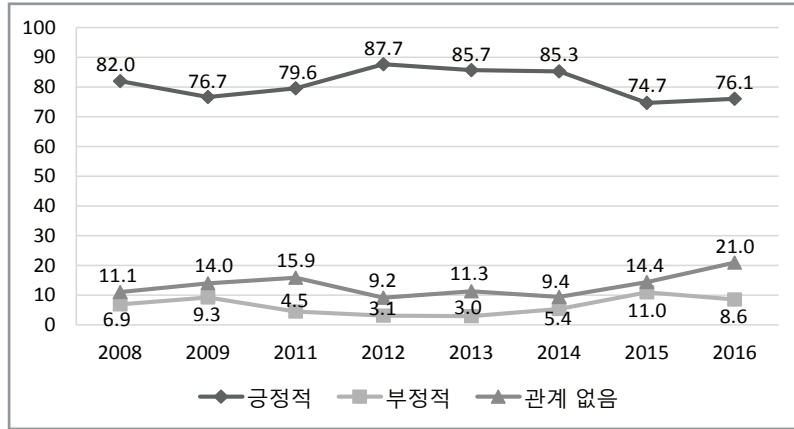


(4) 경제투자 인식

대북지원과 비슷한 맥락에서 남한의 대북 경제투자자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귀하는 앞으로 북한에 대한 남한의 경제투자를 북한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긍정적’(48.6%)와 ‘약간 긍정적’(27.5%)를 포함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76.1%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다’는 의견과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다’는 각각 4.3%로 매우 적었고 ‘부정적으로도, 긍정적으로도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는 의견은 15.2%였다. 북한주민들은 남한의 경제투자를 대체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평가되었다. 대북 경제투자자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그림 3-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작년과 비교하여 큰 변화는 없다.

〈그림 3-9〉 대북경제 투자에 대한 인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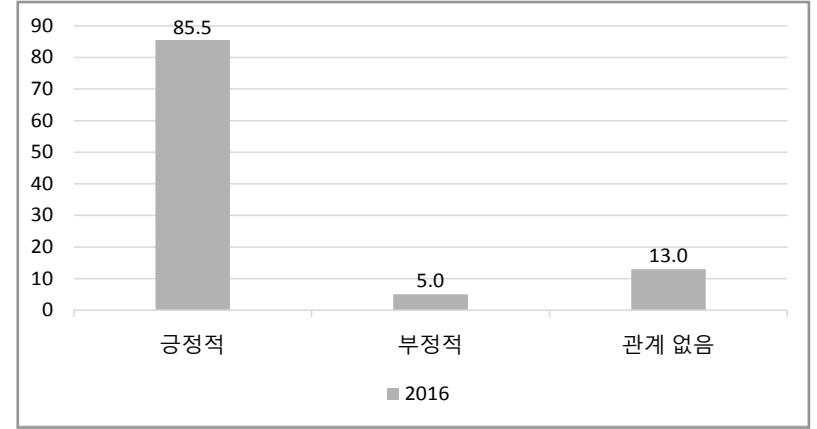


(5) 개성공단에 대한 인식

개성공업지구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 63.8%, ‘약간 긍정적’ 21.7%를 합하여 총 85.5%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은 5.0%에 불과하였으며 ‘관계없다’는 응답은 13.0%였다. 개성공단에 대해 북한주민의 다수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개성공단 재가동을 포함한 공단정책을 재론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3-10〉 개성공단에 대한 인식

(단위: %)



5. 소결

탈북자들을 통해 본 2016년 북한주민의 대남인식은 예년에 비해 적극적인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 ‘남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불안감도 8.6%p 높아졌다. ‘협력대상’ 인식은 지난 1년 사이에 9.0% 감소한 반면, ‘적대대상’ 인식은 6.2%p 증가했다. 이는 지난 1년 동안 자신들의 핵·인권·평화 정책에서 성과를 얻지 못한 북한이 대남 및 대미 비난 선전 활동을 강화한데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최근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북한주민의 대남인식은 긍정적 의식이 더 넓게 형성되어 있다. ‘남한과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한다’는 의식은 53.3%로 높은 편이며, ‘적’이라는 의식(22.6%)보다 두 배 이상 높다. 물론 이러한 협력의식이 76.8%에 이르는 중국 선호

도와 비교하면 아직 낮은 수치다. 그런데도 남한에 대해 적대인식보다 협력의식이 더 넓게 형성되어 있다는 점은 다행이다. 남북 간 상호 차이와 이질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고 군사적 대립과 긴장이 여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남한을 적으로 보지 않고 서로 협력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이러한 협력의식이 넓게 형성되어 있는 이유는 같은 민족이라는 의식과 함께 남한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개성공단을 비롯한 대북지원에 대해 북한주민들이 그 효용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일준비를 위해 경제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고난의 행군 세대 가설’이 2016년도에 작동하지 않고 기존의 흐름과는 다른 현상이 나타났는데, 40대 연령층의 대남인식 변화에 대해 관심을 가져보아야 할 것이다. 20대 젊은층은 남한에 대한 적대인식을 가장 강하게 갖고 있다는 점은 남한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통일을 위해서는 남한에 대한 호감을 높여야 하며, 이런 점에서 20대 젊은층과 ‘고난의 행군 세대’의 호의적 대남인식을 증진하기 위한 경제정책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제4장 **북한실태
인식**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제4장 북한실태인식

1. 서론

2016년은 김정은 정권 5년 차를 맞는 해다.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2012년 이후 지난 4년 동안 북한의 경제와 정치사회는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집권 5년 차를 맞는 북한은 어떤 새로운 흐름이 형성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016년 조사 대상자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3월 사이에 북한에 거주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므로 2015년 북한의 상황을 잘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2015년은 분단·해방 70년을 맞는 의미 있는 해이며 10월 10일 북한의 당창건 70주년을 맞아 중국의 류원산 정치국 상무위원을 초청하여 소원했던 북·중 유대를 강화했던 시기다. 그러나 12월 모란봉 악단의 중국공연이 무산됨으로써 양국 간 갈등이 다시 고조되었고 2016년 1월 6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함으로써 중국과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다.

내부적으로는 당창건 70주년을 맞아 중국과의 관계가 복원되는 듯한 분위기에 힘입어 2016년 5월 당 제7차대회 개최를 선언하였고, 이를 준비하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하였다. 2015년에는 청년강국을 유난히 강조하였고 청년들의 활약상을 담은 특집 프로그램도 방송되었다. 백두산청년영웅발전소 건설에 참가한 청년돌격대원들의 내용을 담은 방송으로 당창건

70주년을 맞는 해에 청년동원에 심혈을 기울였다. 8월에는 휴전선 지뢰폭발 사건을 계기로 전선지대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하였고 조성된 위험천만한 상황에 대처하여 최고사령관의 명령 하달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보도하였다. 언론매체를 동원하여 전쟁분위기를 고조하고 김책공업종합대학 등 청년동맹 쉼기대회도 보도하며 주민들을 동원하였다. 연말에는 청년들의 자원입대에 대한 김정은의 감사문을 보도하고 주민들에게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에서 자랑스런 노력의 선물과 함께 영웅적인 헌신과 눈부신 기적창조의 기록을 보여드리자”면서 선전선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위기를 체제결속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미국과 남한에 대한 비난을 강화하였다. 중앙계급교양관 관람 교육도 전개하며 미국에 대한 경계와 적대도 늦추지 않으며, 조선중앙TV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 인터뷰 장면을 지속해서 내보내고 대남 적대심을 고취하였다. 북한 주민들의 정치사회 의식변화에는 대남정책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조사대상자들 중 2016년에 북한에 거주한 유경험자는 3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탈북 이후 제3국 체류 및 한국 입국 이후에도 2016년의 변화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16년에는 북한의 4차 핵실험(1월6일)과 ‘인공위성’ 로켓발사(2월7일), 한국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2월10일), 북한의 개성공단 자산동결 및 인원추방(2월11일)으로 남북관계가 극도로 경색되었고,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270이 발효(3월2일)됨으로써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가 강도 높게 진행되었다. 미국은 금융제재를 포함한 독자적인 대북제재법안 H.R.757을 상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대통령의 서명(2월18일)을 받아 제재를 적극 실행하였다.

한미연합군사훈련에서는 한미공동 상륙 및 내륙진격 작전, 김정은 참수작전, 전략무기 배치 등 위협적인 군사작전을 공개하며 북한을 압박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인민군최고사령부 중대성명(2016년 2월23일)을 통해 “1차 타격 대상은 청와대와 반동통치기관들, 2차 타격 대상은 아태지역 미군기지 및 미국본토”라는 사실을 공개하며 미국을 자극하였다. 중국 내 북한식당 종업원 13명이 탈북(4월7일)과 유럽 내 북한 노동당 자금 총책의 잠적(6월), 영국주재 북한 태영호 공사의 망명(8월17일) 등 핵심계층의 탈북이 잇따라 발생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효과와 북한체제의 균열이나 붕괴를 전망하는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과 환경을 유념하면서 조사 자료를 분석해야 할 것이다.

2. 경제활동과 생활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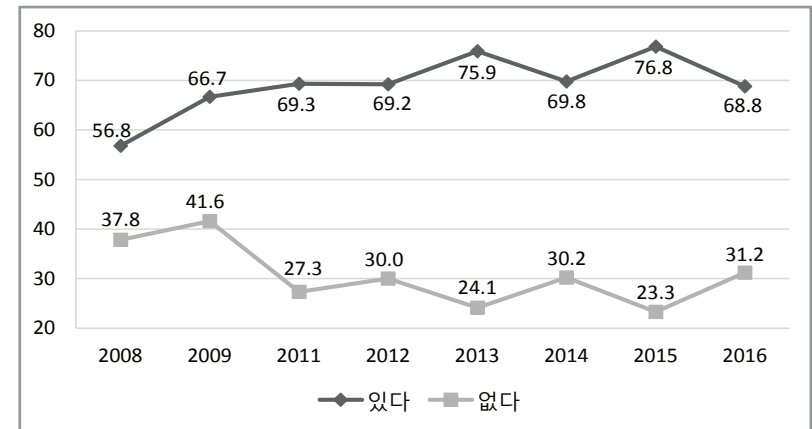
(1) 사적 경제활동

북한경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적 경제활동이 어느 정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조사대상자들에게 장사의 경험이 있는가를 물었다. 그 결과 장사의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68.8%로 조사되었다. 탈북자의 경험을 토대로 볼 때 북한주민 10명 중 7명이 사적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작년과 비교하면 사적 경제에 참여하나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76.3%→68.8%로 감소하였다. 이 결과를 액면 그대로 해석하면 장사에 대한 북한당국의 통제가 강화됨으로써 일시적으로 나타난 효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래의 <그림 4-1>에서 볼 수 있듯이,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69.2%

(2012년)→75.9%(2013년)→69.8%(2014년)→76.3%(2015년)→68.8%(2016년)로 등락을 반복하는 추세로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최근 5년 간 주민들의 사적 경제활동은 약 70-75% 정도로 볼 수 있다.

<그림 4-1> 장사경험 유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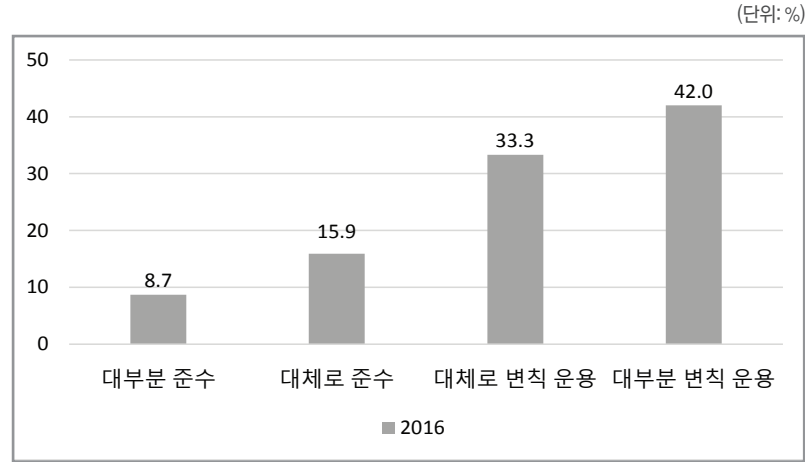


(2) 직장의 생산규율

<그림 4-2>는 직장에서 생산규율이 대체로 지켜지지 않고 매우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생산규율이 지켜지고 있다는 응답은 약 24.6%인데 비해,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응답은 75.6%를 기록하여 직장의 생산 활동이 거의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2013년에 40.6%로 높아졌던 직장 내 생산규율은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32.2%, 33.6%로 낮아졌고 2016년에 다시 24.6%로 내려앉아 변칙운영의 비율이 75.3%로 조사를 시작한 2008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김정은 정권이 집권한 이후 단속과 통제의 강화로 직장 내의 생산

활동이 단기적으로 개선되었지만, 내부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고갈되고 대외 경제 환경도 고립된 상황에서 기업의 정상적인 활동은 더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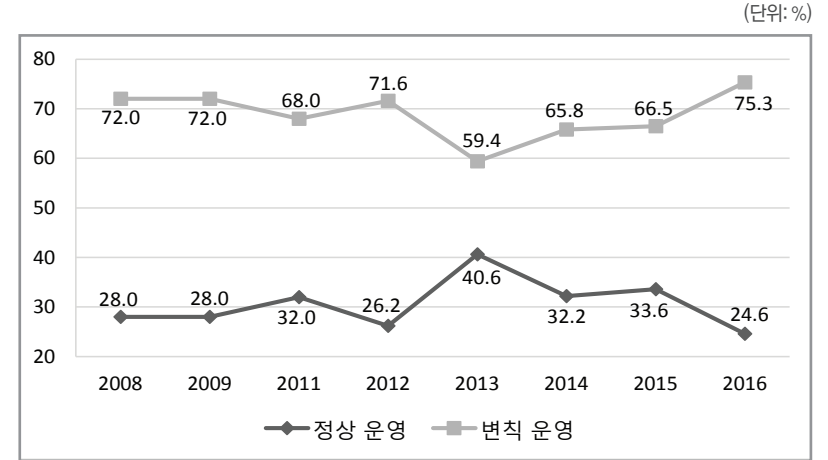
〈그림 4-2〉 직장 내 생산규율(2016)



김정은 정권 출범한 이후 지난 5년간을 살펴보면, 〈그림 4-3〉에서 볼 수 있듯이, 직장 내 생산규율은 정상운영이 감소하고 변칙운영이 높아지는 추세다.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2012년에 정상운영이 40%대로 높아졌으나 그 이후 줄곧 낮아져 2016년에는 24.6%까지 내려앉았다. 직장 내에서 변칙운영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직장 안에서 정상적인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8.3작업반과 같이 직장 밖에서 할 수 있는 사적 경제활동이 많아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68.8%라는 많은 사람들이 사적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직장 생산 활동의 75.6%가 직장 밖

에서 변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응답은 매우 자연스러운 결과다.

〈그림 4-3〉 직장 내 생산규율(2008-2016)



(3) 공식소득과 실제소득

〈표 4-1〉에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2016년 조사대상인 탈북자들 가운데 공식 소득이 '전혀 없다'는 응답은 58.0%로 절반 이상이나 된다. 북한주민의 공식 월급은 3천 원 내지 4천 원으로 '천 원 이하' 5.1%의 사람들도 공식적으로 받는 월급으로는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탈북자의 경험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2016년의 경우, 북한주민의 63.9%가 정상적인 월급을 받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공식 월급체계가 김정일 정권이 출범한 2012년 이후에도 심각하게 와해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나머지 36.1%는 직장에서 지급하는 공식 월급을 천 원 이상 받은 사람들로 북한 경제 생활의 현실이 어떠한가를 짐작할 수 있다. '5천 원 이하'라고 응답한 사람은 26.8%, '1만 원 이하' 2.9%, '10만 원 이하' 3.6%, '100만 원 이하'와 '100만 원 초과'는 각각 2.2%, 3.6% 등이다. 물론 공식 월급만으로 북한주민이 실제 한 달 생활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생활비를 정확히 추정할 수 없지만, 대략 30-50만 원으로 잡는다면 다수가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렇지만 직장에서 공식월급으로 100만 원 정도를 받았다는 응답자가 있는 것을 보면, 직장에 따라 월급의 편차가 실제로 크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4-1〉 공식 소득수준(2014-2016)

(단위: 명(%))

소득수준	2014	2015	2016
0원	91(61.1)	80(54.8)	80(58.0)
천 원 이하	13(8.7)	7(4.8)	7(5.1)
5천 원 이하	39(26.2)	52(35.6)	37(26.8)
1만 원 이하	2(1.3)	1(0.7)	4(2.9)
10만 원 이하	3(2.0)	4(2.7)	5(3.6)
100만 원 이하	0(0.0)	1(0.7)	3(2.2)
100만 원 초과	1(0.7)	1(0.7)	5(3.6)
합계	149(100.0)	146(100.0)	138(100.0)

공식 소득수준을 작년과 비교하면 올해 54.8%→58.1%로 공식소득이 '전혀 없다'는 응답자가 소폭 증가했다. 즉, 주민들의 공식 소득수준이 약

간 하락한 것이다. 지난 4년간의 변화를 비교해 보면, 공식소득이 '전혀 없다'는 사람은 2013년 51.9%, 2014년 61.1%로 2015년의 54.8%, 2016년의 58.0%로 2015년 조사에서 2014년에 비해 반짝 상승했던 주민들의 소득수준이 2016년 조사에서 2014년 수준으로 다시 내려앉았다.

공식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장사나 부업을 통해 생계에 필요한 수입을 확보한다. 그 결과 공식소득이 전혀 없다는 사람은 58.1%였으나, 장사나 부업을 통해 소득을 확보함으로써 실제 수입이 '없다'는 사람은 23.2%로 줄어든다. 그러나 아래의 〈표 4-2〉에서 볼 수 있듯이, 장사와 부업을 통해서도 돈을 전혀 벌지 못하는 23.2%는 생존할 수 없는 극빈층으로 여전히 존재한다. 또한,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10만 원 이하'도 10.9%가 된다. 따라서 소득이 전혀 없거나 10만 원 이하인 사람을 합하면 34.1%의 주민들이 빈곤층으로 간주된다. 반면, 10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사람들도 각각 23.9%, 15.2%로 총 39.1%는 중산층 정도의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적 경제활동을 통해 고소득을 올리는 사람들도 많음을 알 수 있다.

작년과 비교하면 주민들의 소득수준은 하락하였다. 최근 3년간의 추이를 보면 무소득자가 22.9%→16.4%→23.2%로 작년에 호전되었던 주민의 소득수준이 올해 다시 2014년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그러나 '100만 원 이하'의 경우, 2014년으로 회귀하지 않고 11.8%→23.9%로 높아졌다. 즉, 작년에 비해서는 실질 소득수준이 떨어졌으나 고소득자의 감소폭은 그보다 크지 않음으로 실질 소득수준의 감소를 억제하였다.

〈표 4-2〉 실제 소득수준(2014-2016)

(단위: 명(%))

소득수준	2014	2015	2016
무응답	2(1.4)	-	-
0원	33(22.9)	24(16.4)	32(23.2)
천원 이하	4(2.8)	9(6.2)	2(1.4)
5천원 이하	2(1.4)		1(0.7)
1만원 이하	2(1.4)		1(0.7)
10만원 이하	26(18.1)		11(8.0)
50만원 이하	43(29.9)	43(29.4)	37(26.8)
100만원 이하	17(11.8)	36(24.7)	33(23.9)
100만원 초과	15(10.4)	34(23.3)	21(15.2)
합계	144(100.0)	146(100.0)	138(100.0)

탈북자의 생활경험을 기준으로 볼 때, 2016년 주민들의 공식소득 및 실질소득수준은 소폭 하락하였고, 극빈층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공식소득이 없거나 1천 원 이하가 69.8%→59.6%→63.1%로 소폭 증가했고, 사적 경제활동을 포함하여서도 실제소득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도 22.9%→16.4%→23.2%로 다시 증가하였다. 김정은 정권 이후 북한의 경제정책이 단기적 효과를 가져왔으나, 지속적 효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가 시작된 이후 4월부터 중국의 동참으로 북중 무역이 4-5월 감소하였다. 그러나 6월 북중무역이 4.9%로 증가하였고 석탄수출과 원유공급이 증가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북한 리수용 외무상과 중국 시진핑 주석의 회담(6월1일)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리수용 외

무상은 시진핑 주석에게 원유공급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¹⁷ 그러나 7월에는 다시 북중무역이 감소하였다.

3. 사회통제

(1) 지리적 이동

북한은 시, 군, 구역 단위로 지리적 이동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 유동성은 북한체제의 변화를 가능하는 유력한 기준이 된다.¹⁸ 주민들의 지리적 이동이 제한되어 있는 북한사회에서 주민 유동성이 증대하고 있다는 것은 북한의 폐쇄체제가 그만큼 변화하고 있다는 단초가 될 것이다. 아래의 〈그림 4-4〉는 “다른 지역(다른 군, 시, 도, 외국)에 가보셨습니까?”라는 질문에 ‘가보았다’는 응답이 ‘자주 가보았다’ 25.4%, ‘가끔 가보았다’ 42.8%를 포함하여 총 68.1%가 타지역을 이동한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통행증이 없이는 지역 간 이동이 허용되어 있지 않은 북한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68%대를 기록한 것은 1995년 식량난 이전과 비교하면 현저히 달라진 변화다. 한 민간단체의 1998년 조사에서 식량을 구하러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9%에 지나지 않았으며 실제 인구 이동률도 3.9%로 매우 낮았다.¹⁹ 20년 전의 상

17] “中, 원유공급 등 對北 교역 증가세”, 『파이낸셜뉴스』(온라인), 2016년 8월 14일; <http://www.fnnews.com/news/201608141724271210>(검색일: 2016.8.22.)

18] 김병로, 『북한의 지역자립체제』(서울: 통일연구원,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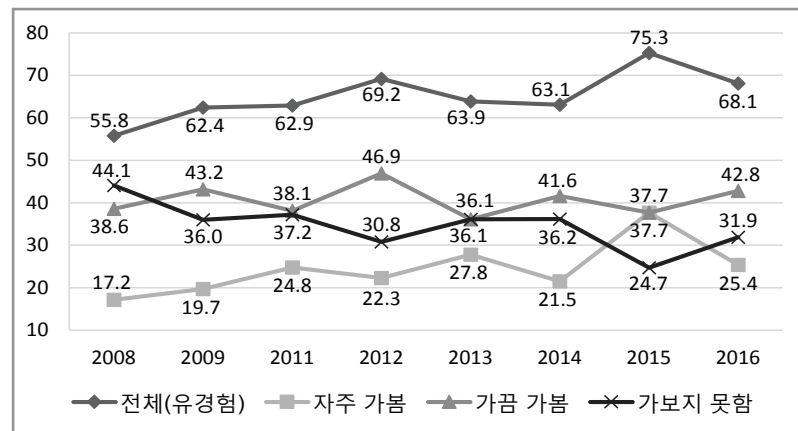
19]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 『북한 식량난의 실태보고서』(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 1998), p. 17.

황과 비교하면 북한의 주민유동성은 매우 높아진 것이다.

그러나 작년과만 비교하면, 지난 1년 동안 75.3%→68.1%로 7.2%p 감소하였다. 그 가운데 '자주 가보았다'는 사람들이 37.7%→25.4%로 12.3%p라는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북한주민의 지리적 이동이 작년과 비교하여 7.2%p 하락하고 특히 다른 지역을 자주 가보았다는 사람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북한주민의 이동에 대한 통제가 지난 1년 사이에 매우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2015년 들어 10월에 개최될 것으로 예고한 당창건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대대적인 노력동원이 진행되었던 탓에 사적 경제활동을 위한 주민들의 타지역 이동의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바로 뒤이은 10월 30일에는 이듬해인 2016년 5월 초에 당 제7차대회 개최를 선언하고 '70일전투'를 전개함으로써 지리적 이동의 기회가 감소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4-4〉 타지역 이동경험(2008-2016)

(단위: %)



(2) 탈북 후 북한소식 경험

탈북 후 북한 내 가족들의 소식을 접하는 경우는 138명의 조사대상자 중 106명으로 76.8%라는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4-3〉 탈북 후 북한소식 경험의 정도(2008-2016)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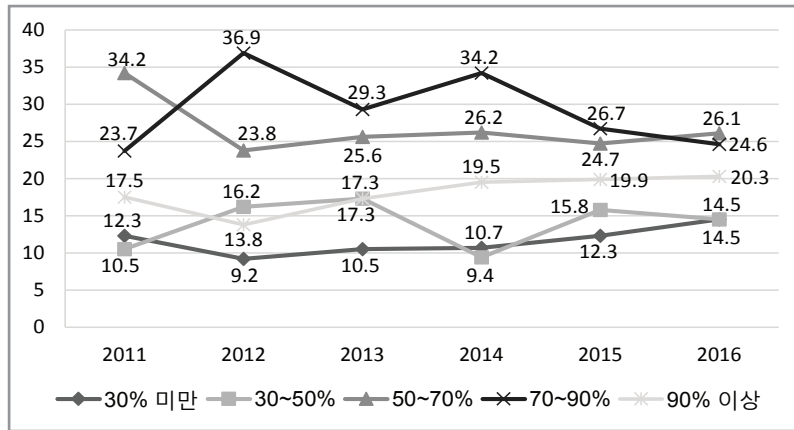
	2008	2009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다	45 (15.2)	46 (12.4)	19 (16.7)	27 (20.8)	30 (22.6)	37 (24.8)	28 (19.2)	36 (26.1)
조금 접할 수 있다	156 (52.7)	183 (49.5)	62 (54.4)	76 (58.5)	75 (56.4)	86 (57.7)	80 (54.8)	70 (50.7)
거의 접할 수 없다	86 (29.1)	122 (33.0)	30 (26.3)	27 (20.8)	28 (21.1)	26 (17.4)	37 (25.3)	32 (23.2)
무응답	9 (3.0)	19 (5.1)	3 (2.6)	-	-	-	1 (0.7)	-
합계	296 (100.0)	370 (100.0)	114 (100.0)	130 (100.0)	133 (100.0)	149 (100.0)	146 (100.0)	138 (100.0)

(3) 생활총화 출석

북한의 사회통제 실태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지표 중 하나는 주간 생활총화의 참가실태일 것이다. 〈그림 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간 생활총화 참가율이 50-70%라는 응답이 26.1%로 가장 많고, 70-90%라는 응답이 24.6%로 그다음으로 많았다. 90%라는 응답은 20.3%로 세 번째로 많았다. 평균 70-80%의 참가율을 보였다. 작년과 비교하면 큰 변화 없이 생활총화 참석률이 유지되었다. 특히 90% 이상 참석한다는 응답이 19.9%→20.3%로 거의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 것으로 볼 때, 지난 1년 동안 사회질서와 통제가 이완되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림 4-5〉 생활총화 출석률(2011-2016)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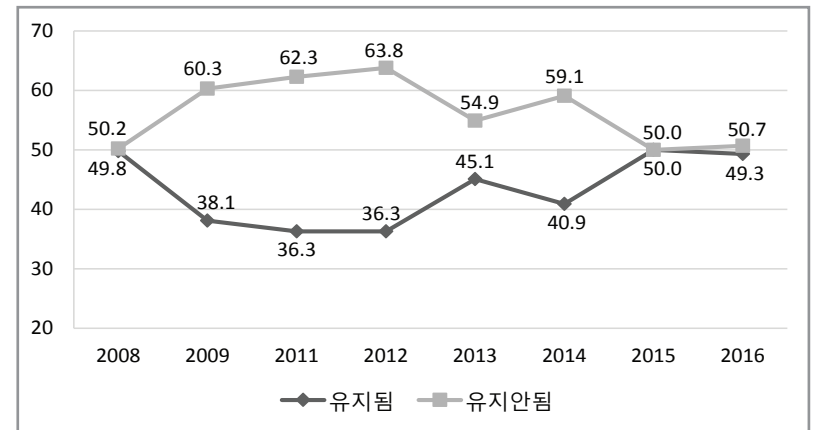


(4) 사회통제수준

“북한에 거주할 당시 공안기관에 의한 사회통제는 정도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잘 유지되고 있다’는 응답과 ‘잘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1대 49로 팽팽하게 맞섰다. 작년과 비교해 보면, ‘사회통제가 잘 유지되고 있다’는 의견이 50.0%→49.3%로 통제가 이완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4-6〉에서 볼 수 있듯이 2012년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사회질서와 통제가 상승하였으며 전반적으로 강화되는 추세라 할 수 있다. 경제난과 주민생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각종 통제기구의 작동과 주민설득을 통해 사회질서와 통제는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4-6〉 사회통제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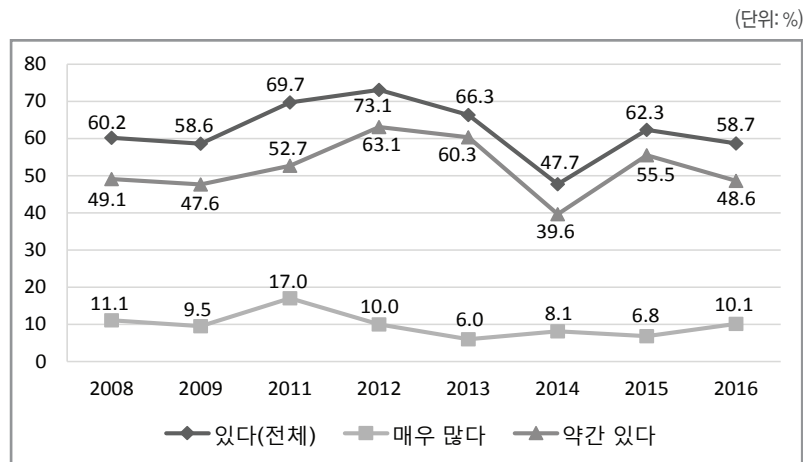
(단위: %)



(5) 정치적 비판행위

“북한에 거주할 당시 북한에 지도자나 정부에 대한 비판 행위(낙서, 삐라 등)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많다’(10.1%)와 ‘약간 있다’(48.6%)를 합하여 ‘있다’는 의견이 58.7%로 많았다. 그러나 작년과 비교하면 62.3%→58.7%로 소폭(3.6%p) 감소하였다. 〈그림 4-7〉에서 볼 수 있듯이, 2014년에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2015년에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한 후 올해 소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김정은 정권 이후 지난 5년간의 추이를 보면 2012년 73.1%에서 2016년 58.1%로 감소하여, 2014년을 제외하더라도 지도자나 정부에 대한 비판 행위가 대체로 감소하는 흐름임을 드러낸다.

〈그림 4-7〉 정부비판행위(낙서, 삐라 등)(2008-2016)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북한 지도자나 정부에 대한 비판 행위가 ‘매우 많다’는 응답은 10.1%로 매우 적고, 대체로 ‘약간 있다’ (48.6%)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약간 있다’는 소극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매우 많다’이며 대정부 비판 낙서나 삐라를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10% 정도로 그리 많지 않다. 물론 당과 지도자에 대한 비판행위가 ‘유일영도체계 10대원칙’에 의해 엄격하게 단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현상이 ‘매우 많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10.1%가 된다는 사실은 북한사회 안에 정권과 체제에 대한 불만이 결코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

4. 문화외식

(1) 한류 접촉 정제

〈그림 4-8〉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한류’의 확산과 정보유통은 높은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 “북한에 거주할 당시 남한 방송, 영화, 드라마, 노래(음악)을 접해본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접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2016년에 88.4%에 달하였다. 즉, 북한주민의 88.4%가 최소한 한두 번 이상 드라마나 노래 등 남한의 문화를 접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중에서 ‘한두 번’ 접해본 사람은 36.2%, ‘자주 접해 보았다’는 사람은 52.2%로, 다수가 남한의 문화를 빈번하게 접해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류를 접해본 경험 있는 88%의 응답자에 대해 남한의 방송, 영화, 드라마, 노래(음악)을 접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를 물었다. 놀랍게도 ‘매우 친숙했다’는 응답이 58.7%로 많았고, ‘약간 친숙했다’ 24.6%, ‘별로 친숙하지 않았다’ 4.3%, ‘전혀 친숙하지 않았다’는 1.4%로 매우 적었다. 남한의 방송이나 영화, 드라마, 음악이 북한사람들에게 어색하지 않고 매우 친숙하게 전달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에 대해 과도한 해석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²⁰ ‘한류’의 접촉빈도가 이처럼 높게 나오는 이유는 탈북자들이 주로 함경북도 양강도 등 북중접경지대의 거주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탈북자가 많지 않고 중국과의 접촉이 조중접경지대만큼 빈번하지 않은 내륙지역 주민들의 경우에는 한류접촉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또 탈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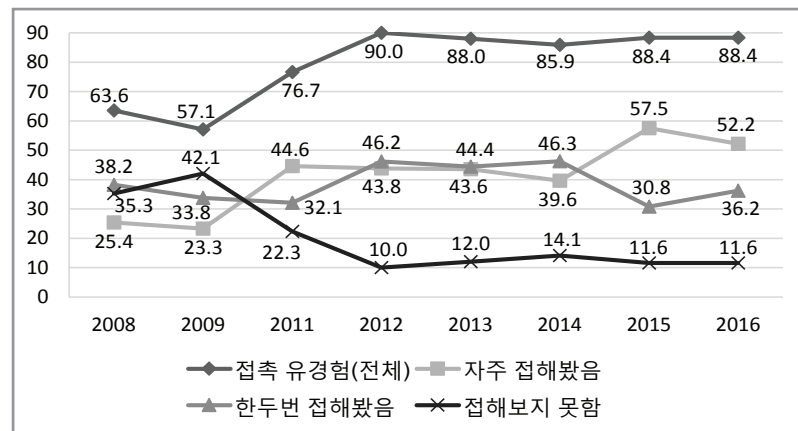
20] 현인애(NK지식인연대 부대표, 통일연구원 객원연구원), 김운애(탈북민,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연구원) 구두토론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학술회의, 2016년 8월 24일).

자들의 북한에 대한 평가가 북한내부에서부터 제3국을 거쳐 한국으로 오는 과정에서 상당히 달라질 수 있고 실제로 그러한 경향이 발견되므로 수집한 자료를 신중히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출신들의 이러한 의견을 감안한다면, 북한주민의 한류접촉 경험을 '한두 번 접촉'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자주 접해봤다'라는 응답을 기준으로 평가의 준거로 삼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작년과 비교하면 <그림 4-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주민의 한류접촉은 88.4%→88.4%로 정체되었으며, '자주 접해봤다'는 의견은 57.5%→52.2%로 오히려 감소하였다. 북한주민들의 한류접촉 경험이 줄어든 것은 지난 1년 동안 북한의 사회질서와 통제가 강화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주민들의 지리적 이동이 줄어들고 사회통제가 유지됨으로써 주민들 사이에 유통되던 한류문화가 위축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4-8> 한류접촉경험(2008-2016)

(단위: %)



북한의 정보유통과 관련하여 조사대상자들이 탈북 후 북한소식을 어느 정도 접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26.1%는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고 응답했고, 50.7%는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고 응답하여 약 76.8%의 응답자들이 탈북 후에도 북한소식을 접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23.2%는 '거의 접할 수 없었다'고 답하였다. 작년과 비교하면 74.0%→76.8%로 큰 변화는 없다. 즉, 북한이 조중국경지대의 통제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북자들은 중국 조선족 친인척들의 방북이나 휴대전화 등을 통해 북한 내의 소식을 듣는 사람들의 비율은 큰 변화가 없다.

(2) 한류 및 외부소식 접촉경로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 음악을 어떤 경로를 통해 접하였는가를 판단하는 한류 접촉경로에 대해 '친척, 이웃, 친구 등 주변 사람들에게 구하여 접했다'는 응답이 60.9%로 가장 많았으며, '주변사람들과 함께 접했다'는 응답이 15.9%, '시장에서 직접 구하여 접했다'는 응답은 5.8%, '외국에 나갔을 때 접했다'는 응답이 6.5%로 적었다.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 음악이 아직은 불법이어서 시장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보다는 친구나 친척 등 믿을만한 주변사람들에게 구입하여 복제하는 방식으로 한류문화를 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외부 소식을 주로 어디서 들었습니까?"라는 질문에 '친척, 이웃, 친구 등 주변사람'이라는 응답이 49.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남한을 포함한 다른 나라의 매체' 20.3%, '강연, 학습' 13.8%, 로동신문 등 북한의 신문 11.6%, 북한의 방송 5.1%로 조사되

었다. 즉, 외부소식의 주요 경로 역시 주변사람을 통해 듣고 있고, 남한에서 보내는 방송이나 통신, 뼈라 등에도 상당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북한의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서 접할 수 있는 외부소식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3) 언론에 대한 신뢰도

응답자들은 북한에서 언론의 보도를 ‘대부분 사실이라고 생각했다’는 응답이 31.2%, ‘일부만 사실이라고 생각했다’는 응답도 31.2%로 많게 나왔으며,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응답은 26.8%로 조사되었다. ‘생각해본 적 없다’는 응답도 10.9%였다.

(4) 개인주의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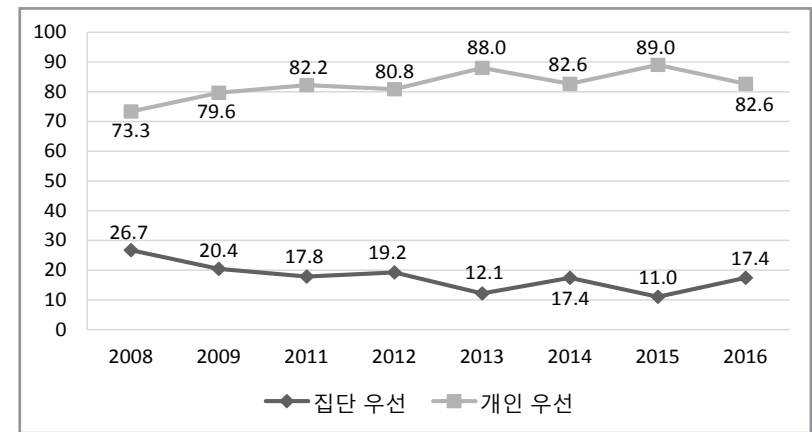
〈그림 4-9〉가 보여주듯이 북한에서 집단주의 대 개인주의의 가치는 개인주의의 지향으로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집단주의가 공식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북한사회에서도 개개인들의 의식 속에서는 개인주의의 가치를 더 중시하는 분위가 자리 잡고 있다. 2015년 조사에서도 개인주의의 가치가 우선한다는 사람들이 82.6%, 집단주의의 가치가 우선한다는 사람들이 17.4%로, 예년의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사회질서와 통제가 강화되고 있으나, 개인의 의식과 가치관은 거의 변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작년과 비교하면 개인주의의 가치는 89.0%→82.6%로 약화된 반면, 집단주의의 가치는 11.7%→17.4%로 강화되었다. 주민통제가 강화된 데 따른

부수적 효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림 4-9〉에서 볼 수 있듯이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의 추이를 보면 개인주의의 가치가 80% 수준에서, 집단주의의 가치는 20%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는 80 대 20의 비중으로 개인주의가 압도적인 우세를 보인다.

〈그림 4-9〉 개인/집단 우선 가치(2008-2016)

(단위: %)



북한은 오랫동안 ‘집단주의’를 사회주의 도덕의 원칙으로 강조해 왔다. 1992년 헌법 제82조는 “집단주의는 사회주의 사회생활의 기초이다. 국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 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고난의 행군’을 마친 1998년 개정헌법에서는 이 조항을 수정하였다. “집단주의는 사회주의 사회생활의 기초이다”라는 문장을 삭제하고 대신 “국민은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수호하여야 한다”라는 문구로 대체하였다. 뒷문장은 그대로 살려두었으나, 집단주의가 사회주의 사회생활의

기초라는 원칙을 삭제한 것이다. 개인주의가 8 대 2로 집단주의 가치를 압도하고 있는 현실을 간과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한다”는 원칙을 헌법(63조)에 규정하고 있다. 북한이 제도적, 조직적 수준에서 집단주의가 현실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주민들의 일상에서도 무의식적으로 내면화한 관행들이 여전히 존재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개인의 내면이나 정서와는 상당한 괴리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정치사상의식

(1) 주체사상에 대한 자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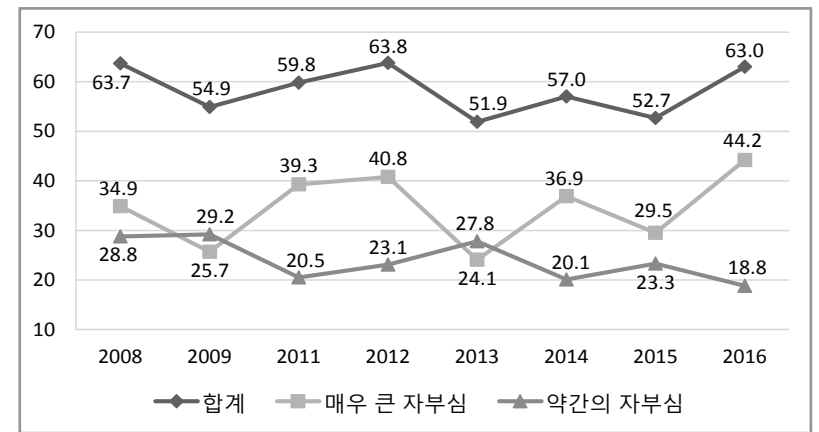
북한주민의 정치사회의식을 측정하기 위해 ‘주체사상에 대한 자부심’을 물어보았다. <그림 4-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응답자들은 북한주민들 63.0%가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답하였다. ‘매우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응답이 44.2%, ‘약간의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응답이 18.8%를 차지하였다. 반면, ‘별로 없다’는 응답은 26.1%, ‘전혀 없다’는 10.9%로 37.0%가 자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작년과 비교하면 52.7%→63.0%로 10.3%p가 상승하였다. 지난 1년 사이에 이처럼 큰 폭으로 주민들의 주체사상 자부심이 상승한 이유는 일차적으로 북한 내부에서 진행된 당창건 70주년 기념과 같은 행사를 계기로 대주민 선전선동과 학습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지난 5년의 추이를 보

면, 높았을 때 64.0%, 낮았을 때 52.0%로 그 사이에서 등락을 반복하였다. 매년 조사대상자에 어떤 직업군이 더 많이 표집되는가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온 측면이 있다. 즉 금년의 경우, 노동자와 상인 표본이 감소하고 농민과 군인이 더 많이 표집됨으로써 조사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에 따라 지난 5년간 50~60%의 수준에서 주체사상 자부심이 유지되었다. 이런 점에서 조사결과를 신중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큰 흐름에서의 추세를 보고 평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림 4-10> 주체사상에 대한 자부심(2008-2016)

(단위: %)



주체사상의 자부심을 세대별로 상당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2016년의 경우, 주체사상 자부심과 연령의 상관관계는 $\chi^2=20.944$, $p=0.051$ 으로 95% 수준에서 상관성이 보였다. 아래의 <표 4-4>에서 볼 수 있듯이, 특이한 것은 40대의 자부심이 79.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30대(62.5%), 20대(59.7%), 50대(50%), 60대(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고난

의 '행군 세대'로 불리는 40대 연령층이 북한이념에 대한 자부심이 가장 높고 30대와 20대 젊은 연령층에서도 높게 나타나는 반면, 50대 이상의 기성세대에서는 낮게 나타났다. 5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사상과 이념에 대한 자부심이 낮게 나타나는 것은 이해할만하다. 왜냐하면, 사회생활을 하면서 할수록 북한의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심각하게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사회가 혼란을 겪던 '고난의 행군' 시기 동안 20대 초반의 젊은 시절을 보냈던 사람들은 북한의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을 강하게 갖고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이 '고난의 행군 세대'가 금년에 갑자기 58.8%(2011-15년 평균)→79.4%로 20.6%p 급등한 이유는 좀처럼 설명하기 어렵다.

〈표 4-4〉 연령별 주체사상 자부심(2016)

(단위: %)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있다	59.7	62.5	79.4	50.0	25.0
없다	40.3	37.5	20.6	50.0	75.0

작년까지의 추세는 40대 연령층이 주체사상 자부심도 낮고 김정은에 대한 지지도도 낮은 반면, 남한에 대해서는 높은 호감도를 갖고 있는 전형적인 '고난의 행군 세대' 흐름이 형성되었다. 아래의 〈표 4-5〉는 2011-2015년 전체샘플 660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로 40대 연령층에서 사상에 대한 자부심이 가장 낮고 30대, 20대로 내려갈수록 높고, 50대, 60대로 올라갈수록 높아지는 'U자형' 혹은 '포물선' 모양의 의식이 형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의식의 추세에 비추어보면, 2016년 조사결과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흐름이 나타난 것이다.

〈표 4-5〉 연령별 주체사상 자부심(2011-2015)

(단위: %)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있다	59.0	56.1	53.5	60.5	62.5
없다	41.0	43.9	46.5	39.7	37.5

$\chi^2=36.858, p=0.017$

주체사상에 대해 북한주민의 63.0%가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는 결과는 어느 정도 타당성을 지닐까? 2014년 7월 조선일보가 중국 단둥에 나와 있는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는 주체사상에 대해 '매우 큰 자부심'을 가진 사람이 51.0%, '약간의 자부심'을 가진 사람이 14.0%로 총 65.0%의 응답자가 사상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²¹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보면, 2016년 조사결과가 상당한 타당성을 지닌다고 말할 수 있다.

(2) 김정은 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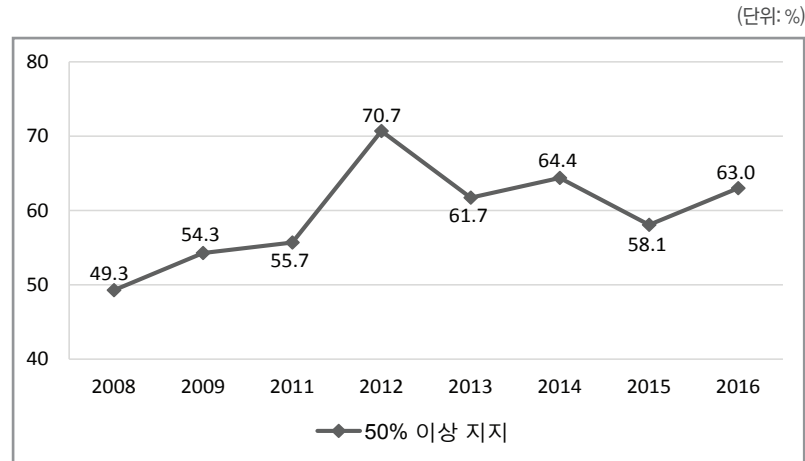
〈그림 4-11〉은 주민들의 정치의식을 평가하는 질문으로 김정은의 지지를 보여준다.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지지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90%'라는 응답이 16.7%로 가장 많았고, '50%'라는 응답은 17.4%, '30%'라는 응답이 13.8%로 뒤를 이었다. 전체적으로 '50%이상'이

21] 北 해주(황해도)서도 청진(함경북도)서도 남한TV 시청... "김연아 광고 재밌게 봐", 『프리미엄조선』 (온라인), 2014년 7월 7일; <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7/07/2014070700194.html?cont01> (검색일: 2014년 10월 21일).

라고 답한 사람은 63.0%로 작년의 58.1%에서 4.9%p 상승하였다.

김정은에 대한 지지도가 이처럼 높게 나타난 이유는 일차적으로는 선전선동부의 활동 때문이라 할 수 있다. 2015년 김정은은 당창건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중국의 류원산 정치국 상무위원과 함께 등장하여 주민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 연설에서 김정은은 “인민중시, 군대중시, 청년중시”라는 3대 전략을 강조하며, ‘인민’이라는 단어를 90여회 이상 사용하였다. ‘인민에 대한 깊은 감사’로 연설을 시작하여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 다짐’으로 연설을 마무리할 정도로 주민을 염두에 둔 연설을 한 것이다. 이 연설에서는 ‘핵’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대신 ‘인민제일주의’를 앞세웠다. 또 방송과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 군부대와 주민생활과 관련한 공개적인 현지지도를 내보내는 활동을 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행보가 선전선동을 통해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림 4-11〉 김정일-김정은에 대한 지지도(2008-2016)



김정은에 대한 지지도 역시 연령별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각 연령대로 보면 20대가 59.6%, 40대 58.8%, 50대 62.4% 등인데 비해 30대는 75.0%라는 높은 지지를 보였다. 다른 연령층에 비해 30대가 유난히 김정은에 대해 높은 지지를 보낸 이유는 무엇인지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북한 당국이 선전하는 ‘청년중시’, ‘청년강국’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 젊은이들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30대 연령층의 지지도 53.3%→75.0%로 21.7%p 급상승하여 그 변화가 매우 뚜렷하게 드러났다. 공교롭게도 30대는 김정은과 같은 연령층이어서 같은 세대라는 공감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표 4-6〉 연령별 김정은 지지도(2016)

(단위: %)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지지도	59.6	75.0	58.8	62.4	50.0

주체사상의 자부심과 마찬가지로 김정은에 대한 지지도에서도 2011-2015년에는 ‘고난의 행군 세대’ 의식이 뚜렷이 반영되어 있었다. 즉, 2011-2015년 전체(660명)를 대상으로 연령과 교차분석을 해보면, $\chi^2=79.419$, $p=0.02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다. 즉, 연령에 따라 김정은에 대한 지지도가 의미 있게 달라진다는 것이다. 40대 연령층에서 55.3%로 가장 낮고, 30대(66.2%), 20대(71.2%)로 내려갈수록 높아지고, 50대(59.8%), 60대(60.2%)로 올라갈수록 높아지는 ‘U자형’ 또는 ‘포물선’ 모양을 형성한다. 20대 초반에 가장 극심한 식량난을 겪은 ‘고난의 행군 세대’가 다른 연령층보다 정치사회적의식이 비판적이라는 가설이 통용

되었다. 그러나 2016년에는 이러한 과거의 추세와는 달리 40대가 가장 우호적인 정치사회외식을 갖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4-7〉 연령별 김정일·김정은 지지도(2011-2015)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지지율	71.2	66.2	55.3	59.8	60.2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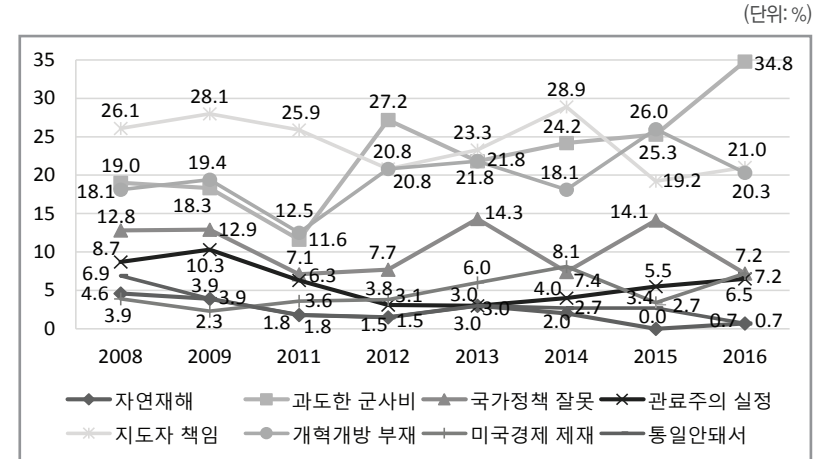
$\chi^2=79.419, p=0.021$

김정일 지도자에 대한 정치적 비판외식을 측정하기 위해 “북한에 거주할 당시 북한경제가 어렵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했는가?”라는 의견을 조사하였다. 이에 대해 〈그림 4-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과대한 군사비 지출’이라는 응답이 34.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지도자 때문’이라는 응답이 21.0%, ‘개혁개방을 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20.3%를 차지하였다. ‘개혁개방을 하지 않아서’라는 응답은 당과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지만, ‘지도자 때문’이라는 응답(21.0%)은 수령에 대한 비판이 금기시 되어 있는 북한에서 매우 위험한 정치적 비판이다.

한편, ‘과대한 군사비 지출’ 때문이라는 응답은 북한당국이 경제침체에 대한 구실로 내세우는 논리로 북한당국의 정당화 담론이 주민들 사이에 얼마나 설득력을 얻고 있는가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과대한 군사비 지출’이라는 응답이 34.8%로 매우 높게 나왔다. 작년과 비교해 볼 때도 ‘지도자 때문’이라는 응답은 19.2%→21.0%로 소폭 상승한 반면, ‘과대한 군사비 지출’이라는 응답은 25.3%→34.8%로 9.5%p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만큼 북한의 설득담론이 먹혀들어갔다는 얘기가 된다. 물론 응답자들이 ‘과대한 군사비 지출’이 높아졌다고 인식하는 것이 반드시 당국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최근 핵

무기를 포함한 여러 군사무기 개발을 홍보함으로써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경제실패에 대한 체제비판외식을 억제하고 김정은 체제를 정당화하는 데 일조하고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림 4-12〉 경제침체의 원인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북한주민들은 북한경제의 침체 원인을 미국의 경제제재와 봉쇄 때문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북한당국은 줄곧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압살정책’을 비난하고 있고 유엔의 대북제재가 강도 높게 전개되고 있으나 일반주민들 속에 나타난 의식은 ‘미국의 경제제재’와는 많이 동떨어져 있다. 이것은 두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는 북한이 미국의 ‘대조선 압살정책’을 핵개발로 맞서야 함을 강조하면서 경제침체와 주민생활의 어려움을 합리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그러한 당국의 논리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북한당국이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에 맞서

“우리가 항상 제재를 받고 살았지 제재를 받지 않고 살아본 적이 있느냐”며 제재를 무시하는 당국의 논리가 먹혀 들어간 것 아닌가 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2016년 3월 2일에 시작된 강도 높은 유엔의 대북제재에 대해서도 ‘200일전투’와 ‘려명거리건설’로 맞대응하면서 국제사회가 제재를 가하면 가할수록 더 높은 건물을 건설함으로써 제재를 가하는 상대방에게 역으로 심리적 타격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북한의 경제침체에 대해 ‘미국의 경제제재’ 때문이라는 평가가 7.2%로 적게 나온 것은 아마도 북한주민들이 자신들의 사회를 외부의 제재에 영향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는 기본적인 생각이 표현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3) ‘핵정치’ 정당성

북한은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2년 4월 개정헌법에 핵보유국임을 선언하였을 뿐 아니라, 2013년 3월 핵무기 개발을 국가의 공식적인 정책으로 천명하였다. 김정은은 2012년 4월 자신의 첫 공개연설에서 인민들이 다시는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도록 하겠다고 기업을 토하며 이제 핵무기가 있으니 경제개발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발언하였다. 북한주민들은 북한의 핵무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북한당국이 대주민 설득논리로 강조하고 있는 ‘핵정치’, 즉, 핵병기가 있으므로 더 이상 재래식 군비에 재원을 투입하지 않아도 되며 남은 재정을 경제발전에 투자함으로써 주민들이 잘 살 수 있다는 당국의 논리는 어느 정도 정당화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북한당국은 핵무기 보유에 대한 긍지를 부각하며 경제침체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을 제어해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먼저, 북한주민들은 북한의 핵무기가 매우 위력적이라는 점에 대해 높

은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북한주민들은 북한의 핵무기가 남한에 매우 위협적인 수단이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남한주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북한 핵의 위력과 파괴력을 더 높게 보고 있다. 남한주민들은 80% 정도가 위협적이라고 여기고 있는 반면, 북한주민들은 90%가 자신들의 핵무기가 위협적 수단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다. 이런 점에서 대남 및 대미 방어 수단으로서 핵무기를 인식하도록 하는 대주민 학습효과가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핵보유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비율이 50% 되지만, 작년과 비교할 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북한에 거주할 당시 핵무기 보유를 찬성하였느냐는 질문에 ‘매우 찬성’했다는 응답은 30.4%, ‘다소 찬성’ 응답은 19.6%로 50.0%가 찬성하였다. 반대했다는 응답은 ‘매우 반대’ 21.7%, ‘다소 반대’ 9.4%를 합하여 31.1%였다. 나머지 18.8%는 ‘반반이다, 그저 그렇다’라는 의견을 표시하였다. 작년과 비교할 때 북한의 핵무기 보유 견해는 ‘찬성’이 52.7%→50.0%로 소폭 감소한 반면, ‘반대’는 19.9%→31.1%로 11.2%p 늘어났다.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50%의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 지난 1년 사이에 이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오히려 늘었다. 북한당국이 주장하는 ‘핵정치’의 정당화는 그다지 긍정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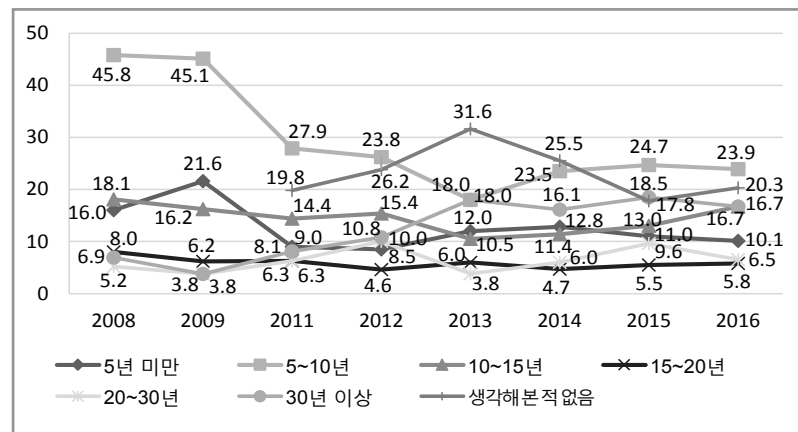
(4) 북한 사회주의 정권 지속 여부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북한 사회주의 정권이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5-10년’이라는 응답이 23.9%로 가장 많았고, ‘생각해본 적 없다’가 20.3%, ‘30년 이상’과 ‘10-15년’이 각각 16.7%로 그 뒤를 이었다. ‘5년 미만’이라는 응답은

10.1%로 적었다. 북한주민들은 북한 사회주의 체제가 5년 이내와 같이 단 기적으로 붕괴할 것으로 보지 않고 10년 정도의 중기적 시각으로 보거나 그 이상 장기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과 비교하여 별다른 변화는 없다.

〈그림 4-13〉 북한 사회주의 정권 지속 여부(2008-2016)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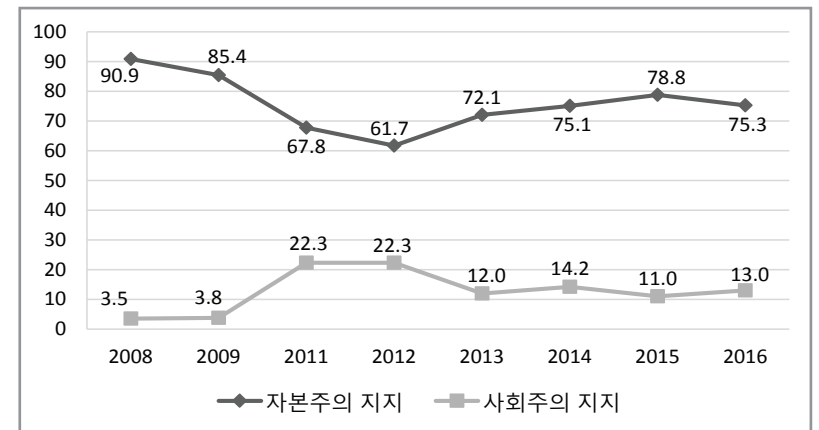
(5) 경제체제 선호도

주민들의 사회주의 사상과 이념의 변화를 측정해 볼 수 있는 문항으로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사회주의 경제(계획경제)와 자본주의 경제(시장경제, 개인소유경제) 중 어느 것을 더 지지했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져보았다. 그 결과 〈그림 4-14〉에서 볼 수 있듯이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지지했다는 응답이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지지했다는 응답보다 월등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75:13으로 자본주의 지지 의견이 많았다. 경제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것이기는 하지만, 자료의 신뢰성이 의심이 될 정도로 자

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지지와 선호가 높았다. 작년과 비교하면 사회주의 지지에 대한 응답이 11.0%→13.0%로 소폭 늘었으나 의미 있는 변화는 아니다.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도 줄곧 이러한 흐름에는 큰 변화가 없다. 식량난과 경제적 침체 때문에 사회주의 경제에 대한 회의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데다 시장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은 상태임을 말해준다.

〈그림 4-14〉 경제체제 선호도(2008-2016)

(단위: %)



마지막으로, 2016년 조사결과에 개입되어 있을지 모르는 자료의 편향성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2016년 조사결과는 대체로 사회통제와 질서가 일정 수준 유지되는 가운데 정치사회 의식이 강화된 것으로 나온다. 그 배경에 대해 북한 내부의 정책과 전개된 사건으로 설명하였으나, 혹시 샘플링 오류에 기인하는 부분은 없는가 생각해 본다. 그 중 하나는, 작년과 비교할 때 다른 직업군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노동자와 상인(장사)

이 각각 26.2%→22.5%, 20.7%→12.3%로 줄었고, 대신 농민과 군인은 각각 4.8%→9.4%, 4.8%→8.0%로 많아졌다. 이러한 조사대상 직업군의 변화가 북한실태 평가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주체사상 자부심을 직업군과 교차해 보면 $p=0.574$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노동자 직업군은 자부심이 '없다'(51.7%)는 응답이 '있다'(48.4%)는 응답보다 낮았다. 상인도 마찬가지로 자부심(52.9%)이 평균보다 낮았다. 반면, 농민과 군인은 각각 '있다'(61.6%, 100%)는 응답이 '없다'(38.5%, 0.0%)보다 월등히 높았다. 농민과 군인은 아무래도 외부와의 접촉이 많지 않고 외부소식에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도시 노동자와는 달리 정치사회 의식이 높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런 점에서 금년 샘플에 노동자와 상인이 줄어들고 농민과 군인이 늘어난 현상이 조사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6. 소결

탈북자 면접조사를 통해서 본 2016년 북한주민의 생활수준은 작년의 반짝 상승효과가 사라지고 다시 2014년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사회적 경제활동은 다소 줄었고 그에 따라 주민들의 실질소득도 줄었다. 무소득자가 16.4%→23.2%로 늘어난 반면, 1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는 23.3%→15.2%로 줄었다. 주민 유동성은 75.3%→68.1%로 7.2%p 감소하고, 특히 타지역을 자주 이동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37.7%→25.4%로 12.3%p나 감소하였다. 전반적으로 사회통제가 강화되었기 때문이

다. 지속적으로 상승하던 남한노래와 드라마, 방송 등 '한류' 접촉경험도 88.4%→88.4%로 정체되었고, 특히 자주 접촉하는 빈도는 57.5%→52.2%로 감소하였다. 생활총화 출석 실태에서도 90%이상 출석한다는 의견이 19.5%→20.3%로 큰 변화가 없었다. 정치적 비판행위도 62.3%→58.7%로 소폭 감소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사회통제가 잘 유지되고 있다'는 의견이 50.0%→49.3%로 사회질서가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경제난과 주민 생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각종 통제기구의 작동과 주민설득을 통해 사회질서와 통제는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정치사회 의식은 전반적으로 강화되었다. 주체사상의 자부심은 52.7%→63.0%로 높아졌고, 김정은 당위원장의 대주민 지지도도 58.1%→63.0%로 높아졌다. 이러한 정치사상인식은 북한당국의 정치사회적 통제와 단속을 강화한 결과일 것이며 미래과학자거리 등 북한 안에서 진행된 대규모 건설사업과 경제정책의 선전 효과일 것이다. 그러나 앞장에서 분석한 대남인식과 관련지어 보면, 주민들의 대남 적대인식 상승에 따른 반사효과일 가능성도 있다. 남북관계의 경색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국면에서 북한당국이 남한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과 적대감 고취 활동이 북한체제 지지 효과로 나타났을 개연성도 크다. 주민유동성과 한류접촉, 정치적 비판행위, 생활총화출석 등 여러 면에서 사회질서와 체제의 이완현상이 진행 중이나, 김정은 정권 5년 동안 대주민 선전선동과 통제 강화로 주민의 정치사회인식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들 스스로도 체제의 단기 붕괴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2016년 조사 결과로 볼 때 북한의 정치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기대할만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북한 사회주의 경제에 대한 신뢰가 거의 상실된 상태에서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고 집단주의보다 개인주의 가치를 선호하고 있는 북한의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내부 단속은 그럭저럭 해나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어 외부 환경은 매우 불리하다. '200일 전투'로 맞대응하며 어떤 제재에도 끄떡없음을 보여주고자 총력을 동원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맞대응 자체가 국제사회의 제재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음을 반증한다. 금년에는 30대와 40대의 청년층이 정권과 체제의 지지세력으로 부상하였으나 이러한 흐름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알 수 없다. 20대 청년학생들의 행보는 더욱 민감하다. 20대 청년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북한은 '청년강국', '청년중시' 정책을 발표하고 23년 만에 청년동맹 9차대회(2016년 8월 27일-28일)를 개최하는 등 청년들에 대한 동원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의 젊은 세대가 경제난과 외부제재를 어떻게 인식하며 당국의 청년정책에 반응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좌우될 것으로 생각된다.



제5장 주변국
관계인식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제5장 주변국 관계인식

1. 서론

김정은 정권 5년 차를 맞은 2016년은 어느 때보다 북한정권의 강경노선이 명확히 드러난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2015년 DMZ 지뢰도발 이후의 8.25 남북 합의 및 2016년 북한 신년사를 통해 대남, 대외 관계의 변화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으나 2016년 1월의 4차 핵실험, 2월 장거리 미사일(위성) 발사로 인해 2012년 헌법에 명기된 핵보유국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핵 능력 증강에 집중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도발과 안보 추구 행위는 남북관계의 신뢰 증진과 화해 협력을 더욱 어렵게 하였을 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국제사회의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봉쇄 및 대북제재의 정당성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문제는 북한의 핵능력 강화 및 핵보유국 지위 확보 노선이 기존의 북중, 북미, 그리고 남북 관계에 있어 대화와 협력, 관여보다는 제재와 징벌, 억제의 전략을 정당화시켜줌으로써 북한과 주변국 간의 협력 및 상호의존 매커니즘을 어렵게 했다는 점이다. 한층 더 강화된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중국이 동참하고 협조하게 됨으로 북중 간 인적·물적 교류의 제한이 불가피해졌고 남북한의 경제협력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 경제의 외부 환경은 더욱 악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인민생활 향상,

경제난 극복 및 대외관계 개선이라는 김정은 정권의 주요 과제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북한 체제유지 및 공고화라는 김정은 정권의 핵심 이익까지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2016년 5월의 북한 노동당 7차 대회 이후 이어진 미사일 실험, 대남비난 강화, 북미 간의 대결구도 지속, 제재국면 하에서의 북한 장마당 및 시장의 위축상황은 북한주민들의 잠재적, 실제적 위협요인으로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대내외적 변화요인이 북한주민들의 주변국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주민들의 주변국 관계인식은 신중히 관찰될 필요가 있다. 북한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직접 조사할 수 없는 방법론적인 한계가 있지만 그 대안으로 통일평화연구원은 북한에서 탈북한지 1년이 채 되지 않는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북한에 거주할 당시 주변국 혹은 주변국과의 관계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조사해오고 있다. 주변국 인식 조사는 북한주민들이 주변국가에 대하여 느꼈던 친밀감과 위협감, 그리고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희망 여부, 그리고 통일을 위한 주변국의 협조 필요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가장 친밀한 국가

먼저 북한이탈주민들의 주변국 친밀감에 대해 조사하였다. 북한주민들이 북한에 살고 있을 때 주변국가 중 어느 나라를 가장 가깝게 느끼고 있었는지에 대해 질문하고 여기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았다. 조사 문항에서

미국, 일본, 한국, 중국, 러시아 중 한 나라를 선택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특정 국가에 대한 친밀감의 상승은 다른 나라에 대한 친밀감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북중간의 전통적인 유대관계를 고려할 때 중국에 대한 친밀감이 높을 것이며 민족적인 동질감을 공유하고 있는 한국에 대한 인식은 비교적 긍정적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표 5-1〉 가장 친밀하게 느끼는 주변국가 (단위: %)

북한주민의 인식						남한주민의 인식						
	2012	2013	2014	2015	2016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미국	1.6	1.5	1.4	2.1	0.0	미국	68.8	65.9	76.2	74.9	78.3	73.8
일본	0.8	0.0	0.0	0.7	0.7	일본	9.1	6.8	5.1	4.3	3.9	5.2
한국	24.0	13.0	16.2	22.9	15.9	한국	16.0	20.6	11.0	8.9	8.1	10.8
중국	70.4	83.2	79.7	72.9	76.8	중국	5.3	5.8	7.3	10.3	8.8	9.7
러시아	3.2	2.3	2.7	1.4	6.5	러시아	0.8	0.9	0.5	1.0	0.9	0.4
합계 (명)	125	131	148	144	138	합계 (명)	1,197	1,199	1,200	1,200	1,200	1,200

북한주민 응답자들은 중국을 가장 가깝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조사가 시작된 2012년 이후 북한주민의 중국에 대한 친밀감은 주변국 가운데 가장 높았으며 두 번째로 호감도를 보인 한국과 비교해도 응답률의 50%이상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2016년 대중친밀감은 76.8%로 지난 2년간 감소 추세에서 다시 상승하였고 2015년 72.9%과 비교해도 3.9%p 증가하였다. 다른 주변국에 비해서도 월등한 북한주민 응답자들의 친중국 인식은 북한정권 수립 이후 60년 동안의 전통적인 '혈맹' 또는 '순망치한'(唇亡齒寒) 관계의 내재화된 결과로 볼 수 있다. 1998년 공식 출범한 김정일 정권은 식량 기근, 국제적 고립, 경

제적 위기에 내몰리면서 중국과의 협력적 관계를 매우 중요시 했었다.²² 또한 2000년대 이후 확대되었던 북중 간 경제협력은 무역과 투자, 그리고 인적교류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북중간 경제 의존 심화는 북한주민의 대중 인식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표 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년 이후 북한이탈주민들의 중국에 대한 우호인식은 하락세를 나타낸다. 이는 북한의 3차 핵 실험(2013년 2월) 이후 중국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참여, 장성택 처형(2013년 12월) 이후 소원해진 북중관계가 반영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시진핑 정부 출범(2012년 11월) 이후 당·정부 간 고위층의 인적교류는 이전과 비교하였을 때 상당히 줄어들었다. 남북 군사분계선에서의 지뢰 도발 및 포격전(2015년 8월)이 있었던 2015년까지 북중간 정치적 냉각이 지속되었던 것을 고려한다면 중국과의 관계경색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2016년 들어 지난 2년간 감소하던 대중친밀감이 북한주민들 사이에서 다시 상승한 것은 향후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최룡해 전 노동당비서의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 참석(2015년 9월)과 류윈산(劉雲山) 중국 정치국 상무위원의 방북(2015년 10월) 이후의 관계 개선의 분위기²³가 있어온 것은 사실이지만 시진핑 정부 이후 소원해진 북중관계가 회복기로 진입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거듭된 핵실험에 대한 중국의 대북제재 수위와 북한 경제의

22] 통일부, 『2016 북한의 이해』(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 pp. 104.

23] 김한권, "북한 4차 핵실험 이후 북중관계 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No. 2016-02, 국립외교원 외교안보 연구소, pp.5; 이상현, "북한 김정은 정권의 대외 및 대남정책," 『김정은 체제 5년의 북한 진단 그리고 남북관계』, 제3차 민화협 통일정책포럼 (2016년 12월 8일.), pp.35.

미치는 악영향 그리고 북핵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양국 간 갈등이 북한의 대중인식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대중친밀감이 다소 증가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에 대한 친밀감은 같은 기간 감소하였다. 북한주민들은 중국 다음으로 한국을 가장 가깝게 느끼고 있으며 조사가 시작된 2012년 이후 이 선호도는 바뀌지 않았다. 2013년 13.0%, 2014년 16.2%, 2015년 22.9%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북한주민 응답자들의 남한 선호도는 2016년 들어 15.9%로 7%p 하락하였다. DMZ 목함 지뢰 사태로 인한 남북대치 상황(2015년 8월)과 대북 경제 제재 국면 등이 북한주민의 대남친밀감 하락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추정된다. 북한주민들이 일정부분 남한을 친밀하게 느낀다는 것은 주민들의 의식 저변에 깔려있는 민족주의적 동질의식이 작용하고 있는 결과일 수 있다. 다만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 안보 및 정치 상황이 악화되어 남북간 긴장과 대결 국면이 지속될 경우 북한주민의 의식과 태도는 부정적으로 바뀔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인들의 『통일의식조사』에서는 2007년 이래 미국은 가장 친밀한 국가였다. 북한의 경우 2007년부터 2013년까지는 미국 다음으로 가깝게 느낀다고 응답하였으나 2014년, 2015년은 중국 다음으로 친밀도가 세 번째가 되었다. 2016년의 경우 다시 중국보다 선호도가 앞섰다. <표 5-1>에 서와 같이 응답률도 2015년 8.1%에서 10.8%로 증가하였다.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대북 제재국면, 김정은 정권의 공포정치 지속, 북핵문제에 대한 가중된 피로감에도 남한주민의 대북친밀도는 하락하기보다 증가한 것이다.

주변국에 대한 친밀감 중 응답률이 가장 높았던 중국과 한국을 다시 성별로 살펴보면 <표 5-2>의 결과와 같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 여

성 응답자들이 남성 응답자들보다 중국을 더 친근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의 경우 처음으로 남성 응답자들의 대중친밀감이 83.0%로 여성의 72.9%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국에 대한 호감도의 경우 성별 간 일정한 패턴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2016년 조사 결과에 의하면 남성들의 한국에 대한 친밀감이 2015년 29.1%에서 2016년 13.2%로 15.9%p 낮아진 반면 여성의 경우 같은 기간 1.5%p 하락에 불과했다. 이는 북한주민 응답자들의 중국에 대한 친밀감 상승 및 한국에 대한 친밀감 하락이 남성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2015년 상황과는 정반대의 결과라는 점에서 추후 관찰이 필요한 부분이다.

<표 5-2> 성별 중국과 한국에 대한 친밀감

(단위: %)

		중국	한국	기타	합계(명)
2012	남성	62.5	26.8	10.7	56
	여성	76.8	21.7	1.5	69
2013	남성	78.9	14.0	7.0	57
	여성	86.5	12.2	1.4	74
2014	남성	79.6	12.2	8.2	49
	여성	79.8	18.2	2.0	99
2015	남성	63.6	29.1	7.2	55
	여성	78.7	19.1	2.2	89
2016	남성	83.0	13.2	3.8	53
	여성	72.9	17.6	9.5	85

2013년 조사까지는 재북 학력이 높을수록 한국을 친밀하게 느낀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2014년과 2015년에는 그러한 결과가 발견

되지 않았다. 학력에 따라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다르고 주변국 관계에 대한 정보의 접근성 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지금까지 다섯 차례 조사에서 2014년을 제외하고 대학 학력 배경을 가진 응답자들의 한국에 대한 친밀감은 다른 학력 배경자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2016년의 경우 한국을 친밀하게 생각하는 대학 이상 재북 학력자들은 27.8%로 2015년 27.6%와 비슷한 반면 전문학교 출신의 경우 2015년 20.8%에서 2016년 0%로 매우 낮아졌다. 중국에 대한 친밀도는 재북 당시의 학력별 편차가 크지 않으며 교육 수준과 관계없이 대중친밀도는 높게 나타났다. 한국과는 대조적으로 대학 학력을 가진 응답자들의 대중친밀도는 가장 낮고 전문학교는 가장 높다. 북한 고학력자들은 상대적으로 한국에 대해서는 높은 호감도를 보인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낮은 호감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표 5-3〉 학력별 주변국에 대한 친밀감

(단위: %)

	2012			2013			2014		
	대학교	전문학교	고등중학교	대학교	전문학교	고등중학교	대학교	전문학교	고등중학교
미국	0.0	0.0	1.2	0.0	0.0	2.1	0.0	0.0	2.2
일본	7.7	0.0	0.0	0.0	0.0	0.0	0.0	0.0	0.0
한국	46.2	30.4	18.5	23.8	13.3	10.6	10.0	9.4	19.8
중국	46.2	65.2	76.5	71.4	86.7	85.1	85.0	87.5	75.8
러시아	0.0	4.4	3.7	4.8	0.0	2.1	5.0	3.1	2.2
합계(명)	13	23	81	21	15	94	20	32	91

	2015			2016		
	대학교	전문학교	고등중학교	대학교	전문학교	고등중학교
미국	0.0	0.0	3.4	0.0	0.0	0.0
일본	0.0	4.2	0.0	0.0	0.0	0.1
한국	27.6	20.8	23.0	27.8	0.0	16.5
중국	69.0	75.0	73.6	72.2	93.8	74.8
러시아	3.4	0.0	0.0	0.0	6.3	7.8
합계(명)	29	24	87	18	16	103

주: 인민학교 및 무학 응답자들은 표에 보고되지 않았다.

당원 여부에 따라라도 주변국에 대해 가지는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표 5-4〉에서와 같이 당원 중에 한국을 가깝게 느낀다고 응답한 경우는 2014년 10%(20명 중 2명)에서 2015년 26.9%(26명 중 7명)로 증가하였지만 2016년의 경우 7.7%(26명 중 2명)로 낮아졌다. 당원 중 중국을 가깝게 느낀다는 응답은 2014년 90.0%(20명 중 18명)에서 2015년 61.5%(26명 중 16명)로 그 비중이 하락하였다가 2016년 92.3%(26명 중 24명)로 현저히 증가한다. 이는 다섯 차례 조사 중 가장 높은 응답률이었다. 비당원의 경우 변화의 폭은 그리 크지 않으나 러시아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하고 2016년 한국과 중국에 대한 친밀감은 다소 감소하였다. 최근 중국에 대한 친밀감 상승, 한국에 대한 친밀감 하락이 당원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4〉 당원 여부에 따른 주변국에 대한 친밀감

(단위: %)

	2012		2013		2014		2015		2016	
	당원	비당원	당원	비당원	당원	비당원	당원	비당원	당원	비당원
미국	5.6	0.9	0.0	1.8	0.0	1.6	7.7	0.9	0.0	0.0
일본	5.6	0.0	0.0	0.0	0.0	0.0	3.8	0.0	0.0	0.9
한국	22.2	24.5	11.1	13.3	10.0	17.3	26.9	22.2	7.7	17.9
중국	55.6	72.6	88.9	82.3	90.0	78.0	61.5	75.2	92.3	73.2
러시아	11.1	1.9	0.0	2.7	0.0	3.1	0.0	1.7	0.0	8.0
합계(명)	18	106	18	113	20	127	26	117	26	112

주: 2014년, 2015년의 경우 후보당원 각각 1명은 당원으로 포함시켰음.

3. 가장 위협적인 국가

북한주민들의 주변국가에 대한 위협인식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북한사회의 폐쇄성,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 그리고 주변국의 위협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이른바 ‘피포위의식’ 등은 북한주민들의 위협인식 형성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주민들의 주변국 위협인식은 북한정권의 내부 변화, 국제정세 및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여지도 존재한다.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다음 국가들 중 어느 나라가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제시하고 미국, 일본, 한국, 중국, 러시아 중 한 나라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한국에 대한 위협 인식의 증가는 다른 국가들에 대한 위협 인식의 감소로 나타나게 된다. 북한의 장기간 지속된 미국에 대한 적대인식을 고려할 때

북한주민들은 미국에 대한 위협 인식이 가장 높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으며, 남북관계의 단절과 긴장악화에 따라 한국에 대한 위협인식도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아래 〈표 5-5〉에서 보여주듯이 북한주민들은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는 미국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다른 주변국과 비교하더라도 북한주민 응답자들의 대미위협인식은 압도적으로 높다. 북한은 오랜 기간 미국에 대한 적대인식을 표출해왔다. 이는 한반도 분단과정과 북한 정권 수립, 그리고 이후의 발전과정의 역사적 정치적 맥락에서 충분히 가능한 인식이다. 사실 북한 정권 엘리트들에게는 미국과의 적대적 관계를 설정함으로써 체제안정과 생존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는 측면도 있다.²⁴ 최근 북한 핵프로그램에 대한 경제제재 지속, 2012년 2·29 합의 결렬 이후 지속된 북미간 경색국면 등은 실제적으로 북한주민의 대미 위협인식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표 5-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미국에 대한 위협인식은 2016년 84.1%로 2015년 65.7%에 비해 18.4%p 증가하였으며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북한의 고조된 대미 위협인식은 미국이 대북제재의 실질적 주도국으로 북한의 존립과 번영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주민들 사이에도 강하게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16년 조사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2015년 증가로 전환되었던 대중위협인식이 다시 감소한 점이다. 2015년 19.6%였던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은 2016년 8.0%로 11.6% 하락하였고 이는 조사가 시작된 2012년 이후 가

24] 정은미 외 공저, 『북한주민 통일인식 2014』(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5), pp. 122.

장 낮은 응답률이다. 이러한 원인을 시진핑 체제 이후 경색국면이 지속되었던 북중관계를 고려할 때 대미위협인식이 강화됨으로 인한 상대적 하락으로 볼 수 있지만 사실 2015년을 제외하고 북한주민의 대중위협인식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었다. 미국과 중국에 대한 북한주민의 위협인식이 추후 어떻게 변화할지 세심한 관찰이 주목되는 부분이다.

〈표 5-5〉에서도 나타나듯이 북한주민 응답자 대다수는 한국을 위협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에 비해 한국인들은 주변국 가운데 북한을 가장 위협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2016년 『통일인식조사』의 결과를 본다면 한국인들의 10명 중 6명 이상은 북한을 한반도 평화에 위협적인 나라로 생각하고 있다. 대북위협인식은 66.7%로 조사 이래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이은 북한의 군사도발이 한반도 평화와 안전에 지대한 위협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즉, 남한주민들은 민족적 정서적 인식을 바탕으로 북한을 가깝게 여기지만 국가안보와 안전의 측면에서는 북한을 위협적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5-5〉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

(단위: %)

	북한주민의 인식					남한주민의 인식						
	2012	2013	2014	2015	2016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미국	66.1	71.4	73.8	65.7	84.1	미국	8.6	9.5	4.4	5.4	4.7	4.7
일본	3.3	6.8	9.7	12.6	3.6	일본	11.6	12.3	16.0	24.6	16.1	10.0
한국	8.3	1.5	2.1	1.4	2.9	북한	46.0	47.3	56.9	49.8	54.8	66.7
중국	22.3	20.3	14.5	19.6	8.0	중국	33.6	30.5	21.3	17.6	23.3	16.8
러시아	0.0	0.0	0.0	0.7	1.4	러시아	0.3	0.4	1.3	2.6	1.3	1.7
합계(명)	121	133	145	143	138	합계(명)	1,201	1,200	1,200	1,199	1,200	1,200

주변국에 대한 위협인식의 경우 대체로 북한주민들 응답자들의 남성은 여성보다 중국을 상대적으로 더 위협적으로 판단하는 반면 미국에 대해서는 성별 간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렇지만 2016년의 경우 남성들의 대중위협인식이 2015년 30.4%에서 5.7%로 크게 하락하면서 여성의 9.4%보다 오히려 낮아졌다. 미국에 대한 위협인식에서는 남성이 90.6%로 여성의 80.0%보다 높게 나타났다. 북한주민들의 미국에 대한 위협인식이 중국에 비해 현저히 높지만 2016년의 경우 대미위협인식 증가, 대중위협인식 감소가 남성에서 분명히 드러났음을 알 수 있었다. 중국의 부상, 소원해진 북중관계,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결정 이후 경색되고 있는 한중관계 등의 요소가 앞으로 북한주민들의 대중위협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표 5-6〉 성별 미국과 중국에 대한 위협 인식

(단위: %)

		미국	중국	기타	합계(명)
		2012	남성	66.0	22.6
	여성	66.2	22.1	11.7	68
2013	남성	61.0	28.8	10.2	59
	여성	79.7	13.5	6.8	74
2014	남성	77.1	14.6	8.3	48
	여성	72.2	14.4	13.4	97
2015	남성	53.6	30.4	16.0	56
	여성	73.6	12.6	13.8	87
2016	남성	90.6	5.7	3.7	53
	여성	80.0	9.4	10.6	85

북한주민들의 교육 수준에 따라 미국과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에도 차이가 발견된다. 2012년에는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북한주민들의 경우 다른 학력의 응답자보다 미국을 위협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10%정도 낮고 중국을 가장 위협적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기타 학력을 가진 응답자보다 5% 정도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2013년과 2014년의 경우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의 경우 미국에 대한 위협인식이 다른 학력의 응답자보다 높아진 반면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은 낮아졌다. 2016년 조사에서는 대학 이상 학력을 가진 북한주민의 미국과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이 2015년과는 상반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대학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은 재북 학력자들의 미국에 대한 위협인식은 2015년 46.4%에서 2017년 77.8%로 크게 증가한 반면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은 2015년 28.6%에서 11.1%로 감소한 것이다. 이 증감의 변화도 또한 다른 학력 배경 응답자보다 가장 크게 나타났다.

〈표 5-7〉 학력별 주변국에 대한 위협 인식

(단위: %)

	2012			2013			2014		
	대학교	전문학교	고등중학교	대학교	전문학교	고등중학교	대학교	전문학교	고등중학교
미국	58.3	68.4	68.3	77.3	60.0	71.6	85.0	73.3	72.2
일본	8.3	5.3	2.4	9.1	6.7	6.3	5.0	10.0	11.1
한국	8.3	5.3	8.5	0.0	0.0	2.1	0.0	3.3	2.2
중국	25.0	21.1	20.7	13.6	33.3	20.0	10.0	13.3	14.4
러시아	0.0	0.0	0.0	0.0	0.0	0.0	0.0	0.0	0.0
합계(명)	12	19	82	22	15	95	20	30	90

	2015			2016		
	대학교	전문학교	고등중학교	대학교	전문학교	고등중학교
미국	46.4	75.0	69.0	77.8	75.0	87.4
일본	25.0	4.2	11.5	0.0	12.5	1.9
한국	0.0	4.2	1.1	5.6	6.3	1.9
중국	28.6	16.7	18.4	11.1	6.3	7.8
러시아	0.0	0.0	0.0	5.6	0.0	1.0
합계(명)	28	24	87	18	16	103

주: 인민학교 및 무학 응답자들은 표에 보고되지 않았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조사에서 미국이 한반도 평화에 위협적인 국가라는 당원 출신 응답자들과 비당원 출신 응답자들의 비율은 큰 차이가 없었다. 2015년의 경우 당원 출신들은 비당원 출신들보다 미국에 대한 위협인식이 낮았고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은 높았다. 2016년에는 2015년과는 반대로 대미위협인식은 당원 출신들이 비당원 출신들보다 근소하지만 높아졌고 대중위협인식에서는 낮아졌다. 조사가 시작된 이래 당원 출신의 북한주민 응답자들 중 한국이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은 한 명도 없었다. 당원과 비당원 모두 미국과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의 변화 폭이 다른 국가들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향후 두 국가에 대한 인식 변화의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표 5-8〉 당원 여부에 따른 주변국에 대한 위협인식

(단위: %)

	2012		2013		2014		2015		2016	
	당원	비당원	당원	비당원	당원	비당원	당원	비당원	당원	비당원
미국	70.6	64.7	68.4	71.9	75.0	73.4	53.8	68.1	88.5	83.0
일본	0.0	3.9	10.5	6.1	15.0	8.9	15.4	12.1	7.7	2.7
한국	0.0	9.8	0.0	1.8	0.0	2.4	0.0	1.7	0.0	3.6
중국	29.4	21.6	21.1	20.2	10.0	15.3	30.8	17.2	3.8	8.9
러시아	0.0	0.0	0.0	0.0	0.0	0.0	0.0	0.9	0.0	1.8
합계(명)	17	102	19	114	20	124	26	116	26	112

주: 2014년, 2015년의 경우 후보당원 각각 1명은 당원으로 포함시켰음.

4. 주변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희망과 협조의 필요성

한반도의 평화통일 실현을 위해 주변국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우호적인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한반도의 통일이 남북한 간의 대화, 조정, 협의, 이행 노력을 수반함과 동시에 국제사회 및 주변국들과의 상이하고 중첩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지난한 과정임을 의미한다. 이런 관점에서 한반도의 평화공존과 통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들에 대한 남북한 주민들의 인식을 파악하는 것은 통일 환경 구축에 있어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통일평화연구원은 주변국들의 한반도 통일희망을 조사해보기 위해서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다음 국가들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하였다. 한국과 북한의 주민들은

통일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남북한의 통일 희망에 대한 인식은 이번 질문 항목에서 제외하였다.

상술한 바와 같이 북한주민 응답자들이 가장 가깝게 느끼는 국가는 중국이며,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미국으로 인식한다. 그런데 주변국들이 얼마나 통일을 원하는지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인식은 앞선 친밀감 및 위협도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아래 〈표 5-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다수의 북한주민 응답자들은 주변국들이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지난 5년간 ‘한반도의 통일을 원함’의 평균 응답률은 러시아(31.6%)>미국(24.8%)>중국(15.6%)>일본(8.6%)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음’은 일본(91.4%)>중국(84.4%)>미국(75.2%)>러시아(68.4%) 순으로 높았다. 조사가 시작된 2012년 이후로 미국이 한반도의 통일을 희망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중국보다 매년 높게 나타났으며 또한 미국보다 중국이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을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주민 응답자들이 미국을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생각하지만 중국과 일본보다는 한반도의 통일을 더 원할 것이라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은 북한주민들이 가장 친밀하게 느끼는 국가임은 분명하지만 중국이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중국을 가깝게 여기고 한반도 평화에 비위협적이라고 생각하지만 통일된 한반도를 중국이 지지하기보다는 경계할 것이라는 인식이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북한주민 응답자들의 미국 통일희망 인식에는 분명한 변화가 발견된다. 비교적 한반도의 통일을 원한다는 응답률이 높았던 미국이 2016년에는 18.8%로 2015년 33.1%에 비해 14.3%p 감소했다. 그

결과 미국과 중국의 한반도 통일희망 정도의 격차는 상당히 수렴 되었다. 2015년을 제외한 러시아의 통일희망이 기타 주변국들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이해관계가 복잡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남한주민들의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서도 대부분의 국가들이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한반도 평화를 원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이 역시 37.8%에 불과하다. '통일을 원한다'의 2016년 응답률이 높은 국가 순서는 미국(37.8%)>러시아(15.8%)>중국·일본(14.9%)순으로 나타났으며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의 2016년 응답률은 일본·중국(85.1%)>러시아(84.2%)>미국(62.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016년 남북한주민의 통일의식조사에서 공통으로 미국의 한반도 통일희망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표 5-9〉 주변국의 한반도 통일 희망 정도

(단위: %)

주변국	통일 희망 정도	북한주민의 인식					남한주민의 인식					
		2012	2013	2014	2015	2016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미국	원함	31.7	19.5	21.1	33.1	18.8	38.1	40.0	40.6	41.1	48.1	37.8
	원하지 않음	68.3	80.5	78.9	66.9	81.2	61.9	60.1	59.4	58.9	51.9	62.2
	합계(명)	126	133	147	145	138	1,201	1,200	1,200	1,195	1,200	1,200
중국	원함	15.0	16.7	14.9	14.4	17.4	10.2	10.5	18.3	19.2	22.3	14.9
	원하지 않음	85.0	83.3	85.1	85.6	82.6	89.8	89.6	81.7	80.7	77.6	85.1
	합계(명)	127	132	148	146	138	1,200	1,200	1,200	1,198	1,199	1,200

주변국	통일 희망 정도	북한주민의 인식					남한주민의 인식					
		2012	2013	2014	2015	2016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일본	원함	10.5	6.8	6.8	8.3	10.9	13.5	11.9	14.4	12.6	14.0	14.9
	원하지 않음	89.5	93.2	93.2	91.7	89.1	86.5	88.1	85.6	87.4	86.0	85.1
	합계(명)	124	132	146	145	138	1,201	1,200	1,200	1,197	1,199	1,200
러시아	원함	32.5	34.4	30.1	26.6	34.8	15.8	14.3	17.6	16.5	17.0	15.8
	원하지 않음	67.5	65.6	69.9	73.4	65.2	84.3	85.8	82.4	83.5	83.0	84.2
	합계(명)	123	131	146	143	138	1,200	1,200	1,200	1,195	1,198	1,200

주변국의 통일희망 정도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북한주민들이 한반도 통일을 위한 주변국들의 협조 필요성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도 중요한 문제이다. 그래서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북한이 통일하는 데 한반도 주변국가들 중 어느 나라의 협조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하였다. 이 항목은 북한주민 응답자들이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주변국 가운데 어떠한 국가의 도움이 가장 절실하다고 판단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북한주민들의 주변국 협력 인식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아래 <표 5-10>이 보여주듯 북한주민 응답자들은 한반도 통일을 위해 중국의 협조가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2014년 중국으로 응답한 비율은 52.8%, 2015년에는 48.6%, 2016년에는 43.8%로 그 비중이 소폭 하락하고 있지만 주변국 가운데 가장 높다. 북한주민 응답자들은 중국이 한반도 통일에 회의적일 것으로 생각하지만 통일을 위해 현실적으로 중국의 도움이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러시아의 도움

이 가장 필요할 것이라는 응답도 2년 연속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의 경우 11.7%로 미국의 12.4%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어느 나라의 도움도 필요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2014년 22.9%에서 2015년 28.6%, 2016년 32.1%로 증가하였다. 즉 이는 상당수의 북한주민들이 통일은 남과 북이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민족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²⁵

〈표 5-10〉 미국의 한반도 통일 희망 정도

(단위: %)

	2014		2015		2016	
	빈도	%	빈도	%	빈도	%
중국	76	52.8	68	48.6	60	43.8
미국	30	20.8	24	17.1	17	12.4
러시아	5	3.5	8	5.7	16	11.7
어느 나라의 도움도 필요없다	33	22.9	40	28.6	44	32.1
합계(명)	144	100.0	140	100.0	137	100.0

북한의 주요 대외 무역 상대국은 중국, 한국, 일본이었다.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일본과의 무역이 거의 중단된 상황에서 북한의 대외 무역 가운데 중국과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절대적이었다. 2010년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 이후 한국 정부는 5.24 조치를 발표하며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남북경협을 중단하였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북중 경협은 더욱 확대되었고 북중간 경제적 상호의존도도 심화되었다. 『통일의식조사』에 의하면 북중경협에 대해 ‘우려스럽다’는 한국인들의 응답은 2011년

25] 정은미 외 공저, 『북한주민 통일의식 2015』(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6), pp. 163.

부터 2014년까지 각각 76.1%, 72.5%, 60.2%, 67.9%를 기록하였다.²⁶ 그런데 이와는 달리 북한이탈주민들은 북중경협이 심화되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아래 〈표 5-11〉의 결과에 의하면 2015년 북중경협이 강화되는 것에 대하여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북한주민 응답자들의 비율이 53.1%였고, 우려스럽다고 생각한다는 응답 비율은 34.5%였다. 북한주민들은 북중경협 확대에 따른 경제적 이익에 대해 부정적이지 않음을 시사한다.

〈표 5-11〉 북중경협 강화에 대한 인식

(단위: %)

북중경협 강화	2014		2015	
	빈도	%	빈도	%
매우 바람직하다	50	33.6	38	26.2
바람직한 편이다	34	22.8	39	26.9
우려스러운 편이다	35	23.5	33	22.8
매우 우려스럽다	12	22.9	17	11.7
잘 모르겠다	18	8.1	18	12.4
합계(명)	149	100.0	145	100.0

북한의 대외무역 확대 및 장기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 중국과 한국과의 교류협력 및 투자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지만 현재의 북한경제는 내외부적으로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한국의 2010년 5.24 조치가 해제되지 않고 2015년 8.25 합의도 사실상 백지화된 상황에서 2016년 개성공단까지 폐쇄됨으로써 남북경협은 가장 큰 위기에 처해 있

26] 박명규 외 공저, 『2014 통일외국조사』(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4), pp. 198.

다. 강력한 경제제재 하에서 북한의 장마당이 허용되고 비공식경제를 용인하고 있지만 내수부문 개선을 위한 인위적 부양 정책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²⁷⁾ 북한 재정 확충, 투자협력 강화, 대외무역 확대를 위해서는 주변국들과의 경제협력은 필수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주민들의 경제발전과 관련된 주변국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2016년부터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북한이 잘 살기 위해서는 어느 나라와 가까워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하였다.

아래 <표 5-12>의 결과에서 보여주듯이 북한이탈주민 응답자들은 북한 발전을 위해서는 중국 및 한국과 가까워져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47.1%로 가장 높았고 한국이 43.5%로 그 다음이었다. 이 둘의 응답률은 90.6%로 사실상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대부분임을 감안할 때 한국과의 협력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대북제재로 인해 다방면의 교류 협력을 기대하는 것은 시기상조이겠지만 북한 핵문제에 진척이 있고 북미 간, 남북 간의 안보환경이 호전될 경우 중국과 한국은 북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7) 이종규, “2016년 북한의 주요 경제정책 동향 평가 및 2017년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제19집 1호 (2017), pp. 27-39.

<표 5-12> 발전에 필요한 국가

(단위: 빈도, %)

	2016	
	빈도	%
미국	6	4.3
일본	1	0.7
남한	60	43.5
중국	65	47.1
러시아	6	4.3
합계	138	100.0

5. 소결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반도 주변국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함으로써 북한주민들의 주변국 인식을 간접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주민 응답자들의 중국에 대한 친밀감은 다시 증가했지만 한국에 대한 친밀감은 하락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조사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가운데 남성, 전문학교, 당원 출신에서 두드러졌다. 2013년에서 2015년 동안 감소추세였던 대중친밀감이 북중 간의 정치적 냉각과 중국의 대북제재 참여에도 불구하고 다시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대중친밀감 상승은 대남친밀감 하락의 반대급부일 수 있다. 즉, 대북제재 국면, 개선되지 않는 남북관계 등으로 인한 부정적인 인식 확대가 중국에 대한 선호로 기울어지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북한주민들의 대중호감도가 앞으로

도 지속될 수 있을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이 북중교역의 절대성 및 의존성에 대한 인식인지, 중국이 북한의 '마지막 보루' 혹은 '믿을만한 유일한 파트너'라는 기대심리인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미국에 대한 위협인식은 현저히 증가한 반면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은 감소하였다. 이는 남성, 당원출신, 대학 학력 배경 응답자들에서 분명히 나타났다. 북미관계 단절, 제재로 인한 가중된 압박, 군사적 위협 등에 대한 반응이 표면적으로 드러났을 가능성이 크다.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의 대중위협도는 미중 대립/경쟁구도에서 미국에 대한 적대인식의 구조적인 반작용일 가능성도 있어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셋째, 미국을 가장 위협적으로, 중국을 가장 친밀하게 인식하지만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통일을 원하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럼에도 한반도의 통일과 북한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국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판단하였다. 남북경협이 중단되고 경색국면이 지속되고 있지만 북한의 경제적 이익과 통일의 목표를 위해서는 한국과 가까워져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본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고려할 때 북한이탈주민의 제한된 표본을 가지고 북한주민 전체의 인식으로 일반화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그렇지만 간접적인 방식을 통해 북한주민들의 주변국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시기적으로 그리고 북한의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화 혹은 지속되고 있는지 관찰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북한주민 의식이 집단적으로 정형화 되어 있지 않고 사안에 따라 개인적 인식의 분화가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김정은 정권의 대외정책 방향, 확산되고 있는 북한의 시장화와 정보화의 진행 여부, 제재 이후의 북한 내부 경

제상황 등은 앞으로의 북한주민들의 대외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을 둘러싼 주변국들 또한 중요한 변화에 직면해 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공식 출범되었고 중국은 2017년 하반기에 시진핑 2기 체제를 시작한다. 한국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될 경우 북한과의 관계 재설정을 추진할 수 있다. 북한 핵능력 고도화로 인한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더없이 엄중해진 상황에서 북한의 주변국 관계 인식에 대한 신중한 해석과 면밀한 관찰이 요구된다.



제6장 남한적응실태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제6장 남한적응실태

1. 서론

2016년 11월을 기점으로 해서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은 3만 명을 넘어섰다. 이 시점이 되기 이전부터 ‘북한이탈주민 3만 명 시대’라는 어구는 이미 꾸준히 언론을 통해서 언급되며 홍보의 효과를 가져왔다. 마침내 그 표어가 현실이 된 지금, 과연 남한사회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적응에 대하여 얼마나 효율적으로 고민하고 대처하여 왔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 사회에서 다른 사회로 이주하여 정착하는 과정은 단순히 정책의 방향이나 현상에 대한 기술적 수치만으로 설명되거나 이해될 수 있는 사안 이 아니다. 한 국가 내에서 이주하는 경우에도 지역적 차이나 사회문화적 차이로 인해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을 생각할 때, 국가 간의 이주, 특히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처럼 체제 및 문화의 차이가 큰 사회로 이주한 경우에는 정착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보다 다층적이고 복합적일 수 있다. 최근의 연구 경향을 보면 북한이탈주민을 넓은 의미에서의 이주민으로 범주화하여, 그들의 이주 동기를 정치적인 영역에 국한하지 않고 경제적, 사회적인 부분까지 포함하는 바가 늘어나고 있다. 동기의 복합성은 이후 정착과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새로운 연구의 방향성은 적응실태를 다면적으로 조명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본 장에서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2016년에 북한이탈주민 138명에게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에서의 적응과정을 진단해 보고자 한다. 통일평화연구원의 설문조사는 지난 2011년 이래 매년 시행됐으며, 북한주민이라는 모집단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최대한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탈북한지 1년 이내인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모집단에 대한 표본으로 삼기에는 조사 대상의 수가 크지 않고 남한 입국 전의 다양한 경험들에 대한 평가가 조사 내용에 포함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남북이 분단되어 있어 북한사회에 대한 접근 자체가 제한적인 현 상황에서 북한주민의 의식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조사대상인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를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또한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축적되어온 본 조사의 결과는 장기적인 추세와 유형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써 활용될 여지가 높다고 하겠다.

2. 남한주민에 대한 친근감과 남한사회의 포용성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서 정착한다는 것은 결국 이들이 남한주민들과 접촉하고 상호작용을 맺으며 생활하는 일련의 과정을 일컫는다. 이 과정에서 남한사회와 주민에 대해 북한이탈주민들이 기대하고 느끼고 경험한 바를 알아보기 위해 “귀하는 남한출신 주민이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

십니까?”와 “귀하는 남한에 살면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 남한사람들이 얼마나 포용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조사에 포함시켰다. 이 질문에 대한 최근 5년간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6-1〉 남한주민에 대한 친근감

(단위: %)

	2012	2013	2014	2015	2016
매우 친근하게 느껴진다	35.4	42.9	33.6	39.3	44.2
다소 친근하게 느껴진다	54.3	44.4	57.0	52.4	46.4
별로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9.5	12.0	9.4	7.6	8.0
전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0.8	0.0	0.0	0.7	1.4
합계(명)	127	133	149	145	138

〈표 6-1〉에서 보듯이, 전체 138명의 응답자 중 남한주민이 ‘매우 친근하게 느껴진다’라고 응답한 수는 전체는 44.2%로 최근 5년간의 조사 중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소 친근하게 느껴진다’는 46.4%로, 정도별로 친근함을 느끼는 집단의 전체 비율은 90.6%로 지난 5년간의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지속적인 추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질문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인 ‘별로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8.0%와 ‘전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1.4%로 나타나, 2013년 이래 이 역시 별다른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표 6-2〉 남한주민의 포용성에 대한 인식

(단위: %)

	2012	2013	2014	2015	2016
매우 포용적이다	20.6	24.8	24.2	20.5	31.9
약간 포용적이다	50.0	54.9	52.3	52.1	44.2
별로 포용적이지 못하다	27.8	19.5	21.5	27.4	22.5
전혀 포용적이지 못하다	1.6	0.8	2.0	0.0	1.4
합계(명)	126	133	149	146	138

전체적인 수치에 큰 변동 없이 긍정적인 답변에서 강한 긍정의 비율이 높아진 추세는 “남한주민의 포용성”에 대한 답변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이 된다. 남한주민이 포용적이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한 전체 비율은 76.1%로 2015년의 72.6%, 2014년의 76.5%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지만 강한 긍정(‘매우 포용적이다’)으로 답변한 비율은 지난 5년간의 조사 중에 가장 높게 나타나며 전년 대비 55%의 상승률을 보인다. 긍정과 부정의 비는 유사하게 유지되고 있더라도 그 안에서 강한 긍정이 더 강세를 보이는 점은 바람직한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

〈표 6-3〉 남한주민에 대한 친근감과 남한주민의 포용성 교차표(2016)

(단위: 명(%))

	매우 포용적	다소 포용적	별로 포용적이지 못함	전혀 포용적이지 못함	합계
매우 친근함	37(60.7)	18(29.5)	5(8.2)	1(1.6)	61(100.0)
다소 친근함	7(10.9)	39(60.9)	18(28.1)	0(0.0)	64(100.0)
별로 친근하지 않음	0(0.0)	3(27.3)	7(63.6)	1(9.1)	11(100.0)
전혀 친근하지 않음	0(0.0)	1(50.0)	1(50.0)	0(0.0)	2(100.0)
합계	44(31.9)	61(44.2)	31(22.5)	2(1.4)	138(100.0)

이 두 질문에 대한 응답을 위와 같이 교차표로 나타내어 분석해 보면 북한이탈주민이 느끼는 남한주민에 대한 친근감과 남한주민의 포용성 간에 대략적인 정비례 관계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즉, 남한주민을 매우 친근하게 여긴다고 답한 이들의 60.7%는 남한주민의 포용성도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다소 친근하게 여긴다고 답한 이들의 60.9%는 다소 포용적이라는 응답을 내어놓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적응을 이해하기 위해 이 교차분석표에서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은 이러한 상관관계에서 벗어나 있는 수치들이다. 남한주민에 대해 친근감을 보였으나(‘매우 친근함’, ‘다소 친근함’) 남한주민의 포용성은 낮게 평가(‘별로 포용적이지 못함’, ‘전혀 포용적이지 못함’)한 응답자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 수치들이 지니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친근감”과 “포용성”이라는 지표 자체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 이 두 지표는 유사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으나 정서적 수준에서의 반응과 현실에서의 경험이라는 중요한 차이에 기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친근함”이라는 것은 다소 추상적이고 감정에 기반한 가치라고 생각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주민에 대해 가지는 친근감은 같은 언어를 쓰고 역사적 경험과 문화적 전통을 공유하는 같은 민족이라는 정서적 유대감을 “남한주민”이라는 전체 집단에 투사한 결과로 해석 가능하다. 이에 비해 “포용성”이라는 것은 “친근감”처럼 불특정 다수에 대한 막연한 감정이라기보다는, 현실에서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례들로부터 얻어진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친근감”과 “포용성”에 대한 두 질문의 응답을 구분 짓는 또 하나의 접근은 전자를 전체집단에 투사되는 감정으로, 후자는 남한주민으로 일컬어지는 “남한사회”의 열린 정도, 받아들이는 정도에 대한 실제적 반응으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틀 안에서는 “남한주민에 대해 느끼는 친근감”이 남한사회 구성원들을 향한 선형적 관점이라고 한다면, “남한주민에 대해 느끼는 포용성”은 남한사회를 경험한 것에 대한 결과적 반응으로 파악할 수 있다.

“친근감”과 “포용성”이라는 두 지표를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해할 때, 앞서 언급했던, 이 두 지표 간에 어긋나는 수치들이 지니는 함의를 헤아려볼 여지가 조금 더 명확해진다. 남한 주민을 ‘매우 친근하다’ 혹은 ‘다소 친근하다’고 느끼면서 남한주민의 포용성에는 부정으로 대답한 경우(‘별로 포용적이지 못함’, ‘전혀 포용적이지 못함’)는 전체 응답자 138명 중 24명으로 17.4%를 차지한다. 이 수치는 전체 1/5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소수 의견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그 사례가 의미하는 바를 생각한다면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 친근감과 포용성을 동일하게 여기는 이들에 비해, 친근감에서는 긍정적으로 대답하였으나 포용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응답을 한 이들에 더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이들이 남한사회 혹은 남한 주민에 대해 가졌던 막연한 기대감과 정서적 유대감과 일치하지 않는 “부정적” 현실 경험을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남한에 대해 막연하게나마 가까운 감정적 거리를 유지하고 있던 북한이탈주민들이 그러한 생각에 반하는 현실적 경험을 하게 된다면, 이는 남한사회의 적응과정에서 상당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친근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응답한 이들이 포용성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게 된 것이 북한이탈주민 관련 제도상의 미비점 때문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상호작용에서의 바람직하지 않은 경험 때문인지는 조사상의 문항과 응답만을 통해 파악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에서의 적응도

를 살펴볼 때, 친근감과 포용성에서 불일치가 일어나는 사례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이에 대한 심층적인 접근을 통해 그러한 불일치가 나타나게 된 배경 및 원인을 파악하려는 노력과 그에 따른 대처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3. 북한이탈주민의 자기정체성, 남한사회에서의 만족도

자기정체성이란 나(우리)를 다른 사람(다른 집단)과 구별하게끔 하는 가치에 대한 자기 판단을 말한다. 정체성은 한 가지 기준으로만 구성되지 않기 때문에 한 개인은 문화정체성, 국가정체성, 민족정체성 등 다양한 정체성을 동시에 지니게 된다.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실시하는 북한주민 통일외식 조사에서는 정체성과 관련하여 “귀하는 남한에서 살게 된 이후 자신이 북한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남한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 문항만을 놓고 볼 때, 이것이 문화적인 차원에서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인지, 정치적인 차원에서의 정체성을 일컫는 것인지, 혹은 정치와 문화, 사회적 정체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인지는 다소 불명확하다. 이에 대해 응답한 조사대상자들이 이 질문에서 말하는 “남한사람,” “북한사람”을 어떠한 식으로 받아들이고 답변의 항목을 선택하였는지 역시 논의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표 6-4〉 북한이탈주민들의 자기정체성

(단위: %)

	2012	2013	2014	2015	2016
나는 남한사람이다	64.3	63.9	67.8	68.5	68.1
나는 북한사람이다	31.0	31.6	26.2	26.7	23.9
나는 남한사람도 북한사람도 아니다	4.8	4.5	6.0	4.8	8.0
합계 (N)	126	133	149	146	138

〈표 6-4〉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68.1%가 스스로를 ‘남한사람이다’라고 대답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남한 사람(혹은 마찬가지로 ‘북한 사람’에도 적용된다) 이라 함은 단순히 국적을 말하는가? 아니면 국적을 넘어서서 사회문화적으로 남한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는 사람을 말하는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 근거한 결론인가? 가치의 준거집단에 대한 선택인가? 스스로에 대한 자기 확신인가? 아니면 이제 탈북하여 남한에 들어왔으니 남한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한 선언인가? 68.1%에 해당하는 응답자 모두가 이에 완전한 합의를 보고 동일한 기준으로 답변하였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하지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한 개인이 다층의 정체성을 지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문항은 응답자가 남한사회의 사회, 문화, 체제, 경제 등의 여러 방면에 대하여 스스로를 얼마나 가깝다고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서의 가치를 지닌다고 하겠다.

〈표 6-5〉 남한주민에 대한 친근감과 북한이탈주민의 자기정체성 교차표(2016)

(단위: %)

	매우 친근함	다소 친근함	별로 친근하지 않음	전혀 친근하지 않음	합계
남한사람이다	46(75.4)	42(65.6)	5(45.5)	1(50.0)	94(68.1)
북한사람이다	13(21.3)	16(25.0)	3(27.3)	1(50.0)	33(23.9)
둘다 아니다	2(3.3)	6(9.4)	3(27.3)	0(0.0)	11(8.0)
합계	61(100.0)	64(100.0)	11(100.0)	2(100.0)	138(100.0)

〈표 6-6〉 남한주민의 포용성과 북한이탈주민의 자기정체성 교차표(2016)

(단위: %)

	매우 포용적	다소 포용적	별로 포용적이지 못함	전혀 포용적이지 못함	합계
남한사람이다	35(79.5)	40(65.6)	18(58.1)	1(50.0)	94(68.1)
북한사람이다	6(13.6)	16(26.3)	11(35.5)	0(0.0)	33(23.9)
둘다 아니다	3(6.8)	5(8.2)	2(6.5)	1(50.0)	11(8.0)
합계	44(100.0)	61(100.0)	31(100.0)	2(100.0)	138(100.0)

북한이탈주민의 자기 정체성이 “남한주민에 대한 친근감”과 “남한주민의 포용성”과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작성한 위의 두 교차표를 보면, 친근감과 포용성에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경우 스스로를 남한사람이라고 규정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이를 통해 남한 주민 및 사회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남한사람”으로서의 정체성 간의 관계는 긴밀한 것으로 보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와 동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은 남한 주민과 사회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을 한 경우에도 (비율은 다소 낮아지기는 하지만) 스스로를 남한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북한사람이라고 생각하

는 경우보다 여전히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지난 5년간의 추이를 보더라도 남한사람으로 자기규정을 하는 비율이 전체 65% 내외에서 큰 편차 없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탈북 후 북한주민들이 보이는 정체성이 상황적인 부분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탈북 후 1년 미만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북한주민들이 높은 비율로 “남한사람”이라는 자기규정을 한다는 점은, 이러한 정체성이 내적 가치기준이라기보다는 외적 환경에 연유한 규범적 사고의 측면을 보여준다는 추론의 여지를 남긴다. 탈북 후 1년 미만이라는 시간적 조건과 입국 초기에 경험하게 되는 밀도 높은 남한적응 교육이 “남한사람”으로서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치는지를 보다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같은 집단에 대해 시차를 두고 추적조사를 하여 응답에 나타나는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이다.

〈표 6-7〉 남한사회에서의 생활 만족도

(단위: %)

	2012	2013	2014	2015	2016
매우 만족한다	38.6	44.4	38.9	41.8	49.3
대체로 만족한다	33.9	34.6	41.6	37.7	26.8
보통이다	25.2	18.1	15.4	16.4	21.7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2.4	2.3	2.0	4.1	2.2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0.0	0.8	2.0	0.0	0.0
합계(명)	127	133	149	146	138

남한사람 혹은 북한사람 중에 양자선택을 하게끔 하는 규범적인 사고와 대비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에서의 생활에서 느끼게 되는 실제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북한주민 통일의식 조사에서는 2012년부터 “현재 남한에서의 생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2016년에는 49.3%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매우 만족한다’를, 26.8%는 ‘대체로 만족한다’를 선택하여 긍정의 답변이 76.1%에 달했다. ‘매우 만족’과 ‘대체로 만족’을 더한 비율은 2013년 79.0%, 2014년 80.5%, 2015년 79.5%였으며 2016년에는 최근 5년 중에 강한 긍정인 ‘매우 만족한다’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6-8〉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 (단위: %)

	2012	2013	2014	2015	2016
매우 만족한다	43.3	55.6	56.8	65.8	69.6
대체로 만족한다	42.5	31.6	31.1	23.3	23.2
보통이다	11.0	11.3	8.8	8.9	5.8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3.1	0.8	2.0	1.4	0.7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0.0	0.8	1.4	0.7	0.7
합계(명)	127	133	148	146	138

“남한에서의 생활 만족도”가 다소 광범위한 영역을 상징한 질문이라면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남한으로 입국한 북한주민들이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구체적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묻고 있다. 2016년 조사결과를 보면, 같은 문항에 대한 최근 5년간의 응답 중 가장 높은 비율로 만족도가 나타났다. ‘매우 만족한다’는 69.6%, ‘대체로 만족한다’는 23.2%이며 중립적(‘보통이다’)이거나 불만족(‘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인 의견의 비율도 2012년 이래 가장 낮

은 비율을 기록하였다. 조사대상의 수가 비교적 작고, 비율의 상승 수치가 엄청나게 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결과만을 두고 북한이탈 주민정책이 2016년에 매우 성공을 거두었다고는 단언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지난 5년간의 추세를 본다면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지속적 상승세, 불만족도 역시 꾸준히 감소세라는 매우 바람직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더 나아가 단순히 만족 혹은 불만족을 묻는 데서 그치지 않고, 만족하였다면 지원정책의 어떠한 부분에 만족하였는지,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하게는 불만족스러웠던 부분은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한 세부 질문이 병행된다면 정책 수혜자로서 남한 내 북한주민들이 직접 겪었던 경험과 어려움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지원정책이 현장에서 체감될 때의 문제점이나 미비점에 대한 대응과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실제 정책 대상자들의 만족도를 의미 있는 차원에서 높이는 것 역시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한다.

〈표 6-9〉 남한에서의 생활만족도와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 교차표(2016) (단위: %)

		남한에서의 생활만족도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별로 만족하지 않음	전혀 만족하지 않음	합계
탈북자 지원정책 만족도	매우 만족	62(64.6)	28(29.2)	6(6.3)	0(0.0)	0(0.0)	96(100.0)
	대체로 만족	5(15.6)	7(21.9)	17(53.1)	3(9.4)	0(0.0)	32(100.0)
	보통	1(12.5)	2(25)	5(62.5)	0(0.0)	0(0.0)	8(100.0)
	별로 만족하지 않음	0(0.0)	0(0.0)	1(100.0)	0(0.0)	0(0.0)	1(100)
	전혀 만족하지 않음	0(0.0)	0(0.0)	1(100.0)	0(0)	0(0.0)	1(100.0)
	합계	68(49.3)	37(26.8)	30(21.7)	3(2.2)	0(0.0)	138(100.0)

〈표 6-10〉 남한사회에서의 취업형태

(단위: %)

취업형태	2012	2013	2014	2015	2016
정규직 근로자	33.1	9.0	9.5	3.4	13.8
계약직 근로자	1.7	3.8	6.8	2.7	8.0
일용직 근로자	5.0	9.0	4.7	6.8	5.8
고용자	0.0	0.0	0.0	0.7	0.7
자영업자	2.5	0.8	0.7	1.4	0.0
실업자	8.3	21.8	14.2	15.1	5.8
비경제활동인구	49.6	55.6	64.2	69.9	65.9
합계(명)	121	133	148	146	138

남한에서의 북한주민 취업형태를 보면 비경제활동인구가 65.9%에 달하며, 이는 지난 3년간 비슷한 정도로 유지되고 있다. 조사대상자가 탈북한 지 1년 미만의 북한주민들이기 때문에 이들 중 다수가 3개월간의 하나원 생활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고 직업훈련의 단계나 구직상황에 있을 것을 고려한다면, 당장의 비경제활동인구의 수치가 높음을 심각하게 우려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정규직이나 계약직 근로자의 수치가 2016년에 높아진 점, 그리고 실업자의 비율이 현저하게 낮아진 점 등은 주목할 만하다. 남한사회에의 적응도를 알아보기 위한 취업 관련 분석을 한다면 오히려 1년 이후, 즉, 직업 훈련 기간이 줄어들고 실제로 근로현장에 투입되는 시점에 조사를 하는 것이 유의미할 것이다. 또한 현재의 취업상태를 확인하는 것보다 이후 취업이 얼마나 지속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직 현황과 이직분야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조사하는 것이 북한주민의 남한사회에서의 성공적 정착도를 가늠하는 지표를 마련하는 길이 될 것이다.

4. 소결

민족의 명절이라고 불리는 구정 연휴를 하루 앞둔 2017년 1월 27일, 새터민 부부가 음독하여 아내는 사망하고 남편은 중태에 빠진 사건이 신문지상에 보도되었다. 이러한 비극적 사건은 북한주민이 남한적응에 실패한 극단적 예로 우리에게 전해지곤 한다. 반대로 방송에 출연하며 연예인 급의 유명세를 타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우가 성공적 적응의 예로 언급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하지만 적응과 부적응은 단순한 혹은 극단적인 이분법으로 설명될 수 있지 않으며, 단기적인 정책을 통해 급작스럽게 성취되는 것도 아니다. 적응은 사건이 아니라 과정이며, 타인들과의 꾸준한 상호작용을 통해 일상생활의 장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남한에 들어온 북한주민들은 매일의 삶을 통해 새롭거나 익숙지 않은 남한의 제도와 문화를 접하게 되고, 교육과 교류를 통하여 이러한 낯설음을 줄여가며 남한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을 거친다. 북한주민이 남한에 정착하는 경우, 외모의 유사성, 언어의 동질성, 문화의 공유성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다른 이주민들에 비해 적응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으로 생각되기도 한다. 하지만 같은 언어를 쓰고 외양으로 구분이 어렵다는 점이 오히려 문제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서로 간의 유사성, 혹은 동질할 것이라고 여겨지는 부분 때문에 오히려 적응이 수월할 것으로 기대하는 차원이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양측에 존재하지만, 준비나 근거도 없는 막연한 높은 기대치는 오히려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한주민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다른 북한 주민들에 대해 편견이나 오해를 가질 수 있고, 북한주민 입장에서는 예상과는 다른 남한 사회에 대해 좌절

이나 배신감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남한에서의 북한주민의 원활한 적응을 위해서는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양측에 서로의 다름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고, 그로부터 다양성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며 서로 간에 이해를 쌓아가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본 장에서는 남한에서의 북한주민의 적응실태를 북한주민이 남한주민과 사회에 대해 가지는 생각(남한주민에게 느끼는 친근감, 남한사회의 포용성)과 스스로의 생활에 대해 느끼는 감정(남한에서의 생활 만족도,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이라는 두 가지 큰 축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본문에서 제시한 조사결과를 통해 남한의 북한주민들이 이러한 질문들에 긍정적으로 대답하는 비율은 꾸준히 높거나 다소 더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주민의 남한적응 실태를 살펴보기 위한 양적 조사는 차원에서 볼 때 조사대상의 크기가 작다는 점이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지만,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북한주민의 생각과 의견을 기층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되는 조사라는 점에서 그 나름의 의의를 갖는다고 하겠다. 다만 앞으로 본 조사의 효용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본문에서 다룬 문항에 대한 세부 문항들이 개발되어 양적조사에서 간과하기 쉬운 다양한 의견의 스펙트럼을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현재 남한 입국 1년 미만 북한주민으로 제한되어 있는 조사대상에 대한 지속적 추적조사를 시행하여 그 발달과 변화 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면,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여러 이슈들을 현실적으로 진단하고 향후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7장 결장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제7장 결장

북한주민의 통일외식에 관한 조사는 현재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할 수 없으므로, 북한을 이탈하여 남한에 입국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엄밀하게 말하면 방법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나, 응답자들에게 북한으로부터의 이탈 직전의 상황에 바탕을 두고 응답하도록 함으로써 이런 문제점을 최소화하려고 하였다.

북한주민의 통일외식은 전반적으로 남한주민의 통일외식에 비해 동질적이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남한주민의 외식은 정권 교체나 남북한의 국내적·국제적 정세에 따라 상당히 가변적인 모습을 보이고, 특히 최근에는 세대별, 이념별, 그리고 정파별로 그 차이가 심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지금까지 파악된 북한주민의 통일외식은 전반적으로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북한 당국의 공식적 통일정책과 담론을 추종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2016년의 조사에서도 북한주민의 통일외식은 기존에 나타난 특성들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범위 안에서 일시적인 변화들이 포착되었다.

그렇다면 2016년에 나타난 조사결과의 특징은 무엇인가? 먼저 북한 이탈주민의 통일과 통일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소폭 증가한 가운데,

남한을 적대적으로 보는 부정적 인식 역시 다소 증가하였다. 이러한 부정적 태도의 증가는 크게 보면 남북관계의 악화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2015년 8월 북한의 DMZ 목함 지뢰 설치 사건으로 촉발된 안보 위기와 그로 인한 남북관계의 경색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조사대상이 된 북한이탈주민이 2015년에서 2016년 초까지 북한을 떠난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2015년 여름 이후 악화되기 시작한 남북관계가 이들의 통일과 남한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는 2016년 1월 갑작스레 진행된 제4차 핵실험과 9월에 실시된 제5차 핵실험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북한은 기존의 핵실험의 성과에 바탕을 두고 지속적으로 핵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으려고 노력해왔는데, 이런 움직임은 국제사회의 지탄과 함께 미국과 유엔의 강도 높은 경제제재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국제관계의 변화는 북한주민들의 주변국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예년보다 중국을 가깝게 여기는 태도가 증가했지만, 미국과 한국에 대한 친밀감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주변국에 대한 인식의 경우, 한 나라에 대한 태도는 다른 나라들에 대한 태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개별 국가에 대한 인식을 따로 보기보다는 여러 나라들 간의 상대적 거리를 함께 생각하여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에 대한 우호적 인식의 증가가 중국을 북한이 가진 최후의 보루로 생각하여 그에 대한 친밀감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조사에서도 드러난 남한과 미국에 대한 거리감의 증대로 인한 반사효과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북한의 핵실험 이후 우리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등으로 미중 및 북미관계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을 볼 때, 북한

주민들이 미국보다 중국을 상대적으로 더 가까이 여기는 경향은 앞으로도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북한은 사회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였다. 북한을 다녀온 몇몇 관찰자들에 의해 평양과 국경지대의 경제사정이 호전되고 있다는 보고도 나오고 있지만, 이와 달리 본 조사에서는 사적 부문의 경제활동이 축소됨에 따라 주민들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있고, 무소득자의 비중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듯 소득 불평등 역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의 효과가 없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북한 내부의 경제 상황이 예년보다 악화되었음을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상황의 악화가 김정은 체제의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아 보인다. 김정은은 2012년 권력승계 이후 대규모 숙청과 강도 높은 공포정치를 통해 내적통제 강화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힘써왔다. 동시에 주민생활의 생활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광범위하게 선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반영하듯, 올해의 조사에서 주민들의 타지역 이동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한류의 확산과 함께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던 남한문화의 접촉 빈도 역시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 문화적 통제의 강화조치가 부분적으로 효과를 보고 있음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이와 더불어 북한주민들의 정치사회화 정도 역시 예년에 비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체사상에 대한 자부심과 김정은에 대한 지지도가 2015년의 결과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렇듯 김정은 정권이 여러 대내외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내치를 통한 체제의 내구성을

보여주면서, 북한주민들 사이에서 통일에 대한 비관론이 계속해서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김정은 정권이 본격화된 2012년 이후 '통일이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계속하여 40% 중반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북한주민의 인식은 남북한의 상황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에 영향을 받으면서 일정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서두에도 언급하였듯이 이러한 변화는 지난 몇 년간 지속되어 온 큰 경향을 뒤흔들 만큼의 변화는 아니다. 통일에 대한 필요성과 염원이 소폭 감소하고 남한을 적대적으로 보는 시각이 예년에 비해 증가하였다고는 하나, 여전히 대다수의 북한주민들은 통일을 간절히 원하고 있고, 남한을 적이라기보다는 협력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북한 내부의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통일이 북한사회의 물질적 어려움을 해소시켜 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통일을 바라고 있으며, 남한 체제의 우수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남한 방식에서의 통일을 인정하는 가운데, 사회주의와 집단주의 보다는 자본주의와 개인주의적 가치를 선호하는 경향이 올해의 조사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또한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경제협력과 사회문화교류 등의 정책에 대해서는 비관적 시각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이러한 정책들이 통일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가 유지되고 있다. 특히 남북 사이에 정기적인 회담을 통해 경색된 남북관계의 물꼬가 트이기를 많은 사람들이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커다란 경향이 유지되는 가운데, 2015년 이후 최근 들어 더 진전되고 있는 남북 관계의 위기와 국제사회의 제재가 북한주민들의 통일인식을 어느 정도 부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인 것 또한 사실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가 과연 일시적으로 끝날지, 아니면 앞으로도 지속될지는 남북관계와 국제정세의 상황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북한주민들의 의식과 더불어 중요하게 바라보아야 할 것이 바로 탈북주민들의 남한사회 적응과 만족도에 관한 문제이다. 서로 다른 정치체제와 문화 속에서 평생을 살아온 두 집단이 제도를 넘어 심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화합을 이루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탈북자 3만명’ 시대에 들어선 현재, 어떻게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 풍토를 진작시키고 통합을 이루어갈 것인지는 한국 사회가 당면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나 중국의 조선족과 함께 북한이탈주민들의 규모 역시 점차 커짐에 따라, 이들을 남한사회에 적절하게 통합시키고 이질감이나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은 향후 통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보다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도 올해의 조사결과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에 대해 느끼는 친밀감과 포용성은 예년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생활과 정부의 지원에 대한 만족도 역시 긍정적 답변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이 되면 북한에서 살 것’이라는 응답이 올해 들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생활을 여전히 타향살이로 여기고 있고, 한국 사회로의 완전한 동화는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진정한 사회적 통합은 무엇보다도 서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본 조사는 북한주민 및 탈북민들의 삶과 의식에 대한 이해의 기초를 마련하고, 이들을 위한 최선의 정책이 무엇인지를 토론하게 하는 자극제가 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

으로 사회적 통합의 수준을 높이고, 이들의 삶의 질을 고양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북한이탈주민들의 기대와 필요에 근거하여 적절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이 언젠가는 닥쳐 올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가장 효과적인 길일 것이다.



부록

집계표 2016

설문지 2016

통일의 필요성

문1)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매우 필요하다	약간 필요하다	반반/ 그저 그렇다	별로 필요 하지 않다	전혀 필요 하지 않다
		0%[0]	89.1%(123)	5.8%(8)	3.6%(5)	1.4%(2)	0%[0]
성별	남자	0.0	90.6	9.4	0.0	0.0	0.0
	여자	0.0	88.2	3.5	5.9	2.4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0.0	0.0	0.0	0.0	0.0
	20대	0.0	82.7	9.6	5.8	1.9	0.0
	30대	0.0	100.0	0.0	0.0	0.0	0.0
	40대	0.0	85.3	8.8	5.9	0.0	0.0
	50대	0.0	93.8	0.0	0.0	6.3	0.0
	60대	0.0	100.0	0.0	0.0	0.0	0.0
	70대	0.0	100.0	0.0	0.0	0.0	0.0
	80대	0.0	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83.3	5.6	5.6	5.6	0.0
	전문학교	0.0	100.0	0.0	0.0	0.0	0.0
	고등학교	0.0	88.3	6.8	3.9	1.0	0.0
	인민학교	0.0	100.0	0.0	0.0	0.0	0.0
	무학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92.3	3.8	3.8	0.0	0.0
	후보당원	0.0	0.0	0.0	0.0	0.0	0.0
	비당원	0.0	88.4	6.3	3.6	1.8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0.0	89.5	4.2	4.2	2.1	0.0
	없다	0.0	88.4	9.3	2.3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88.9	5.6	2.8	2.8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90.0	7.1	2.9	0.0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87.5	3.1	6.3	3.1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0.0	90.5	4.8	3.6	1.2	0.0
	없다	0.0	87.0	7.4	3.7	1.9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0.0	87.9	8.6	1.7	1.7	0.0
	결혼(동거 포함)	0.0	90.8	4.6	4.6	0.0	0.0
	이혼	0.0	86.7	0.0	6.7	6.7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북한주민 통일외지

문2) 귀하는 북한주민이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되기를 얼마나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매우 원한다	약간 원한다	별로 원하지 않는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전혀 필요 하지 않다
		0%[0]	88.4%(122)	6.5%(9)	5.1%(7)	0%[0]	0%[0]
성별	남자	0.0	96.2	0.0	3.8	0.0	0.0
	여자	0.0	83.5	10.6	5.9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0.0	0.0	0.0	0.0	0.0
	20대	0.0	84.6	9.6	5.8	0.0	0.0
	30대	0.0	96.9	3.1	0.0	0.0	0.0
	40대	0.0	85.3	5.9	8.8	0.0	0.0
	50대	0.0	87.5	6.3	6.3	0.0	0.0
	60대	0.0	100.0	0.0	0.0	0.0	0.0
	70대	0.0	100.0	0.0	0.0	0.0	0.0
	80대	0.0	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94.4	0.0	5.6	0.0	0.0
	전문학교	0.0	87.5	12.5	0.0	0.0	0.0
	고등학교	0.0	88.3	5.8	5.8	0.0	0.0
	인민학교	0.0	0.0	100.0	0.0	0.0	0.0
	무학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96.2	3.8	0.0	0.0	0.0
	후보당원	0.0	0.0	0.0	0.0	0.0	0.0
	비당원	0.0	86.6	7.1	6.3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0.0	88.4	7.4	4.2	0.0	0.0
	없다	0.0	88.4	4.7	7.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88.9	2.8	8.3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90.0	5.7	4.3	0.0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84.4	12.5	3.1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0.0	90.5	6.0	3.6	0.0	0.0
	없다	0.0	85.2	7.4	7.4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0.0	84.5	10.3	5.2	0.0	0.0
	결혼(동거 포함)	0.0	90.8	4.6	4.6	0.0	0.0
	이혼	0.0	93.3	0.0	6.7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통일 이유

문3)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같은 민족이니까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 해주기 위해	남북간에 전쟁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	북한주민이 잘 살 수 있도록	북한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기타
		0%[0]	30.4%(42)	8.7%(12)	12.3%(17)	42.0%(58)	4.3%(6)	2.2%(3)
성별	남자	0.0	39.6	3.8	13.2	32.1	5.7	5.7
	여자	0.0	24.7	11.8	11.8	48.2	3.5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0.0	0.0	0.0	0.0	0.0	0.0
	20대	0.0	23.1	7.7	11.5	53.8	1.9	1.9
	30대	0.0	28.1	9.4	15.6	37.5	6.3	3.1
	40대	0.0	44.1	8.8	8.8	32.4	2.9	2.9
	50대	0.0	18.8	12.5	12.5	43.8	12.5	0.0
	60대	0.0	100.0	0.0	0.0	0.0	0.0	0.0
	70대	0.0	0.0	0.0	100.0	0.0	0.0	0.0
	80대	0.0	0.0	0.0	0.0	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22.2	11.1	22.2	27.8	11.1	5.6
	전문학교	0.0	43.8	0.0	6.3	43.8	6.3	0.0
	고등학교	0.0	30.1	8.7	11.7	44.7	2.9	1.9
	인민학교	0.0	0.0	100.0	0.0	0.0	0.0	0.0
	무학	0.0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46.2	3.8	7.7	38.5	0.0	3.8
	후보당원	0.0	0.0	0.0	0.0	0.0	0.0	0.0
	비당원	0.0	26.8	9.8	13.4	42.9	5.4	1.8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0.0	27.4	8.4	11.6	46.3	4.2	2.1
	없다	0.0	37.2	9.3	14.0	32.6	4.7	2.3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33.3	8.3	16.7	33.3	2.8	5.6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32.9	10.0	10.0	40.0	5.7	1.4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21.9	6.3	12.5	56.3	3.1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0.0	35.7	10.7	7.1	39.3	4.8	2.4
	없다	0.0	22.2	5.6	20.4	46.3	3.7	1.9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0.0	29.3	8.6	10.3	48.3	1.7	1.7
	결혼(동거 포함)	0.0	32.3	9.2	13.8	33.8	7.7	3.1
	이혼	0.0	26.7	6.7	13.3	53.3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통일시기

문4)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언제쯤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5년 이내	10년 이내	20년 이내	30년 이내	30년 이상	불가능 하다
		0%[0]	13.0%(18)	31.9%(44)	6.5%(9)	2.2%(3)	2.2%(3)	44.2%(61)
성별	남자	0.0	11.3	30.2	7.5	0.0	1.9	49.1
	여자	0.0	14.1	32.9	5.9	3.5	2.4	41.2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0.0	0.0	0.0	0.0	0.0	0.0
	20대	0.0	9.6	28.8	3.8	5.8	1.9	50.0
	30대	0.0	15.6	28.1	12.5	0.0	0.0	43.8
	40대	0.0	14.7	38.2	2.9	0.0	5.9	38.2
	50대	0.0	6.3	31.3	12.5	0.0	0.0	50.0
	60대	0.0	33.3	66.7	0.0	0.0	0.0	0.0
	70대	0.0	100.0	0.0	0.0	0.0	0.0	0.0
	80대	0.0	0.0	0.0	0.0	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학력	대학교	0.0	11.1	33.3	11.1	0.0	0.0	44.4
	전문학교	0.0	6.3	31.3	6.3	6.3	0.0	50.0
	고등학교	0.0	14.6	32.0	5.8	1.9	2.9	42.7
	인민학교	0.0	0.0	0.0	0.0	0.0	0.0	100.0
	무학	0.0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15.4	30.8	0.0	3.8	0.0	50.0
	후보당원	0.0	0.0	0.0	0.0	0.0	0.0	0.0
	비당원	0.0	12.5	32.1	8.0	1.8	2.7	42.9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장사여부	있다	0.0	12.6	35.8	6.3	2.1	2.1	41.1
	없다	0.0	14.0	23.3	7.0	2.3	2.3	51.2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11.1	25.0	5.6	2.8	2.8	52.8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15.7	34.3	8.6	2.9	1.4	37.1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9.4	34.4	3.1	0.0	3.1	5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남한친인척	있다	0.0	11.9	38.1	6.0	2.4	1.2	40.5
	없다	0.0	14.8	22.2	7.4	1.9	3.7	5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혼인	미혼	0.0	13.8	31.0	3.4	3.4	1.7	46.6
	결혼(동거 포함)	0.0	10.8	35.4	10.8	1.5	1.5	40.0
	이혼	0.0	20.0	20.0	0.0	0.0	6.7	53.3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통일 개인 이익

문5) 그럼 귀하는 통일이 자신에게는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0%(0)	80.4%(111)	17.4%(24)	2.2%(3)	0%(0)
성별	남자	0.0	83.0	15.1	1.9	0.0
	여자	0.0	78.8	18.8	2.4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0.0	0.0	0.0	0.0
	20대	0.0	75.0	21.2	3.8	0.0
	30대	0.0	78.1	18.8	3.1	0.0
	40대	0.0	82.4	17.6	0.0	0.0
	50대	0.0	93.8	6.3	0.0	0.0
	60대	0.0	100.0	0.0	0.0	0.0
	70대	0.0	100.0	0.0	0.0	0.0
	80대	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66.7	33.3	0.0	0.0
	전문학교	0.0	75.0	18.8	6.3	0.0
	고등중학교	0.0	83.5	14.6	1.9	0.0
	인민학교	0.0	100.0	0.0	0.0	0.0
	무학	0.0	0.0	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88.5	11.5	0.0	0.0
	후보당원	0.0	0.0	0.0	0.0	0.0
	비당원	0.0	78.6	18.8	2.7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0.0	77.9	20.0	2.1	0.0
	없다	0.0	86.0	11.6	2.3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86.1	11.1	2.8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77.1	20.0	2.9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81.3	18.8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0.0	77.4	19.0	3.6	0.0
	없다	0.0	85.2	14.8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0.0	75.9	20.7	3.4	0.0
	결혼(동거 포함)	0.0	87.7	10.8	1.5	0.0
	이혼	0.0	66.7	33.3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통일 집단 이익

문6)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북한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0%(0)	92.8%(128)	5.8%(8)	1.4%(2)	0%(0)
성별	남자	0.0	96.2	1.9	1.9	0.0
	여자	0.0	90.6	8.2	1.2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0.0	0.0	0.0	0.0
	20대	0.0	88.5	7.7	3.8	0.0
	30대	0.0	100.0	0.0	0.0	0.0
	40대	0.0	91.2	8.8	0.0	0.0
	50대	0.0	93.8	6.3	0.0	0.0
	60대	0.0	100.0	0.0	0.0	0.0
	70대	0.0	100.0	0.0	0.0	0.0
	80대	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88.9	11.1	0.0	0.0
	전문학교	0.0	87.5	12.5	0.0	0.0
	고등중학교	0.0	94.2	3.9	1.9	0.0
	인민학교	0.0	100.0	0.0	0.0	0.0
	무학	0.0	0.0	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96.2	3.8	0.0	0.0
	후보당원	0.0	0.0	0.0	0.0	0.0
	비당원	0.0	92.0	6.3	1.8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0.0	91.6	7.4	1.1	0.0
	없다	0.0	95.3	2.3	2.3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94.4	2.8	2.8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92.9	5.7	1.4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90.6	9.4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0.0	91.7	6.0	2.4	0.0
	없다	0.0	94.4	5.6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0.0	89.7	6.9	3.4	0.0
	결혼(동거 포함)	0.0	96.9	3.1	0.0	0.0
	이혼	0.0	86.7	13.3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빈부격차

문7) 귀하는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가 통일되기 이전보다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크게 개선	약간 개선	차이 없음	약간 악화	크게 악화
		0%(0)	62.3%(86)	23.9%(33)	4.3%(6)	5.8%(8)	3.6%(5)
성별	남자	0.0	60.4	22.6	3.8	9.4	3.8
	여자	0.0	63.5	24.7	4.7	3.5	3.5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0.0	0.0	0.0	0.0	0.0
	20대	0.0	61.5	21.2	5.8	9.6	1.9
	30대	0.0	56.3	28.1	9.4	3.1	3.1
	40대	0.0	67.6	20.6	0.0	5.9	5.9
	50대	0.0	62.5	31.3	0.0	0.0	6.3
	60대	0.0	100.0	0.0	0.0	0.0	0.0
	70대	0.0	0.0	100.0	0.0	0.0	0.0
	80대	0.0	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72.2	16.7	0.0	5.6	5.6
	전문학교	0.0	43.8	50.0	6.3	0.0	0.0
	고등학교	0.0	63.1	21.4	4.9	6.8	3.9
	인민학교	0.0	100.0	0.0	0.0	0.0	0.0
	무학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당원	0.0	61.5	30.8	3.8	3.8	0.0
	후보당원	0.0	0.0	0.0	0.0	0.0	0.0
	비당원	0.0	62.5	22.3	4.5	6.3	4.5
장사경험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있다	0.0	58.9	24.2	6.3	7.4	3.2
	없다	0.0	69.8	23.3	0.0	2.3	4.7
북한소식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69.4	11.1	11.1	5.6	2.8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52.9	34.3	1.4	7.1	4.3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75.0	15.6	3.1	3.1	3.1
남한친척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있다	0.0	59.5	26.2	3.6	7.1	3.6
	없다	0.0	66.7	20.4	5.6	3.7	3.7
결혼상태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미혼	0.0	62.1	20.7	8.6	6.9	1.7
	결혼(동거 포함)	0.0	63.1	29.2	0.0	4.6	3.1
	이혼	0.0	60.0	13.3	6.7	6.7	13.3
결혼상태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실업문제

문8) 귀하는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가 통일되기 이전보다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크게 개선	약간 개선	차이 없음	약간 악화	크게 악화
		0%(0)	73.9%(102)	18.1%(25)	4.3%(6)	0.7%(1)	2.9%(4)
성별	남자	0.0	77.4	15.1	1.9	1.9	3.8
	여자	0.0	71.8	20.0	5.9	0.0	2.4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0.0	0.0	0.0	0.0	0.0
	20대	0.0	82.7	13.5	3.8	0.0	0.0
	30대	0.0	56.3	28.1	3.1	3.1	9.4
	40대	0.0	73.5	17.6	5.9	0.0	2.9
	50대	0.0	87.5	6.3	6.3	0.0	0.0
	60대	0.0	33.3	66.7	0.0	0.0	0.0
	70대	0.0	100.0	0.0	0.0	0.0	0.0
	80대	0.0	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83.3	11.1	0.0	5.6	0.0
	전문학교	0.0	81.3	12.5	0.0	0.0	6.3
	고등학교	0.0	71.8	20.4	4.9	0.0	2.9
	인민학교	0.0	0.0	0.0	100.0	0.0	0.0
	무학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당원	0.0	76.9	19.2	0.0	0.0	3.8
	후보당원	0.0	0.0	0.0	0.0	0.0	0.0
	비당원	0.0	73.2	17.9	5.4	0.9	2.7
장사경험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있다	0.0	70.5	17.9	6.3	1.1	4.2
	없다	0.0	81.4	18.6	0.0	0.0	0.0
북한소식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66.7	19.4	5.6	0.0	8.3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78.6	14.3	4.3	1.4	1.4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71.9	25.0	3.1	0.0	0.0
남한친척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있다	0.0	75.0	16.7	6.0	1.2	1.2
	없다	0.0	72.2	20.4	1.9	0.0	5.6
결혼상태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미혼	0.0	72.4	20.7	5.2	0.0	1.7
	결혼(동거 포함)	0.0	81.5	12.3	1.5	1.5	3.1
	이혼	0.0	46.7	33.3	13.3	0.0	6.7
결혼상태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지역갈등

문9) 귀하는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가 통일되기 이전보다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크게 개선	약간 개선	차이 없음	약간 악화	크게 악화
		0%[0]	40.6%(56)	22.5%(31)	13.8%(19)	15.2%(21)	8.0%(11)
성별	남자	0.0	35.8	17.0	15.1	24.5	7.5
	여자	0.0	43.5	25.9	12.9	9.4	8.2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0.0	0.0	0.0	0.0	0.0
	20대	0.0	36.5	19.2	19.2	19.2	5.8
	30대	0.0	50.0	21.9	12.5	9.4	6.3
	40대	0.0	41.2	20.6	8.8	20.6	8.8
	50대	0.0	37.5	37.5	6.3	6.3	12.5
	60대	0.0	33.3	0.0	33.3	0.0	33.3
	70대	0.0	0.0	100.0	0.0	0.0	0.0
	80대	0.0	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55.6	11.1	22.2	5.6	5.6
	전문학교	0.0	37.5	31.3	31.3	0.0	0.0
	고등중학교	0.0	37.9	23.3	9.7	19.4	9.7
	인민학교	0.0	100.0	0.0	0.0	0.0	0.0
	무학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당원	0.0	34.6	19.2	11.5	19.2	15.4
	후보당원	0.0	0.0	0.0	0.0	0.0	0.0
	비당원	0.0	42.0	23.2	14.3	14.3	6.3
장사경험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있다	0.0	41.1	20.0	13.7	15.8	9.5
	없다	0.0	39.5	27.9	14.0	14.0	4.7
북한소식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44.4	13.9	8.3	19.4	13.9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35.7	22.9	21.4	15.7	4.3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46.9	31.3	3.1	9.4	9.4
남한친척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있다	0.0	36.9	22.6	14.3	17.9	8.3
	없다	0.0	46.3	22.2	13.0	11.1	7.4
결혼상태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미혼	0.0	37.9	19.0	22.4	17.2	3.4
	결혼(동거 포함)	0.0	44.6	26.2	7.7	10.8	10.8
	이혼	0.0	33.3	20.0	6.7	26.7	13.3
결혼상태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이념갈등

문10) 귀하는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가 통일되기 이전보다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크게 개선	약간 개선	차이 없음	약간 악화	크게 악화
		0%[0]	47.8%(66)	27.5%(38)	2.9%(4)	13.8%(19)	8.0%(11)
성별	남자	0.0	47.2	17.0	5.7	17.0	13.2
	여자	0.0	48.2	34.1	1.2	11.8	4.7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0.0	0.0	0.0	0.0	0.0
	20대	0.0	40.4	28.8	5.8	15.4	9.6
	30대	0.0	50.0	31.3	0.0	12.5	6.3
	40대	0.0	58.8	20.6	0.0	14.7	5.9
	50대	0.0	50.0	25.0	6.3	6.3	12.5
	60대	0.0	33.3	33.3	0.0	33.3	0.0
	70대	0.0	0.0	100.0	0.0	0.0	0.0
	80대	0.0	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55.6	27.8	0.0	11.1	5.6
	전문학교	0.0	31.3	56.3	12.5	0.0	0.0
	고등중학교	0.0	48.5	23.3	1.9	16.5	9.7
	인민학교	0.0	100.0	0.0	0.0	0.0	0.0
	무학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당원	0.0	42.3	26.9	3.8	15.4	11.5
	후보당원	0.0	0.0	0.0	0.0	0.0	0.0
	비당원	0.0	49.1	27.7	2.7	13.4	7.1
장사경험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있다	0.0	49.5	25.3	4.2	13.7	7.4
	없다	0.0	44.2	32.6	0.0	14.0	9.3
북한소식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50.0	16.7	0.0	19.4	13.9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44.3	32.9	5.7	12.9	4.3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53.1	28.1	0.0	9.4	9.4
남한친척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있다	0.0	45.2	29.8	3.6	15.5	6.0
	없다	0.0	51.9	24.1	1.9	11.1	11.1
결혼상태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미혼	0.0	43.1	31.0	5.2	12.1	8.6
	결혼(동거 포함)	0.0	53.8	23.1	1.5	13.8	7.7
	이혼	0.0	40.0	33.3	0.0	20.0	6.7
결혼상태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대북지원

문11) 귀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통일을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매우 도움이 된다	다소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0%(0)	55.1%(76)	15.2%(21)	15.9%(22)	13.8%(19)
성별	남자	0.0	41.5	17.0	17.0	24.5
	여자	0.0	63.5	14.1	15.3	7.1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0.0	0.0	0.0	0.0
	20대	0.0	61.5	15.4	11.5	11.5
	30대	0.0	43.8	15.6	28.1	12.5
	40대	0.0	41.2	20.6	17.6	20.6
	50대	0.0	81.3	0.0	6.3	12.5
	60대	0.0	66.7	33.3	0.0	0.0
	70대	0.0	100.0	0.0	0.0	0.0
	80대	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33.3	27.8	22.2	16.7
	전문학교	0.0	75.0	6.3	12.5	6.3
	고등중학교	0.0	56.3	14.6	14.6	14.6
	인민학교	0.0	0.0	0.0	100.0	0.0
	무학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당원	0.0	46.2	11.5	19.2	23.1
	후보당원	0.0	0.0	0.0	0.0	0.0
	비당원	0.0	57.1	16.1	15.2	11.6
장사경험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있다	0.0	55.8	17.9	13.7	12.6
	없다	0.0	53.5	9.3	20.9	16.3
북한소식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55.6	11.1	19.4	13.9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52.9	20.0	12.9	14.3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59.4	9.4	18.8	12.5
남한친척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있다	0.0	61.9	16.7	11.9	9.5
	없다	0.0	44.4	13.0	22.2	20.4
결혼상태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미혼	0.0	51.7	19.0	15.5	13.8
	결혼(동거 포함)	0.0	55.4	12.3	16.9	15.4
	이혼	0.0	66.7	13.3	13.3	6.7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사회문화교류

문12) 귀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통일을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매우 도움이 된다	다소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0%(0)	46.4%(64)	31.9%(44)	15.9%(22)	5.8%(8)
성별	남자	0.0	43.4	28.3	20.8	7.5
	여자	0.0	48.2	34.1	12.9	4.7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0.0	0.0	0.0	0.0
	20대	0.0	44.2	36.5	13.5	5.8
	30대	0.0	31.3	31.3	28.1	9.4
	40대	0.0	47.1	38.2	11.8	2.9
	50대	0.0	81.3	0.0	12.5	6.3
	60대	0.0	33.3	66.7	0.0	0.0
	70대	0.0	100.0	0.0	0.0	0.0
	80대	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27.8	44.4	11.1	16.7
	전문학교	0.0	50.0	25.0	25.0	0.0
	고등중학교	0.0	48.5	31.1	15.5	4.9
	인민학교	0.0	100.0	0.0	0.0	0.0
	무학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당원	0.0	50.0	23.1	23.1	3.8
	후보당원	0.0	0.0	0.0	0.0	0.0
	비당원	0.0	45.5	33.9	14.3	6.3
장사경험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있다	0.0	46.3	29.5	18.9	5.3
	없다	0.0	46.5	37.2	9.3	7.0
북한소식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55.6	25.0	13.9	5.6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38.6	40.0	17.1	4.3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53.1	21.9	15.6	9.4
남한친척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있다	0.0	46.4	34.5	17.9	1.2
	없다	0.0	46.3	27.8	13.0	13.0
결혼상태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미혼	0.0	41.4	31.0	19.0	8.6
	결혼(동거 포함)	0.0	50.8	29.2	16.9	3.1
	이혼	0.0	46.7	46.7	0.0	6.7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경제협력

문13) 귀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통일을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매우 도움이 된다	다소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0%(0)	48.6%(67)	27.5%(38)	11.6%(16)	12.3%(17)
성별	남자	0.0	37.7	20.8	15.1	26.4
	여자	0.0	55.3	31.8	9.4	3.5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0.0	0.0	0.0	0.0
	20대	0.0	57.7	28.8	5.8	7.7
	30대	0.0	40.6	31.3	12.5	15.6
	40대	0.0	38.2	29.4	17.6	14.7
	50대	0.0	56.3	12.5	12.5	18.8
	60대	0.0	66.7	0.0	33.3	0.0
	70대	0.0	0.0	100.0	0.0	0.0
	80대	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33.3	33.3	11.1	22.2
	전문학교	0.0	50.0	37.5	6.3	6.3
	고등중학교	0.0	51.5	25.2	12.6	10.7
	인민학교	0.0	0.0	0.0	0.0	100.0
	무학	0.0	0.0	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당원	0.0	42.3	15.4	19.2	23.1
	후보당원	0.0	0.0	0.0	0.0	0.0
	비당원	0.0	50.0	30.4	9.8	9.8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있다	0.0	48.4	27.4	13.7	10.5
	없다	0.0	48.8	27.9	7.0	16.3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47.2	25.0	13.9	13.9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47.1	32.9	8.6	11.4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53.1	18.8	15.6	12.5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있다	0.0	54.8	27.4	9.5	8.3
	없다	0.0	38.9	27.8	14.8	18.5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미혼	0.0	50.0	31.0	6.9	12.1
	결혼(동거 포함)	0.0	46.2	23.1	15.4	15.4
무응답, 응답오류		0.0	53.3	33.3	13.3	0.0
	이혼	0.0	53.3	33.3	13.3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남북회담

문14) 귀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통일을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매우 도움이 된다	다소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0%(0)	58.7%(81)	23.2%(32)	10.1%(14)	8.0%(11)
성별	남자	0.0	52.8	18.9	17.0	11.3
	여자	0.0	62.4	25.9	5.9	5.9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0.0	0.0	0.0	0.0
	20대	0.0	59.6	23.1	9.6	7.7
	30대	0.0	53.1	18.8	12.5	15.6
	40대	0.0	55.9	35.3	8.8	0.0
	50대	0.0	75.0	6.3	6.3	12.5
	60대	0.0	66.7	0.0	33.3	0.0
	70대	0.0	0.0	100.0	0.0	0.0
	80대	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50.0	16.7	16.7	16.7
	전문학교	0.0	50.0	43.8	0.0	6.3
	고등중학교	0.0	62.1	21.4	10.7	5.8
	인민학교	0.0	0.0	0.0	0.0	100.0
	무학	0.0	0.0	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당원	0.0	46.2	34.6	11.5	7.7
	후보당원	0.0	0.0	0.0	0.0	0.0
	비당원	0.0	61.6	20.5	9.8	8.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있다	0.0	62.1	21.1	9.5	7.4
	없다	0.0	51.2	27.9	11.6	9.3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58.3	22.2	8.3	11.1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55.7	27.1	11.4	5.7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65.6	15.6	9.4	9.4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있다	0.0	60.7	25.0	8.3	6.0
	없다	0.0	55.6	20.4	13.0	11.1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미혼	0.0	58.6	24.1	6.9	10.3
	결혼(동거 포함)	0.0	61.5	21.5	9.2	7.7
무응답, 응답오류		0.0	46.7	26.7	26.7	0.0
	이혼	0.0	46.7	26.7	26.7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통일방식

문15)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북한의 현 체제로 통일한다	북한과 남한의 체제를 절충하여 통일한다	통일 이후에도 북한과 남한의 두 체제가 각각 유지된다	남한의 현 체제로 통일한다	통일이 이뤄지기만 하면 어떤 체제이든 상관없다
		0%[0]	5.8%[8]	14.5%[20]	8.0%[11]	42.8%[59]	29.0%[40]
성별	남자	0.0	7.5	15.1	11.3	39.6	26.4
	여자	0.0	4.7	14.1	5.9	44.7	30.6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0.0	0.0	0.0	0.0	0.0
	20대	0.0	5.8	19.2	9.6	50.0	15.4
	30대	0.0	3.1	9.4	6.3	43.8	37.5
	40대	0.0	5.9	11.8	5.9	38.2	38.2
	50대	0.0	6.3	12.5	6.3	37.5	37.5
	60대	0.0	33.3	33.3	33.3	0.0	0.0
	70대	0.0	0.0	0.0	0.0	0.0	100.0
	80대	0.0	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5.6	16.7	16.7	44.4	16.7
	전문학교	0.0	0.0	6.3	12.5	31.3	50.0
	고등학교	0.0	6.8	15.5	5.8	44.7	27.2
	인민학교	0.0	0.0	0.0	0.0	0.0	100.0
	무학	0.0	0.0	0.0	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7.7	7.7	30.8	19.2	34.6
	후보당원	0.0	0.0	0.0	0.0	0.0	0.0
	비당원	0.0	5.4	16.1	2.7	48.2	27.7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0.0	3.2	16.8	4.2	43.2	32.6
	없다	0.0	11.6	9.3	16.3	41.9	20.9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8.3	16.7	11.1	30.6	33.3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7.1	14.3	7.1	48.6	22.9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0.0	12.5	6.3	43.8	37.5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0.0	8.3	10.7	8.3	48.8	23.8
	없다	0.0	1.9	20.4	7.4	33.3	37.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0.0	5.2	15.5	6.9	50.0	22.4
	결혼(동거 포함)	0.0	7.7	12.3	7.7	35.4	36.9
	이혼	0.0	0.0	20.0	13.3	46.7	2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통일 후 거주

문16) 귀하는 통일이 되면 어느 지역에서 거주할 생각이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북한에서 살 것이다	남한에서 살 것이다	남쪽이든 북쪽이든 처한 상황에 따라 선택할 것이다.	외국에 나가 살 것이다
		0%[0]	34.8%[48]	41.3%[57]	20.3%[28]	3.6%[5]
성별	남자	0.0	37.7	41.5	18.9	1.9
	여자	0.0	32.9	41.2	21.2	4.7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0.0	0.0	0.0	0.0
	20대	0.0	28.8	48.1	17.3	5.8
	30대	0.0	31.3	31.3	31.3	6.3
	40대	0.0	47.1	35.3	17.6	0.0
	50대	0.0	37.5	50.0	12.5	0.0
	60대	0.0	33.3	66.7	0.0	0.0
	70대	0.0	0.0	0.0	100.0	0.0
	80대	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22.2	27.8	50.0	0.0
	전문학교	0.0	31.3	37.5	25.0	6.3
	고등학교	0.0	36.9	44.7	14.6	3.9
	인민학교	0.0	100.0	0.0	0.0	0.0
	무학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42.3	38.5	15.4	3.8
	후보당원	0.0	0.0	0.0	0.0	0.0
	비당원	0.0	33.0	42.0	21.4	3.6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0.0	37.9	35.8	21.1	5.3
	없다	0.0	27.9	53.5	18.6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36.1	30.6	25.0	8.3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28.6	50.0	20.0	1.4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46.9	34.4	15.6	3.1
남한친척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있다	0.0	35.7	42.9	19.0	2.4
	없다	0.0	33.3	38.9	22.2	5.6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0.0	32.8	39.7	20.7	6.9
	결혼(동거 포함)	0.0	36.9	40.0	23.1	0.0
	이혼	0.0	33.3	53.3	6.7	6.7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對 남한 인식

문17)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이 북한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도와주어야 할 지원대상이다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다	선의를 경쟁을 하는 대상이다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 대상이다
		0.7%(1)	0%(0)	11.6%(16)	52.9%(73)	2.2%(3)	10.1%(14)	22.5%(31)
성별	남자	0.0	0.0	15.1	50.9	0.0	13.2	20.8
	여자	1.2	0.0	9.4	54.1	3.5	8.2	23.5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0.0	0.0	0.0	0.0	0.0	0.0
	20대	1.9	0.0	7.7	51.9	1.9	9.6	26.9
	30대	0.0	0.0	15.6	53.1	0.0	12.5	18.8
	40대	0.0	0.0	14.7	50.0	2.9	8.8	23.5
	50대	0.0	0.0	6.3	62.5	0.0	12.5	18.8
	60대	0.0	0.0	33.3	66.7	0.0	0.0	0.0
	70대	0.0	0.0	0.0	0.0	100.0	0.0	0.0
	80대	0.0	0.0	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5.6	0.0	11.1	50.0	5.6	5.6	22.2
	전문학교	0.0	0.0	6.3	62.5	0.0	12.5	18.8
	고등중학교	0.0	0.0	12.6	51.5	1.9	10.7	23.3
	인민학교	0.0	0.0	0.0	100.0	0.0	0.0	0.0
	무학	0.0	0.0	0.0	0.0	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0.0	19.2	46.2	0.0	15.4	19.2
	후보당원	0.0	0.0	0.0	0.0	0.0	0.0	0.0
	비당원	0.9	0.0	9.8	54.5	2.7	8.9	23.2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장시경험	있다	0.0	0.0	11.6	55.8	2.1	8.4	22.1
	없다	2.3	0.0	11.6	46.5	2.3	14.0	23.3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0.0	16.7	41.7	0.0	22.2	19.4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1.4	0.0	11.4	55.7	2.9	8.6	2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0.0	6.3	59.4	3.1	0.0	31.3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1.2	0.0	13.1	52.4	2.4	8.3	22.6
	없다	0.0	0.0	9.3	53.7	1.9	13.0	22.2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1.7	0.0	8.6	53.4	1.7	8.6	25.9
	결혼(동거 포함)	0.0	0.0	12.3	52.3	3.1	10.8	21.5
	이혼	0.0	0.0	20.0	53.3	0.0	13.3	13.3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4.19 혁명

문18)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셨습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매우 잘 알았다	조금 알았다	들어 본 적 있다	전혀 몰랐다
		0%(0)	14.5%(20)	27.5%(38)	29.0%(40)	29.0%(40)
성별	남자	0.0	24.5	26.4	26.4	22.6
	여자	0.0	8.2	28.2	30.6	32.9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0.0	0.0	0.0	0.0
	20대	0.0	5.8	30.8	30.8	32.7
	30대	0.0	15.6	18.8	28.1	37.5
	40대	0.0	23.5	26.5	32.4	17.6
	50대	0.0	12.5	37.5	25.0	25.0
	60대	0.0	66.7	33.3	0.0	0.0
	70대	0.0	0.0	0.0	0.0	100.0
	80대	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22.2	38.9	22.2	16.7
	전문학교	0.0	6.3	50.0	25.0	18.8
	고등중학교	0.0	14.6	22.3	31.1	32.0
	인민학교	0.0	0.0	0.0	0.0	100.0
	무학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19.2	34.6	23.1	23.1
	후보당원	0.0	0.0	0.0	0.0	0.0
	비당원	0.0	13.4	25.9	30.4	30.4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장시경험	있다	0.0	13.7	27.4	33.7	25.3
	없다	0.0	16.3	27.9	18.6	37.2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22.2	22.2	25.0	30.6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15.7	28.6	31.4	24.3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3.1	31.3	28.1	37.5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0.0	15.5	28.6	29.8	26.2
	없다	0.0	13.0	25.9	27.8	33.3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0.0	8.6	31.0	27.6	32.8
	결혼(동거 포함)	0.0	18.5	24.6	29.2	27.7
	이혼	0.0	20.0	26.7	33.3	2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5.18 광주항쟁

문19)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셨습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매우 잘 알았다	조금 알았다	들어 본 적 있다	전혀 몰랐다
		0%(0)	32.6%(45)	26.1%(36)	26.8%(37)	14.5%(20)
성별	남자	0.0	41.5	32.1	17.0	9.4
	여자	0.0	27.1	22.4	32.9	17.6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0.0	0.0	0.0	0.0
	20대	0.0	17.3	28.8	32.7	21.2
	30대	0.0	34.4	25.0	21.9	18.8
	40대	0.0	44.1	23.5	29.4	2.9
	50대	0.0	50.0	25.0	18.8	6.3
	60대	0.0	33.3	33.3	0.0	33.3
	70대	0.0	100.0	0.0	0.0	0.0
	80대	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72.2	11.1	16.7	0.0
	전문학교	0.0	25.0	31.3	37.5	6.3
	고등학교	0.0	27.2	28.2	27.2	17.5
	인민학교	0.0	0.0	0.0	0.0	100.0
	무학	0.0	0.0	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34.6	38.5	23.1	3.8
	후보당원	0.0	0.0	0.0	0.0	0.0
	비당원	0.0	32.1	23.2	27.7	17.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0.0	31.6	28.4	30.5	9.5
	없다	0.0	34.9	20.9	18.6	25.6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33.3	25.0	22.2	19.4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35.7	28.6	21.4	14.3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25.0	21.9	43.8	9.4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0.0	31.0	22.6	29.8	16.7
	없다	0.0	35.2	31.5	22.2	11.1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0.0	20.7	31.0	27.6	20.7
	결혼(동거 포함)	0.0	44.6	20.0	27.7	7.7
	이혼	0.0	26.7	33.3	20.0	2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88 서울올림픽

문20)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셨습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매우 잘 알았다	조금 알았다	들어 본 적 있다	전혀 몰랐다
		0.7%(1)	0%(0)	10.1%(14)	31.2%(43)	24.6%(34)	33.3%(46)
성별	남자	1.9	0.0	11.3	45.3	24.5	17.0
	여자	0.0	0.0	9.4	22.4	24.7	43.5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0.0	0.0	0.0	0.0	0.0
	20대	1.9	0.0	5.8	28.8	28.8	34.6
	30대	0.0	0.0	15.6	25.0	28.1	31.3
	40대	0.0	0.0	8.8	41.2	17.6	32.4
	50대	0.0	0.0	18.8	31.3	18.8	31.3
	60대	0.0	0.0	0.0	33.3	33.3	33.3
	70대	0.0	0.0	0.0	0.0	0.0	100.0
	80대	0.0	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0.0	22.2	50.0	22.2	5.6
	전문학교	0.0	0.0	12.5	25.0	25.0	37.5
	고등학교	1.0	0.0	7.8	29.1	25.2	36.9
	인민학교	0.0	0.0	0.0	0.0	0.0	100.0
	무학	0.0	0.0	0.0	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0.0	15.4	42.3	11.5	30.8
	후보당원	0.0	0.0	0.0	0.0	0.0	0.0
	비당원	0.9	0.0	8.9	28.6	27.7	33.9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1.1	0.0	11.6	35.8	24.2	27.4
	없다	0.0	0.0	7.0	20.9	25.6	46.5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2.8	0.0	11.1	30.6	19.4	36.1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0.0	8.6	32.9	27.1	31.4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0.0	12.5	28.1	25.0	34.4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1.2	0.0	10.7	26.2	23.8	38.1
	없다	0.0	0.0	9.3	38.9	25.9	25.9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1.7	0.0	8.6	25.9	29.3	34.5
	결혼(동거 포함)	0.0	0.0	10.8	33.8	24.6	30.8
	이혼	0.0	0.0	13.3	40.0	6.7	4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2002 월드컵

문21)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셨습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매우 잘 알았다	조금 알았다	들어 본 적 있다	전혀 몰랐다
		0%(0)	13.0%(18)	16.7%(23)	34.1%(47)	36.2%(50)
성별	남자	0.0	22.6	20.8	30.2	26.4
	여자	0.0	7.1	14.1	36.5	42.4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0.0	0.0	0.0	0.0
	20대	0.0	11.5	23.1	36.5	28.8
	30대	0.0	21.9	21.9	31.3	25.0
	40대	0.0	11.8	5.9	38.2	44.1
	50대	0.0	6.3	12.5	18.8	62.5
	60대	0.0	0.0	0.0	66.7	33.3
	70대	0.0	0.0	0.0	0.0	100.0
	80대	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27.8	16.7	33.3	22.2
	전문학교	0.0	18.8	18.8	43.8	18.8
	고등중학교	0.0	9.7	16.5	33.0	40.8
	인민학교	0.0	0.0	0.0	0.0	100.0
	무학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당원	0.0	19.2	26.9	30.8	23.1
	후보당원	0.0	0.0	0.0	0.0	0.0
	비당원	0.0	11.6	14.3	34.8	39.3
장사경험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있다	0.0	14.7	18.9	33.7	32.6
	없다	0.0	9.3	11.6	34.9	44.2
북한소식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19.4	16.7	33.3	30.6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12.9	17.1	35.7	34.3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6.3	15.6	31.3	46.9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0.0	11.9	13.1	35.7	39.3
	없다	0.0	14.8	22.2	31.5	31.5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0.0	15.5	20.7	37.9	25.9
	결혼(동거 포함)	0.0	10.8	13.8	27.7	47.7
	이혼	0.0	13.3	13.3	46.7	26.7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세월호 사건

문22)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셨습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매우 잘 알았다	조금 알았다	들어 본 적 있다	전혀 몰랐다
		0%(0)	17.4%(24)	34.1%(47)	20.3%(28)	28.3%(39)
성별	남자	0.0	11.3	43.4	18.9	26.4
	여자	0.0	21.2	28.2	21.2	29.4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0.0	0.0	0.0	0.0
	20대	0.0	21.2	30.8	25.0	23.1
	30대	0.0	12.5	34.4	31.3	21.9
	40대	0.0	11.8	35.3	14.7	38.2
	50대	0.0	25.0	43.8	0.0	31.3
	60대	0.0	33.3	33.3	0.0	33.3
	70대	0.0	0.0	0.0	0.0	100.0
	80대	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38.9	33.3	11.1	16.7
	전문학교	0.0	18.8	43.8	18.8	18.8
	고등중학교	0.0	13.6	32.0	22.3	32.0
	인민학교	0.0	0.0	100.0	0.0	0.0
	무학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당원	0.0	7.7	50.0	19.2	23.1
	후보당원	0.0	0.0	0.0	0.0	0.0
	비당원	0.0	19.6	30.4	20.5	29.5
장사경험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있다	0.0	17.9	35.8	20.0	26.3
	없다	0.0	16.3	30.2	20.9	32.6
북한소식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11.1	36.1	27.8	25.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20.0	32.9	20.0	27.1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18.8	34.4	12.5	34.4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0.0	19.0	29.8	15.5	35.7
	없다	0.0	14.8	40.7	27.8	16.7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0.0	19.0	37.9	20.7	22.4
	결혼(동거 포함)	0.0	16.9	26.2	20.0	36.9
	이혼	0.0	13.3	53.3	20.0	13.3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개성공업지구 운영

문23)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셨습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매우 잘 알았다	조금 알았다	들어 본 적 있다	전혀 몰랐다
		0%(0)	31.9%(44)	38.4%(53)	21.7%(30)	8.0%(11)
성별	남자	0.0	30.2	41.5	22.6	5.7
	여자	0.0	32.9	36.5	21.2	9.4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0.0	0.0	0.0	0.0
	20대	0.0	32.7	32.7	25.0	9.6
	30대	0.0	28.1	43.8	25.0	3.1
	40대	0.0	38.2	41.2	8.8	11.8
	50대	0.0	18.8	43.8	37.5	0.0
	60대	0.0	33.3	33.3	0.0	33.3
	70대	0.0	100.0	0.0	0.0	0.0
	80대	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44.4	44.4	11.1	0.0
	전문학교	0.0	31.3	31.3	37.5	0.0
	고등학교	0.0	30.1	37.9	21.4	10.7
	인민학교	0.0	0.0	100.0	0.0	0.0
	무학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당원	0.0	38.5	38.5	19.2	3.8
	후보당원	0.0	0.0	0.0	0.0	0.0
	비당원	0.0	30.4	38.4	22.3	8.9
장사경험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있다	0.0	33.7	40.0	21.1	5.3
	없다	0.0	27.9	34.9	23.3	14.0
북한소식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30.6	47.2	13.9	8.3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34.3	38.6	22.9	4.3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28.1	28.1	28.1	15.6
남한친척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있다	0.0	32.1	34.5	23.8	9.5
	없다	0.0	31.5	44.4	18.5	5.6
결혼상태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미혼	0.0	29.3	37.9	24.1	8.6
	결혼(동거 포함)	0.0	30.8	40.0	20.0	9.2
	이혼	0.0	46.7	33.3	2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남북문화 경험

문24)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 방송, 영화, 드라마, 노래(음악) 등을 접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자주 접해 봤다	한두번 접해 봤다	전혀 접해보지 못했다
		0%(0)	52.2%(72)	36.2%(50)	11.6%(16)
성별	남자	0.0	67.9	22.6	9.4
	여자	0.0	42.4	44.7	12.9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0.0	0.0	0.0
	20대	0.0	55.8	36.5	7.7
	30대	0.0	65.6	28.1	6.3
	40대	0.0	50.0	29.4	20.6
	50대	0.0	18.8	75.0	6.3
	60대	0.0	33.3	0.0	66.7
	70대	0.0	100.0	0.0	0.0
	80대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61.1	33.3	5.6
	전문학교	0.0	50.0	43.8	6.3
	고등학교	0.0	51.5	35.0	13.6
	인민학교	0.0	0.0	100.0	0.0
	무학	0.0	0.0	0.0	0.0
당원여부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당원	0.0	53.8	34.6	11.5
	후보당원	0.0	0.0	0.0	0.0
	비당원	0.0	51.8	36.6	11.6
장사경험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있다	0.0	52.6	40.0	7.4
	없다	0.0	51.2	27.9	20.9
북한소식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69.4	16.7	13.9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52.9	38.6	8.6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31.3	53.1	15.6
남한친척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있다	0.0	47.6	36.9	15.5
	없다	0.0	59.3	35.2	5.6
결혼상태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미혼	0.0	58.6	31.0	10.3
	결혼(동거 포함)	0.0	47.7	38.5	13.8
	이혼	0.0	46.7	46.7	6.7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남북문화 친숙도

문25) 귀하는 남한 방송, 영화, 드라마, 노래(음악)등을 접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습니다가?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매우 친숙했다	약간 친숙했다	별로 친숙 하지 않았다	전혀 친숙 하지 않았다
		10.9%(15)	0%(0)	58.7%(81)	24.6%(34)	4.3%(6)	1.4%(2)
성별	남자	7.5	0.0	58.5	28.3	3.8	1.9
	여자	12.9	0.0	58.8	22.4	4.7	1.2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0.0	0.0	0.0	0.0	0.0
	20대	7.7	0.0	63.5	23.1	5.8	0.0
	30대	6.3	0.0	65.6	25.0	0.0	3.1
	40대	17.6	0.0	55.9	20.6	2.9	2.9
	50대	6.3	0.0	43.8	37.5	12.5	0.0
	60대	66.7	0.0	0.0	33.3	0.0	0.0
	70대	0.0	0.0	100.0	0.0	0.0	0.0
	80대	0.0	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5.6	0.0	66.7	27.8	0.0	0.0
	전문학교	6.3	0.0	56.3	18.8	12.5	6.3
	고등중학교	12.6	0.0	58.3	24.3	3.9	1.0
	인민학교	0.0	0.0	0.0	100.0	0.0	0.0
	무학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당원	7.7	0.0	53.8	26.9	7.7	3.8
	후보당원	0.0	0.0	0.0	0.0	0.0	0.0
	비당원	11.6	0.0	59.8	24.1	3.6	0.9
장사경험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있다	7.4	0.0	56.8	30.5	4.2	1.1
	없다	18.6	0.0	62.8	11.6	4.7	2.3
북한소식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11.1	0.0	72.2	13.9	0.0	2.8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8.6	0.0	54.3	28.6	7.1	1.4
	거의 접할 수 없었다	15.6	0.0	53.1	28.1	3.1	0.0
남한친척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있다	15.5	0.0	56.0	22.6	4.8	1.2
	없다	3.7	0.0	63.0	27.8	3.7	1.9
결혼상태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미혼	10.3	0.0	60.3	24.1	5.2	0.0
	결혼(동거 포함)	12.3	0.0	52.3	27.7	4.6	3.1
	이혼	6.7	0.0	80.0	13.3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남북문화 유통경로

문26) 귀하는 남한 방송, 영화, 드라마, 노래(음악) 등을 어떤 경로를 통하여 접하셨습니다가?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시장에서 직접 구하여 접했다	주변사람들(친척, 이웃, 친구 등)에게 서 구하여 접했다	주변사람들(친척, 이웃, 친구 등)과 함께 접했다	외국에 나갔을 때 접했다
		10.9%(15)	0%(0)	5.8%(8)	60.9%(84)	15.9%(22)	6.5%(9)
성별	남자	7.5	0.0	11.3	54.7	17.0	9.4
	여자	12.9	0.0	2.4	64.7	15.3	4.7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0.0	0.0	0.0	0.0	0.0
	20대	7.7	0.0	3.8	75.0	9.6	3.8
	30대	6.3	0.0	6.3	59.4	18.8	9.4
	40대	17.6	0.0	8.8	47.1	17.6	8.8
	50대	6.3	0.0	6.3	56.3	31.3	0.0
	60대	66.7	0.0	0.0	33.3	0.0	0.0
	70대	0.0	0.0	0.0	0.0	0.0	100.0
	80대	0.0	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5.6	0.0	11.1	55.6	22.2	5.6
	전문학교	6.3	0.0	0.0	62.5	25.0	6.3
	고등중학교	12.6	0.0	5.8	61.2	13.6	6.8
	인민학교	0.0	0.0	0.0	100.0	0.0	0.0
	무학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당원	7.7	0.0	3.8	53.8	15.4	19.2
	후보당원	0.0	0.0	0.0	0.0	0.0	0.0
	비당원	11.6	0.0	6.3	62.5	16.1	3.6
장사경험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있다	7.4	0.0	7.4	65.3	12.6	7.4
	없다	18.6	0.0	2.3	51.2	23.3	4.7
북한소식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11.1	0.0	5.6	61.1	11.1	11.1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8.6	0.0	7.1	58.6	18.6	7.1
	거의 접할 수 없었다	15.6	0.0	3.1	65.6	15.6	0.0
남한친척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있다	15.5	0.0	3.6	60.7	14.3	6.0
	없다	3.7	0.0	9.3	61.1	18.5	7.4
결혼상태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미혼	10.3	0.0	6.9	74.1	8.6	0.0
	결혼(동거 포함)	12.3	0.0	4.6	46.2	24.6	12.3
	이혼	6.7	0.0	6.7	73.3	6.7	6.7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선거방식

문27) 귀하는 다음 측면에서 현재 남한과 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많이 있다	다소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0%(0)	90.6%(125)	3.6%(5)	3.6%(5)	2.2%(3)
성별	남자	0.0	92.5	1.9	5.7	0.0
	여자	0.0	89.4	4.7	2.4	3.5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0.0	0.0	0.0	0.0
	20대	0.0	90.4	3.8	1.9	3.8
	30대	0.0	84.4	3.1	9.4	3.1
	40대	0.0	94.1	2.9	2.9	0.0
	50대	0.0	100.0	0.0	0.0	0.0
	60대	0.0	100.0	0.0	0.0	0.0
	70대	0.0	0.0	100.0	0.0	0.0
	80대	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94.4	0.0	0.0	5.6
	전문학교	0.0	81.3	6.3	6.3	6.3
	고등중학교	0.0	91.3	3.9	3.9	1.0
	인민학교	0.0	100.0	0.0	0.0	0.0
	무학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당원	0.0	92.3	3.8	3.8	0.0
	후보당원	0.0	0.0	0.0	0.0	0.0
	비당원	0.0	90.2	3.6	3.6	2.7
장사경험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있다	0.0	94.7	1.1	2.1	2.1
	없다	0.0	81.4	9.3	7.0	2.3
북한소식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91.7	2.8	5.6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92.9	2.9	2.9	1.4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84.4	6.3	3.1	6.3
남한친척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있다	0.0	92.9	4.8	1.2	1.2
	없다	0.0	87.0	1.9	7.4	3.7
결혼상태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미혼	0.0	91.4	5.2	1.7	1.7
	결혼(동거 포함)	0.0	87.7	3.1	6.2	3.1
	이혼	0.0	100.0	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생활수준

문28) 귀하는 다음 측면에서 현재 남한과 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많이 있다	다소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0%(0)	90.6%(125)	5.8%(8)	2.2%(3)	1.4%(2)
성별	남자	0.0	92.5	5.7	1.9	0.0
	여자	0.0	89.4	5.9	2.4	2.4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0.0	0.0	0.0	0.0
	20대	0.0	88.5	7.7	3.8	0.0
	30대	0.0	87.5	6.3	3.1	3.1
	40대	0.0	97.1	2.9	0.0	0.0
	50대	0.0	93.8	6.3	0.0	0.0
	60대	0.0	66.7	0.0	0.0	33.3
	70대	0.0	100.0	0.0	0.0	0.0
	80대	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94.4	5.6	0.0	0.0
	전문학교	0.0	81.3	12.5	6.3	0.0
	고등중학교	0.0	92.2	3.9	1.9	1.9
	인민학교	0.0	0.0	100.0	0.0	0.0
	무학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당원	0.0	88.5	11.5	0.0	0.0
	후보당원	0.0	0.0	0.0	0.0	0.0
	비당원	0.0	91.1	4.5	2.7	1.8
장사경험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있다	0.0	94.7	3.2	2.1	0.0
	없다	0.0	81.4	11.6	2.3	4.7
북한소식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91.7	5.6	0.0	2.8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92.9	4.3	2.9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84.4	9.4	3.1	3.1
남한친척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있다	0.0	91.7	4.8	1.2	2.4
	없다	0.0	88.9	7.4	3.7	0.0
결혼상태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미혼	0.0	91.4	6.9	1.7	0.0
	결혼(동거 포함)	0.0	87.7	6.2	3.1	3.1
	이혼	0.0	100.0	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역사인식

문29) 귀하는 다음 측면에서 현재 남한과 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많이 있다	다소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0%(0)	63.8%(88)	31.2%(43)	3.6%(5)	1.4%(2)
성별	남자	0.0	92.5	5.7	1.9	0.0
	여자	0.0	89.4	5.9	2.4	2.4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0.0	0.0	0.0	0.0
	20대	0.0	88.5	7.7	3.8	0.0
	30대	0.0	87.5	6.3	3.1	3.1
	40대	0.0	97.1	2.9	0.0	0.0
	50대	0.0	93.8	6.3	0.0	0.0
	60대	0.0	66.7	0.0	0.0	33.3
	70대	0.0	100.0	0.0	0.0	0.0
	80대	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94.4	5.6	0.0	0.0
	전문학교	0.0	81.3	12.5	6.3	0.0
	고등학교	0.0	92.2	3.9	1.9	1.9
	인민학교	0.0	0.0	100.0	0.0	0.0
	무학	0.0	0.0	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88.5	11.5	0.0	0.0
	후보당원	0.0	0.0	0.0	0.0	0.0
	비당원	0.0	91.1	4.5	2.7	1.8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0.0	94.7	3.2	2.1	0.0
	없다	0.0	81.4	11.6	2.3	4.7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91.7	5.6	0.0	2.8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92.9	4.3	2.9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84.4	9.4	3.1	3.1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0.0	91.7	4.8	1.2	2.4
	없다	0.0	88.9	7.4	3.7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0.0	91.4	6.9	1.7	0.0
	결혼(동거 포함)	0.0	87.7	6.2	3.1	3.1
	이혼	0.0	100.0	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언어사용

문30) 귀하는 다음 측면에서 현재 남한과 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많이 있다	다소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0%(0)	63.8%(88)	29.7%(41)	5.1%(7)	1.4%(2)
성별	남자	0.0	52.8	39.6	7.5	0.0
	여자	0.0	70.6	23.5	3.5	2.4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0.0	0.0	0.0	0.0
	20대	0.0	75.0	21.2	3.8	0.0
	30대	0.0	62.5	34.4	3.1	0.0
	40대	0.0	44.1	47.1	5.9	2.9
	50대	0.0	75.0	12.5	12.5	0.0
	60대	0.0	33.3	33.3	0.0	33.3
	70대	0.0	100.0	0.0	0.0	0.0
	80대	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50.0	50.0	0.0	0.0
	전문학교	0.0	68.8	31.3	0.0	0.0
	고등학교	0.0	66.0	25.2	6.8	1.9
	인민학교	0.0	0.0	100.0	0.0	0.0
	무학	0.0	0.0	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53.8	38.5	7.7	0.0
	후보당원	0.0	0.0	0.0	0.0	0.0
	비당원	0.0	66.1	27.7	4.5	1.8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0.0	60.0	33.7	5.3	1.1
	없다	0.0	72.1	20.9	4.7	2.3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72.2	22.2	2.8	2.8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61.4	35.7	2.9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59.4	25.0	12.5	3.1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0.0	63.1	31.0	3.6	2.4
	없다	0.0	64.8	27.8	7.4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0.0	65.5	31.0	3.4	0.0
	결혼(동거 포함)	0.0	61.5	27.7	7.7	3.1
	이혼	0.0	66.7	33.3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생활풍습

문31) 귀하는 다음 측면에서 현재 남한과 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많이 있다	다소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0%(0)	52.9%(73)	36.2%(50)	10.1%(14)	0.7%(1)
성별	남자	0.0	50.9	34.0	15.1	0.0
	여자	0.0	54.1	37.6	7.1	1.2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0.0	0.0	0.0	0.0
	20대	0.0	63.5	28.8	7.7	0.0
	30대	0.0	50.0	37.5	12.5	0.0
	40대	0.0	44.1	41.2	11.8	2.9
	50대	0.0	50.0	37.5	12.5	0.0
	60대	0.0	33.3	66.7	0.0	0.0
	70대	0.0	0.0	100.0	0.0	0.0
	80대	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38.9	50.0	11.1	0.0
	전문학교	0.0	50.0	31.3	18.8	0.0
	고등중학교	0.0	56.3	34.0	8.7	1.0
	인민학교	0.0	0.0	100.0	0.0	0.0
	무학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당원	0.0	50.0	38.5	11.5	0.0
	후보당원	0.0	0.0	0.0	0.0	0.0
	비당원	0.0	53.6	35.7	9.8	0.9
장사경험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있다	0.0	50.5	35.8	12.6	1.1
	없다	0.0	58.1	37.2	4.7	0.0
북한소식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63.9	30.6	5.6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47.1	38.6	14.3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53.1	37.5	6.3	3.1
남한친척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있다	0.0	51.2	38.1	9.5	1.2
	없다	0.0	55.6	33.3	11.1	0.0
결혼상태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미혼	0.0	58.6	34.5	6.9	0.0
	결혼(동거 포함)	0.0	41.5	41.5	15.4	1.5
	이혼	0.0	80.0	2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가치관

문32) 귀하는 다음 측면에서 현재 남한과 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많이 있다	다소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0%(0)	64.5%(89)	26.1%(36)	6.5%(9)	2.9%(4)
성별	남자	0.0	58.5	34.0	7.5	0.0
	여자	0.0	68.2	21.2	5.9	4.7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0.0	0.0	0.0	0.0
	20대	0.0	65.4	25.0	7.7	1.9
	30대	0.0	56.3	28.1	9.4	6.3
	40대	0.0	73.5	20.6	2.9	2.9
	50대	0.0	62.5	37.5	0.0	0.0
	60대	0.0	66.7	0.0	33.3	0.0
	70대	0.0	0.0	100.0	0.0	0.0
	80대	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72.2	22.2	0.0	5.6
	전문학교	0.0	68.8	25.0	0.0	6.3
	고등중학교	0.0	62.1	27.2	8.7	1.9
	인민학교	0.0	100.0	0.0	0.0	0.0
	무학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당원	0.0	69.2	26.9	3.8	0.0
	후보당원	0.0	0.0	0.0	0.0	0.0
	비당원	0.0	63.4	25.9	7.1	3.6
장사경험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있다	0.0	67.4	24.2	6.3	2.1
	없다	0.0	58.1	30.2	7.0	4.7
북한소식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72.2	16.7	11.1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65.7	28.6	4.3	1.4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53.1	31.3	6.3	9.4
남한친척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있다	0.0	64.3	26.2	6.0	3.6
	없다	0.0	64.8	25.9	7.4	1.9
결혼상태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미혼	0.0	62.1	29.3	6.9	1.7
	결혼(동거 포함)	0.0	63.1	24.6	7.7	4.6
	이혼	0.0	80.0	2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남한의 무력도발

문33)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이 북한을 무력으로 도발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많이 있다	약간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0%(0)	29.7%(41)	27.5%(38)	22.5%(31)	20.3%(28)
성별	남자	0.0	32.1	30.2	22.6	15.1
	여자	0.0	28.2	25.9	22.4	23.5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0.0	0.0	0.0	0.0
	20대	0.0	25.0	26.9	19.2	28.8
	30대	0.0	31.3	31.3	25.0	12.5
	40대	0.0	32.4	26.5	26.5	14.7
	50대	0.0	37.5	31.3	12.5	18.8
	60대	0.0	33.3	0.0	66.7	0.0
	70대	0.0	0.0	0.0	0.0	100.0
	80대	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44.4	11.1	5.6	38.9
	전문학교	0.0	37.5	12.5	31.3	18.8
	고등학교	0.0	26.2	33.0	24.3	16.5
	인민학교	0.0	0.0	0.0	0.0	100.0
	무학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당원	0.0	34.6	38.5	23.1	3.8
	후보당원	0.0	0.0	0.0	0.0	0.0
	비당원	0.0	28.6	25.0	22.3	24.1
장사경험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있다	0.0	32.6	28.4	22.1	16.8
	없다	0.0	23.3	25.6	23.3	27.9
북한소식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30.6	33.3	13.9	22.2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32.9	24.3	25.7	17.1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21.9	28.1	25.0	25.0
남한친척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있다	0.0	32.1	28.6	23.8	15.5
	없다	0.0	25.9	25.9	20.4	27.8
결혼상태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미혼	0.0	20.7	29.3	24.1	25.9
	결혼(동거 포함)	0.0	38.5	24.6	21.5	15.4
	이혼	0.0	26.7	33.3	20.0	2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북핵위협

문34)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북한의 핵무기가 남한에 얼마나 위협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매우 위험적이다	다소 위험적이다	별로 위험적이지 않다	전혀 위험적이지 않다
		0%(0)	63.0%(87)	26.1%(36)	9.4%(13)	1.4%(2)
성별	남자	0.0	64.2	28.3	5.7	1.9
	여자	0.0	62.4	24.7	11.8	1.2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0.0	0.0	0.0	0.0
	20대	0.0	57.7	30.8	11.5	0.0
	30대	0.0	56.3	31.3	9.4	3.1
	40대	0.0	76.5	17.6	5.9	0.0
	50대	0.0	68.8	18.8	6.3	6.3
	60대	0.0	66.7	33.3	0.0	0.0
	70대	0.0	0.0	0.0	100.0	0.0
	80대	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44.4	33.3	16.7	5.6
	전문학교	0.0	62.5	31.3	6.3	0.0
	고등학교	0.0	67.0	23.3	8.7	1.0
	인민학교	0.0	0.0	100.0	0.0	0.0
	무학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당원	0.0	61.5	26.9	7.7	3.8
	후보당원	0.0	0.0	0.0	0.0	0.0
	비당원	0.0	63.4	25.9	9.8	0.9
장사경험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있다	0.0	58.9	29.5	10.5	1.1
	없다	0.0	72.1	18.6	7.0	2.3
북한소식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69.4	27.8	2.8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62.9	25.7	10.0	1.4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56.3	25.0	15.6	3.1
남한친척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있다	0.0	72.6	21.4	3.6	2.4
	없다	0.0	48.1	33.3	18.5	0.0
결혼상태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미혼	0.0	53.4	39.7	6.9	0.0
	결혼(동거 포함)	0.0	69.2	18.5	9.2	3.1
	이혼	0.0	73.3	6.7	2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대북지원 인식

문35) 귀하는 북한주민들이 남한이 쌀, 비료 등을 북한에 지원한 적이 있다는 것을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매우 잘 알고 있다	조금 알고 있다	별로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0%[0]	21.0%[29]	42.0%[58]	26.8%[37]	10.1%[14]
성별	남자	0.0	30.2	43.4	22.6	3.8
	여자	0.0	15.3	41.2	29.4	14.1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0.0	0.0	0.0	0.0
	20대	0.0	11.5	44.2	28.8	15.4
	30대	0.0	25.0	46.9	28.1	0.0
	40대	0.0	29.4	41.2	23.5	5.9
	50대	0.0	25.0	37.5	25.0	12.5
	60대	0.0	33.3	0.0	33.3	33.3
	70대	0.0	0.0	0.0	0.0	100.0
	80대	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33.3	44.4	22.2	0.0
	전문학교	0.0	18.8	31.3	25.0	25.0
	고등중학교	0.0	19.4	43.7	27.2	9.7
	인민학교	0.0	0.0	0.0	100.0	0.0
	무학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당원	0.0	34.6	38.5	19.2	7.7
	후보당원	0.0	0.0	0.0	0.0	0.0
	비당원	0.0	17.9	42.9	28.6	10.7
장사경험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있다	0.0	22.1	41.1	28.4	8.4
	없다	0.0	18.6	44.2	23.3	14.0
북한소식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36.1	30.6	27.8	5.6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18.6	48.6	22.9	1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9.4	40.6	34.4	15.6
남한친척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있다	0.0	16.7	47.6	22.6	13.1
	없다	0.0	27.8	33.3	33.3	5.6
결혼상태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미혼	0.0	20.7	41.4	27.6	10.3
	결혼(동거 포함)	0.0	23.1	41.5	24.6	10.8
	이혼	0.0	13.3	46.7	33.3	6.7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대북지원 규모

문36)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의 대북지원 규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대폭 늘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조금 늘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조금 줄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대폭 줄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대북지원을 증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0.7%(1)	0%[0]	40.6%(56)	22.5%(31)	4.3%(6)	6.5%(9)	25.4%(35)
성별	남자	1.9	0.0	37.7	15.1	1.9	7.5	35.8
	여자	0.0	0.0	42.4	27.1	5.9	5.9	18.8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0.0	0.0	0.0	0.0	0.0	0.0
	20대	1.9	0.0	36.5	34.6	5.8	1.9	19.2
	30대	0.0	0.0	53.1	18.8	3.1	6.3	18.8
	40대	0.0	0.0	35.3	17.6	5.9	5.9	35.3
	50대	0.0	0.0	37.5	6.3	0.0	12.5	43.8
	60대	0.0	0.0	66.7	0.0	0.0	33.3	0.0
	70대	0.0	0.0	0.0	0.0	0.0	100.0	0.0
	80대	0.0	0.0	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0.0	44.4	22.2	0.0	16.7	16.7
	전문학교	0.0	0.0	31.3	37.5	12.5	0.0	18.8
	고등중학교	1.0	0.0	41.7	20.4	3.9	5.8	27.2
	인민학교	0.0	0.0	0.0	0.0	0.0	0.0	100.0
	무학	0.0	0.0	0.0	0.0	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0.0	46.2	11.5	3.8	11.5	26.9
	후보당원	0.0	0.0	0.0	0.0	0.0	0.0	0.0
	비당원	0.9	0.0	39.3	25.0	4.5	5.4	25.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1.1	0.0	42.1	18.9	5.3	6.3	26.3
	없다	0.0	0.0	37.2	30.2	2.3	7.0	23.3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2.8	0.0	52.8	11.1	5.6	5.6	22.2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0.0	32.9	28.6	5.7	7.1	25.7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0.0	43.8	21.9	0.0	6.3	28.1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1.2	0.0	47.6	25.0	4.8	4.8	16.7
	없다	0.0	0.0	29.6	18.5	3.7	9.3	38.9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1.7	0.0	32.8	34.5	6.9	3.4	20.7
	결혼(동거 포함)	0.0	0.0	44.6	12.3	3.1	9.2	30.8
	이혼	0.0	0.0	53.3	20.0	0.0	6.7	2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남한의 대북지원 인식

문37) 귀하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 북한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매우 긍정	약간 긍정	부정도 긍정도 아님	약간 부정	매우 부정
		0%[0]	56.5%(78)	21.7%(30)	14.5%(20)	5.8%(8)	1.4%(2)
성별	남자	0.0	54.7	20.8	15.1	5.7	3.8
	여자	0.0	57.6	22.4	14.1	5.9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0.0	0.0	0.0	0.0	0.0
	20대	0.0	67.3	13.5	17.3	0.0	1.9
	30대	0.0	50.0	31.3	6.3	12.5	0.0
	40대	0.0	47.1	26.5	14.7	11.8	0.0
	50대	0.0	43.8	25.0	25.0	0.0	6.3
	60대	0.0	100.0	0.0	0.0	0.0	0.0
	70대	0.0	100.0	0.0	0.0	0.0	0.0
	80대	0.0	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66.7	22.2	11.1	0.0	0.0
	전문학교	0.0	43.8	37.5	6.3	12.5	0.0
	고등중학교	0.0	57.3	19.4	15.5	5.8	1.9
	인민학교	0.0	0.0	0.0	100.0	0.0	0.0
	무학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당원	0.0	61.5	26.9	3.8	7.7	0.0
	후보당원	0.0	0.0	0.0	0.0	0.0	0.0
	비당원	0.0	55.4	20.5	17.0	5.4	1.8
장사경험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있다	0.0	52.6	24.2	14.7	7.4	1.1
	없다	0.0	65.1	16.3	14.0	2.3	2.3
북한소식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66.7	19.4	8.3	5.6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57.1	21.4	12.9	7.1	1.4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43.8	25.0	25.0	3.1	3.1
남한친척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있다	0.0	65.5	19.0	7.1	6.0	2.4
	없다	0.0	42.6	25.9	25.9	5.6	0.0
결혼상태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미혼	0.0	58.6	19.0	17.2	3.4	1.7
	결혼(동거 포함)	0.0	52.3	24.6	15.4	6.2	1.5
	이혼	0.0	66.7	20.0	0.0	13.3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남한의 대북 경제투자 인식

문38) 귀하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 북한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매우 긍정	약간 긍정	부정도 긍정도 아님	약간 부정	매우 부정
		0%[0]	48.6%(67)	27.5%(38)	15.2%(21)	4.3%(6)	4.3%(6)
성별	남자	0.0	47.2	24.5	15.1	3.8	9.4
	여자	0.0	49.4	29.4	15.3	4.7	1.2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0.0	0.0	0.0	0.0	0.0
	20대	0.0	53.8	32.7	9.6	1.9	1.9
	30대	0.0	53.1	12.5	21.9	9.4	3.1
	40대	0.0	29.4	41.2	20.6	5.9	2.9
	50대	0.0	56.3	18.8	12.5	0.0	12.5
	60대	0.0	66.7	0.0	0.0	0.0	33.3
	70대	0.0	100.0	0.0	0.0	0.0	0.0
	80대	0.0	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66.7	16.7	11.1	0.0	5.6
	전문학교	0.0	50.0	31.3	18.8	0.0	0.0
	고등중학교	0.0	45.6	29.1	14.6	5.8	4.9
	인민학교	0.0	0.0	0.0	100.0	0.0	0.0
	무학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당원	0.0	46.2	34.6	7.7	7.7	3.8
	후보당원	0.0	0.0	0.0	0.0	0.0	0.0
	비당원	0.0	49.1	25.9	17.0	3.6	4.5
장사경험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있다	0.0	44.2	31.6	16.8	5.3	2.1
	없다	0.0	58.1	18.6	11.6	2.3	9.3
북한소식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50.0	27.8	11.1	5.6	5.6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48.6	30.0	14.3	4.3	2.9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46.9	21.9	21.9	3.1	6.3
남한친척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있다	0.0	54.8	26.2	10.7	4.8	3.6
	없다	0.0	38.9	29.6	22.2	3.7	5.6
결혼상태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미혼	0.0	50.0	27.6	15.5	5.2	1.7
	결혼(동거 포함)	0.0	46.2	27.7	15.4	3.1	7.7
	이혼	0.0	53.3	26.7	13.3	6.7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개성공업지구 인식

문39) 귀하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 북한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매우 긍정	약간 긍정	부정도 긍정도 아님	약간 부정	매우 부정
		0%[0]	63.8%(88)	21.7%(30)	9.4%(13)	1.4%(2)	3.6%(5)
성별	남자	0.0	56.6	22.6	11.3	1.9	7.5
	여자	0.0	68.2	21.2	8.2	1.2	1.2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0.0	0.0	0.0	0.0	0.0
	20대	0.0	71.2	21.2	5.8	0.0	1.9
	30대	0.0	75.0	12.5	6.3	3.1	3.1
	40대	0.0	44.1	38.2	14.7	0.0	2.9
	50대	0.0	56.3	12.5	18.8	6.3	6.3
	60대	0.0	66.7	0.0	0.0	0.0	33.3
	70대	0.0	100.0	0.0	0.0	0.0	0.0
	80대	0.0	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61.1	22.2	11.1	0.0	5.6
	전문학교	0.0	68.8	12.5	12.5	6.3	0.0
	고등학교	0.0	64.1	23.3	7.8	1.0	3.9
	인민학교	0.0	0.0	0.0	100.0	0.0	0.0
	무학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당원	0.0	65.4	23.1	7.7	0.0	3.8
	후보당원	0.0	0.0	0.0	0.0	0.0	0.0
	비당원	0.0	63.4	21.4	9.8	1.8	3.6
장사경험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있다	0.0	64.2	22.1	10.5	2.1	1.1
	없다	0.0	62.8	20.9	7.0	0.0	9.3
북한소식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75.0	16.7	2.8	0.0	5.6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64.3	24.3	7.1	1.4	2.9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50.0	21.9	21.9	3.1	3.1
남한친척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있다	0.0	66.7	20.2	8.3	1.2	3.6
	없다	0.0	59.3	24.1	11.1	1.9	3.7
결혼상태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미혼	0.0	70.7	19.0	8.6	0.0	1.7
	결혼(동거 포함)	0.0	53.8	26.2	10.8	3.1	6.2
	이혼	0.0	80.0	13.3	6.7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주체사상 자부심

문40) 귀하는 북한주민들이 주체사상에 대해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매우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약간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별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전혀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0%[0]	44.2%(61)	18.8%(26)	26.1%(36)	10.9%(15)
성별	남자	0.0	50.9	18.9	24.5	5.7
	여자	0.0	40.0	18.8	27.1	14.1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0.0	0.0	0.0	0.0
	20대	0.0	38.5	21.2	32.7	7.7
	30대	0.0	53.1	9.4	28.1	9.4
	40대	0.0	47.1	32.4	14.7	5.9
	50대	0.0	43.8	6.3	25.0	25.0
	60대	0.0	33.3	0.0	0.0	66.7
	70대	0.0	0.0	0.0	100.0	0.0
	80대	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44.4	27.8	16.7	11.1
	전문학교	0.0	50.0	18.8	31.3	0.0
	고등학교	0.0	43.7	17.5	27.2	11.7
	인민학교	0.0	0.0	0.0	0.0	100.0
	무학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당원	0.0	61.5	7.7	23.1	7.7
	후보당원	0.0	0.0	0.0	0.0	0.0
	비당원	0.0	40.2	21.4	26.8	11.6
장사경험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있다	0.0	45.3	20.0	23.2	11.6
	없다	0.0	41.9	16.3	32.6	9.3
북한소식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50.0	8.3	22.2	19.4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42.9	24.3	28.6	4.3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40.6	18.8	25.0	15.6
남한친척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있다	0.0	47.6	14.3	29.8	8.3
	없다	0.0	38.9	25.9	20.4	14.8
결혼상태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미혼	0.0	39.7	22.4	27.6	10.3
	결혼(동거 포함)	0.0	46.2	15.4	29.2	9.2
	이혼	0.0	53.3	20.0	6.7	2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생산규율 유지

문47) 귀하가 북한에 살고 계실 때 직장에서 생산규율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었습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거의 대부분 지켜지고 있다	대체로 지켜지고 있는 편이다	대체로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거의 대부분 변칙적 으로 운영되고 있다
		0%[0]	8.7%[12]	15.9%[22]	33.3%[46]	42.0%[58]
성별	남자	0.0	3.8	20.8	35.8	39.6
	여자	0.0	11.8	12.9	31.8	43.5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0.0	0.0	0.0	0.0
	20대	0.0	3.8	17.3	40.4	38.5
	30대	0.0	3.1	12.5	31.3	53.1
	40대	0.0	14.7	14.7	29.4	41.2
	50대	0.0	18.8	18.8	25.0	37.5
	60대	0.0	0.0	33.3	33.3	33.3
	70대	0.0	100.0	0.0	0.0	0.0
	80대	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11.1	16.7	33.3	38.9
	전문학교	0.0	6.3	18.8	25.0	50.0
	고등학교	0.0	8.7	14.6	35.0	41.7
	인민학교	0.0	0.0	100.0	0.0	0.0
	무학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당원	0.0	11.5	19.2	30.8	38.5
	후보당원	0.0	0.0	0.0	0.0	0.0
	비당원	0.0	8.0	15.2	33.9	42.9
장사경험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있다	0.0	7.4	14.7	35.8	42.1
	없다	0.0	11.6	18.6	27.9	41.9
북한소식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8.3	16.7	30.6	44.4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7.1	15.7	31.4	45.7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12.5	15.6	40.6	31.3
남한친척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있다	0.0	7.1	14.3	33.3	45.2
	없다	0.0	11.1	18.5	33.3	37.0
결혼상태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미혼	0.0	5.2	20.7	32.8	41.4
	결혼(동거 포함)	0.0	10.8	12.3	33.8	43.1
	이혼	0.0	13.3	13.3	33.3	4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생활총화 출석률

문48) 귀하가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북한주민들의 주간 생활총화 출석률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30 미만	30~50	50~70	70~90	90 이상
		0%[0]	14.5%[20]	14.5%[20]	26.1%[36]	24.6%[34]	20.3%[28]
성별	남자	0.0	17.0	13.2	30.2	20.8	18.9
	여자	0.0	12.9	15.3	23.5	27.1	21.2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0.0	0.0	0.0	0.0	0.0
	20대	0.0	9.6	13.5	23.1	26.9	26.9
	30대	0.0	21.9	15.6	21.9	28.1	12.5
	40대	0.0	11.8	14.7	32.4	23.5	17.6
	50대	0.0	18.8	18.8	25.0	18.8	18.8
	60대	0.0	33.3	0.0	33.3	0.0	33.3
	70대	0.0	0.0	0.0	100.0	0.0	0.0
	80대	0.0	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16.7	5.6	22.2	33.3	22.2
	전문학교	0.0	6.3	25.0	25.0	25.0	18.8
	고등학교	0.0	14.6	14.6	27.2	23.3	20.4
	인민학교	0.0	100.0	0.0	0.0	0.0	0.0
	무학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당원	0.0	15.4	11.5	30.8	23.1	19.2
	후보당원	0.0	0.0	0.0	0.0	0.0	0.0
	비당원	0.0	14.3	15.2	25.0	25.0	20.5
장사경험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있다	0.0	16.8	14.7	25.3	23.2	20.0
	없다	0.0	9.3	14.0	27.9	27.9	20.9
북한소식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13.9	22.2	30.6	8.3	25.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17.1	11.4	22.9	35.7	12.9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9.4	12.5	28.1	18.8	31.3
남한친척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있다	0.0	15.5	15.5	23.8	26.2	19.0
	없다	0.0	13.0	13.0	29.6	22.2	22.2
결혼상태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미혼	0.0	10.3	15.5	29.3	24.1	20.7
	결혼(동거 포함)	0.0	16.9	12.3	27.7	26.2	16.9
	이혼	0.0	20.0	20.0	6.7	20.0	33.3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남북한 경제시스템 지지도

문49)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사회주의 경제(계획경제)와 자본주의 경제(시장경제, 개인소유경제)중 어느 것을 더 지지했습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사회주의 경제를 훨씬 더 지지했다	사회주의 경제를 약간 더 지지했다	두 가지 모두를 비슷하게 지지했다	자본주의 경제를 약간 더 지지했다	자본주의 경제를 훨씬 더 지지했다	
		0%[0]	8.0%[11]	5.1%[7]	11.6%[16]	39.1%[54]	36.2%[50]
성별	남자	0.0	9.4	3.8	15.1	39.6	32.1
	여자	0.0	7.1	5.9	9.4	38.8	38.8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0.0	0.0	0.0	0.0	0.0
	20대	0.0	13.5	1.9	15.4	34.6	34.6
	30대	0.0	3.1	3.1	12.5	43.8	37.5
	40대	0.0	5.9	11.8	5.9	38.2	38.2
	50대	0.0	6.3	0.0	12.5	43.8	37.5
	60대	0.0	0.0	0.0	0.0	66.7	33.3
	70대	0.0	0.0	100.0	0.0	0.0	0.0
	80대	0.0	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11.1	11.1	5.6	16.7	55.6
	전문학교	0.0	0.0	0.0	6.3	62.5	31.3
	고등중학교	0.0	8.7	4.9	12.6	39.8	34.0
	인민학교	0.0	0.0	0.0	100.0	0.0	0.0
	무학	0.0	0.0	0.0	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3.8	3.8	0.0	57.7	34.6
	후보당원	0.0	0.0	0.0	0.0	0.0	0.0
	비당원	0.0	8.9	5.4	14.3	34.8	36.6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0.0	6.3	6.3	12.6	37.9	36.8
	없다	0.0	11.6	2.3	9.3	41.9	34.9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8.3	5.6	5.6	47.2	33.3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7.1	5.7	14.3	38.6	34.3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9.4	3.1	12.5	31.3	43.8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0.0	8.3	4.8	11.9	36.9	38.1
	없다	0.0	7.4	5.6	11.1	42.6	33.3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0.0	12.1	3.4	15.5	34.5	34.5
	결혼(동거 포함)	0.0	6.2	4.6	9.2	41.5	38.5
	이혼	0.0	0.0	13.3	6.7	46.7	33.3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다른 지역 방문

문50)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얼마나 자주 다른 지역(다른 군, 시, 도, 외국)에 가보셨습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자주 가 보았다	가끔 가 보았다	거의 가보지 못했다	
		25.4%(35)	42.8%(59)	31.9%(44)	
성별	남자	0.0	32.1	45.3	22.6
	여자	0.0	21.2	41.2	37.6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0.0	0.0	0.0
	20대	0.0	21.2	48.1	30.8
	30대	0.0	28.1	53.1	18.8
	40대	0.0	32.4	23.5	44.1
	50대	0.0	18.8	50.0	31.3
	60대	0.0	33.3	0.0	66.7
	70대	0.0	0.0	100.0	0.0
	80대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38.9	38.9	22.2
	전문학교	0.0	37.5	43.8	18.8
	고등중학교	0.0	21.4	42.7	35.9
	인민학교	0.0	0.0	100.0	0.0
	무학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38.5	30.8	30.8
	후보당원	0.0	0.0	0.0	0.0
	비당원	0.0	22.3	45.5	32.1
장사경험	있다	0.0	32.6	44.2	23.2
	없다	0.0	9.3	39.5	51.2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30.6	33.3	36.1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27.1	50.0	22.9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15.6	37.5	46.9
남한친척	있다	0.0	27.4	44.0	28.6
	없다	0.0	22.2	40.7	37.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0.0	20.7	48.3	31.0
	결혼(동거 포함)	0.0	29.2	36.9	33.8
	이혼	0.0	26.7	46.7	26.7
결혼상태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집단과 개인 우선도

문51)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일상생활에서 집단과 나(또는 가족) 중에서 무엇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집단이 훨씬 더 우선이다	집단이 조금 더 우선이다	나(또는 가족)이 훨씬 더 우선이다	나(또는 가족)이 조금 더 우선이다
		0%[0]	9.4%(13)	8.0%(11)	78.3%(108)	4.3%(6)
성별	남자	0.0	9.4	9.4	79.2	1.9
	여자	0.0	9.4	7.1	77.6	5.9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0.0	0.0	0.0	0.0
	20대	0.0	11.5	11.5	75.0	1.9
	30대	0.0	0.0	12.5	78.1	9.4
	40대	0.0	11.8	2.9	82.4	2.9
	50대	0.0	18.8	0.0	75.0	6.3
	60대	0.0	0.0	0.0	100.0	0.0
	70대	0.0	0.0	0.0	100.0	0.0
	80대	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16.7	0.0	77.8	5.6
	전문학교	0.0	6.3	6.3	87.5	0.0
	고등학교	0.0	8.7	9.7	77.7	3.9
	인민학교	0.0	0.0	0.0	0.0	100.0
	무학	0.0	0.0	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7.7	11.5	76.9	3.8
	후보당원	0.0	0.0	0.0	0.0	0.0
	비당원	0.0	9.8	7.1	78.6	4.5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0.0	6.3	7.4	81.1	5.3
	없다	0.0	16.3	9.3	72.1	2.3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8.3	13.9	75.0	2.8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10.0	4.3	80.0	5.7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9.4	9.4	78.1	3.1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0.0	8.3	6.0	81.0	4.8
	없다	0.0	11.1	11.1	74.1	3.7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0.0	6.9	13.8	75.9	3.4
	결혼(동거 포함)	0.0	9.2	4.6	83.1	3.1
	이혼	0.0	20.0	0.0	66.7	13.3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언론에 대한 신뢰도

문52)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로동신문이나 조선중앙방송의 보도가 얼마나 사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대부분 사실이라고 생각했다	일부만 사실이라고 생각했다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생각해본 적 없다
		0%[0]	31.2%(43)	31.2%(43)	26.8%(37)	10.9%(15)
성별	남자	0.0	28.3	45.3	18.9	7.5
	여자	0.0	32.9	22.4	31.8	12.9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0.0	0.0	0.0	0.0
	20대	0.0	32.7	23.1	28.8	15.4
	30대	0.0	28.1	37.5	28.1	6.3
	40대	0.0	35.3	26.5	26.5	11.8
	50대	0.0	31.3	50.0	12.5	6.3
	60대	0.0	0.0	66.7	33.3	0.0
	70대	0.0	0.0	0.0	100.0	0.0
	80대	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27.8	50.0	16.7	5.6
	전문학교	0.0	18.8	37.5	18.8	25.0
	고등학교	0.0	34.0	27.2	29.1	9.7
	인민학교	0.0	0.0	0.0	100.0	0.0
	무학	0.0	0.0	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30.8	57.7	7.7	3.8
	후보당원	0.0	0.0	0.0	0.0	0.0
	비당원	0.0	31.3	25.0	31.3	12.5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0.0	28.4	30.5	31.6	9.5
	없다	0.0	37.2	32.6	16.3	14.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33.3	33.3	22.2	11.1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27.1	34.3	31.4	7.1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37.5	21.9	21.9	18.8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0.0	28.6	34.5	25.0	11.9
	없다	0.0	35.2	25.9	29.6	9.3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0.0	27.6	24.1	31.0	17.2
	결혼(동거 포함)	0.0	33.8	35.4	24.6	6.2
	이혼	0.0	33.3	40.0	20.0	6.7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평화위협국가

문55)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다음 국가들 중 어느 나라가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미국	일본	남한	중국	러시아
		0%(0)	84.1%(116)	3.6%(5)	2.9%(4)	8.0%(11)	1.4%(2)
성별	남자	0.0	90.6	0.0	1.9	5.7	1.9
	여자	0.0	80.0	5.9	3.5	9.4	1.2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0.0	0.0	0.0	0.0	0.0
	20대	0.0	80.8	3.8	5.8	7.7	1.9
	30대	0.0	78.1	3.1	0.0	15.6	3.1
	40대	0.0	88.2	2.9	2.9	5.9	0.0
	50대	0.0	93.8	6.3	0.0	0.0	0.0
	60대	0.0	100.0	0.0	0.0	0.0	0.0
	70대	0.0	100.0	0.0	0.0	0.0	0.0
	80대	0.0	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77.8	0.0	5.6	11.1	5.6
	전문학교	0.0	75.0	12.5	6.3	6.3	0.0
	고등학교	0.0	87.4	1.9	1.9	7.8	1.0
	인민학교	0.0	0.0	100.0	0.0	0.0	0.0
	무학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당원	0.0	88.5	7.7	0.0	3.8	0.0
	후보당원	0.0	0.0	0.0	0.0	0.0	0.0
	비당원	0.0	83.0	2.7	3.6	8.9	1.8
장사경험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있다	0.0	82.1	4.2	3.2	8.4	2.1
	없다	0.0	88.4	2.3	2.3	7.0	0.0
북한소식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88.9	2.8	2.8	2.8	2.8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84.3	1.4	1.4	12.9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78.1	9.4	6.3	3.1	3.1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0.0	88.1	4.8	2.4	4.8	0.0
	없다	0.0	77.8	1.9	3.7	13.0	3.7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0.0	79.3	3.4	5.2	8.6	3.4
	결혼(동거 포함)	0.0	92.3	0.0	1.5	6.2	0.0
	이혼	0.0	66.7	20.0	0.0	13.3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미국의 통일희망

문56)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다음 국가들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매우 원한다	원하는 편이다	원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0%(0)	10.1%(14)	8.7%(12)	26.8%(37)	54.3%(75)
성별	남자	0.0	11.3	5.7	26.4	56.6
	여자	0.0	9.4	10.6	27.1	52.9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0.0	0.0	0.0	0.0
	20대	0.0	7.7	15.4	25.0	51.9
	30대	0.0	15.6	3.1	31.3	50.0
	40대	0.0	8.8	5.9	23.5	61.8
	50대	0.0	12.5	6.3	31.3	50.0
	60대	0.0	0.0	0.0	0.0	100.0
	70대	0.0	0.0	0.0	0.0	0.0
	80대	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11.1	11.1	11.1	66.7
	전문학교	0.0	6.3	6.3	31.3	56.3
	고등학교	0.0	9.7	8.7	29.1	52.4
	인민학교	0.0	100.0	0.0	0.0	0.0
	무학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당원	0.0	7.7	3.8	19.2	69.2
	후보당원	0.0	0.0	0.0	0.0	0.0
	비당원	0.0	10.7	9.8	28.6	50.9
장사경험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있다	0.0	10.5	9.5	25.3	54.7
	없다	0.0	9.3	7.0	30.2	53.5
북한소식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2.8	2.8	30.6	63.9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15.7	10.0	20.0	54.3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6.3	12.5	37.5	43.8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0.0	8.3	9.5	20.2	61.9
	없다	0.0	13.0	7.4	37.0	42.6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0.0	10.3	13.8	27.6	48.3
	결혼(동거 포함)	0.0	7.7	6.2	27.7	58.5
	이혼	0.0	20.0	0.0	20.0	6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중국의 통일희망

문57)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다음 국가들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매우 원한다	원하는 편이다	원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0%[0]	4.3%[6]	13.0%[18]	40.6%[56]	42.0%[58]
성별	남자	0.0	3.8	5.7	41.5	49.1
	여자	0.0	4.7	17.6	40.0	37.6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0.0	0.0	0.0	0.0
	20대	0.0	1.9	17.3	36.5	44.2
	30대	0.0	6.3	12.5	43.8	37.5
	40대	0.0	2.9	8.8	50.0	38.2
	50대	0.0	12.5	0.0	25.0	62.5
	60대	0.0	0.0	66.7	33.3	0.0
	70대	0.0	0.0	0.0	100.0	0.0
	80대	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5.6	0.0	38.9	55.6
	전문학교	0.0	12.5	18.8	31.3	37.5
	고등학교	0.0	2.9	14.6	41.7	40.8
	인민학교	0.0	0.0	0.0	100.0	0.0
	무학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당원	0.0	7.7	15.4	34.6	42.3
	후보당원	0.0	0.0	0.0	0.0	0.0
	비당원	0.0	3.6	12.5	42.0	42.0
장사경험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있다	0.0	5.3	9.5	43.2	42.1
	없다	0.0	2.3	20.9	34.9	41.9
북한소식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2.8	16.7	38.9	41.7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5.7	10.0	47.1	37.1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3.1	15.6	28.1	53.1
남한친척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있다	0.0	6.0	16.7	41.7	35.7
	없다	0.0	1.9	7.4	38.9	51.9
결혼상태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미혼	0.0	0.0	20.7	36.2	43.1
	결혼(동거 포함)	0.0	7.7	7.7	41.5	43.1
	이혼	0.0	6.7	6.7	53.3	33.3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일본의 통일희망

문58)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다음 국가들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매우 원한다	원하는 편이다	원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0%[0]	2.9%[4]	8.0%[11]	34.8%[48]	54.3%[75]
성별	남자	0.0	3.8	13.2	26.4	56.6
	여자	0.0	2.4	4.7	40.0	52.9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0.0	0.0	0.0	0.0
	20대	0.0	1.9	3.8	42.3	51.9
	30대	0.0	6.3	15.6	21.9	56.3
	40대	0.0	0.0	8.8	38.2	52.9
	50대	0.0	6.3	0.0	25.0	68.8
	60대	0.0	0.0	0.0	66.7	33.3
	70대	0.0	0.0	100.0	0.0	0.0
	80대	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0.0	16.7	33.3	50.0
	전문학교	0.0	6.3	0.0	37.5	56.3
	고등학교	0.0	2.9	7.8	35.0	54.4
	인민학교	0.0	0.0	0.0	0.0	100.0
	무학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당원	0.0	7.7	7.7	30.8	53.8
	후보당원	0.0	0.0	0.0	0.0	0.0
	비당원	0.0	1.8	8.0	35.7	54.5
장사경험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있다	0.0	3.2	9.5	34.7	52.6
	없다	0.0	2.3	4.7	34.9	58.1
북한소식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2.8	5.6	33.3	58.3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4.3	12.9	35.7	47.1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0.0	0.0	34.4	65.6
남한친척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있다	0.0	3.6	6.0	38.1	52.4
	없다	0.0	1.9	11.1	29.6	57.4
결혼상태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미혼	0.0	1.7	8.6	37.9	51.7
	결혼(동거 포함)	0.0	3.1	7.7	32.3	56.9
	이혼	0.0	6.7	6.7	33.3	53.3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남한주민 포용성

문63) 귀하는 남한에 살면서 탈북자에 대해 남한사람들이 얼마나 포용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매우 포용적이다	약간 포용적이다	별로 포용적이지 못하다	전혀 포용적이지 못하다
		0%[0]	31.9%[44]	44.2%[61]	22.5%[31]	1.4%[2]
성별	남자	0.0	22.6	56.6	20.8	0.0
	여자	0.0	37.6	36.5	23.5	2.4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0.0	0.0	0.0	0.0
	20대	0.0	23.1	46.2	28.8	1.9
	30대	0.0	28.1	50.0	21.9	0.0
	40대	0.0	38.2	41.2	20.6	0.0
	50대	0.0	43.8	37.5	12.5	6.3
	60대	0.0	66.7	33.3	0.0	0.0
	70대	0.0	100.0	0.0	0.0	0.0
	80대	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27.8	44.4	27.8	0.0
	전문학교	0.0	18.8	56.3	18.8	6.3
	고등학교	0.0	35.0	42.7	22.3	0.0
	인민학교	0.0	0.0	0.0	0.0	100.0
	무학	0.0	0.0	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23.1	53.8	23.1	0.0
	후보당원	0.0	0.0	0.0	0.0	0.0
	비당원	0.0	33.9	42.0	22.3	1.8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0.0	30.5	47.4	21.1	1.1
	없다	0.0	34.9	37.2	25.6	2.3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41.7	38.9	19.4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27.1	50.0	22.9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31.3	37.5	25.0	6.3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0.0	32.1	46.4	20.2	1.2
	없다	0.0	31.5	40.7	25.9	1.9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0.0	20.7	48.3	27.6	3.4
	결혼(동거 포함)	0.0	41.5	38.5	20.0	0.0
	이혼	0.0	33.3	53.3	13.3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국민외식

문64) 귀하는 남한에서 살게 된 이후 자신이 북한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남한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나는 남한사람이다	나는 북한사람이다	나는 남한사람도 북한사람도 아니다
		0%[0]	68.1%[94]	23.9%[33]	8.0%[11]
성별	남자	0.0	52.8	32.1	15.1
	여자	0.0	77.6	18.8	3.5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0.0	0.0	0.0
	20대	0.0	65.4	28.8	5.8
	30대	0.0	68.8	18.8	12.5
	40대	0.0	67.6	23.5	8.8
	50대	0.0	68.8	25.0	6.3
	60대	0.0	100.0	0.0	0.0
	70대	0.0	100.0	0.0	0.0
	80대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55.6	27.8	16.7
	전문학교	0.0	87.5	12.5	0.0
	고등학교	0.0	68.0	25.2	6.8
	인민학교	0.0	0.0	0.0	100.0
	무학	0.0	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61.5	23.1	15.4
	후보당원	0.0	0.0	0.0	0.0
	비당원	0.0	69.6	24.1	6.3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0.0	68.4	23.2	8.4
	없다	0.0	67.4	25.6	7.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72.2	25.0	2.8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65.7	25.7	8.6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68.8	18.8	12.5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0.0	71.4	23.8	4.8
	없다	0.0	63.0	24.1	13.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0.0	62.1	27.6	10.3
	결혼(동거 포함)	0.0	72.3	20.0	7.7
	이혼	0.0	73.3	26.7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취업 형태

문67) 귀하의 현재 취업 형태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고용자	자영업자	실업자	비경제 활동인구
		0%(0)	13.8%(19)	8.0%(11)	5.8%(8)	0.7%(1)	0%(0)	5.8%(8)	65.9%(91)
성별	남자	0.0	20.8	13.2	11.3	0.0	0.0	1.9	52.8
	여자	0.0	9.4	4.7	2.4	1.2	0.0	8.2	74.1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0.0	0.0	0.0	0.0	0.0	0.0	0.0
	20대	0.0	7.7	7.7	1.9	1.9	0.0	5.8	75.0
	30대	0.0	15.6	9.4	9.4	0.0	0.0	9.4	56.3
	40대	0.0	23.5	5.9	2.9	0.0	0.0	5.9	61.8
	50대	0.0	12.5	12.5	12.5	0.0	0.0	0.0	62.5
	60대	0.0	0.0	0.0	33.3	0.0	0.0	0.0	66.7
	70대	0.0	0.0	0.0	0.0	0.0	0.0	0.0	100.0
	80대	0.0	0.0	0.0	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16.7	11.1	22.2	0.0	0.0	5.6	44.4
	전문학교	0.0	12.5	0.0	0.0	0.0	0.0	18.8	68.8
	고등중학교	0.0	13.6	8.7	3.9	1.0	0.0	3.9	68.9
	인민학교	0.0	0.0	0.0	0.0	0.0	0.0	0.0	100.0
	무학	0.0	0.0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0.0
	당원	0.0	23.1	7.7	3.8	0.0	0.0	3.8	61.5
	후보당원	0.0	0.0	0.0	0.0	0.0	0.0	0.0	0.0
	비당원	0.0	11.6	8.0	6.3	0.9	0.0	6.3	67.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0.0	12.6	9.5	5.3	0.0	0.0	7.4	65.3
	없다	0.0	16.3	4.7	7.0	2.3	0.0	2.3	67.4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16.7	8.3	0.0	0.0	0.0	5.6	69.4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15.7	5.7	7.1	1.4	0.0	4.3	65.7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6.3	12.5	9.4	0.0	0.0	9.4	62.5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0.0	13.1	8.3	4.8	1.2	0.0	6.0	66.7
	없다	0.0	14.8	7.4	7.4	0.0	0.0	5.6	64.8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0.0	8.6	12.1	1.7	1.7	0.0	3.4	72.4
	결혼(동거 포함)	0.0	20.0	6.2	9.2	0.0	0.0	7.7	56.9
	이혼	0.0	6.7	0.0	6.7	0.0	0.0	6.7	8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2016 북한이탈주민 의식조사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조사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 조사의 목적은 2015년에 귀하께서 북한에 거주할 당시 통일, 남한사회, 북한사회, 주변국가 등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을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조사에는 2015년에 북한에서 살다가 나오신 분들 중 만18세 이상인 분들이 참여하게 되며, 약 150명이 참여할 것입니다.

설문조사를 마치는데 약 30분 정도가 소요될 것입니다.

귀하께서는 설문조사를 하는 도중에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혹시라도 귀하께서 설문조사에 참여하고 있는 동안에 신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불편함이 느껴지시면 귀하는 언제든지 설문조사를 멈출 수 있습니다.

귀하가 이 설문조사를 통해 제공하는 정보는 북한사회를 더 잘 이해하고 통일정책을 수립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귀하는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자유가 있으며,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서울대학교의 사회학과 정근식 교수이며, 이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 정보가 대중에 공개될 때 귀하의 이름과 다른 어떤 개인 정보도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는 이 연구 참여시 사례비로 3만 5천원을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이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장용석 책임연구원 (02-880-5235)에게 문의해주시시오.

이상에서 설명해 드린 내용을 듣고 이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하신다면 아래에 있는 동의함□에 √표기를 해주십시오.

또한 귀하께서는 나중에 언제든지 동의한 사실을 철회하실 수 있으며, 귀하께서 작성하신 설문지는 폐기 처리됩니다.

바쁘신 와중에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6년 5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장 정근식

동의함 □ (이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동의하시면 □ 안에 √ 표기를 해주십시오.)

통일 인식

1.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하다. ② 약간 필요하다.
- ③ 반반/그저 그렇다. ④ 별로 필요하지 않다.
- ⑤ 전혀 필요하지 않다.

2. 귀하는 북한주민이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되기를 얼마나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원한다. ② 약간 원한다.
- ③ 별로 원하지 않는다.
- ④ 전혀 원하지 않는다.

3.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같은 민족이니까
- ②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
- ③ 남북 간에 전쟁위험을 없애기 위해
- ④ 북한주민이 잘 살 수 있도록
- ⑤ 북한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 ⑥ 기타(적을 것:)

4.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언제쯤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5년 이내 ② 10년 이내
- ③ 20년 이내 ④ 30년 이내
- ⑤ 30년 이상 ⑥ 불가능하다.

5.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북한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 ②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 ③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 ④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5-1. 그럼 귀하는 통일이 자신에게는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 ②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 ③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 ④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6. 귀하는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가 통일되기 이전보다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번호에 동그라미 또는 √로 표시)

	크게 개선	약간 개선	차이 없음	약간 악화	크게 악화
㉓ 빈부격차	1	2	3	4	5
㉔ 실업문제	1	2	3	4	5
㉕ 지역갈등	1	2	3	4	5
㉖ 이념갈등	1	2	3	4	5

7. 귀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통일을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번호에 동그라미로 표시)

	매우 도움이 된다	다소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㉗ 쌀·비료·의약품 지원 등 인도적 대북지원	1	2	3	4
㉘ 학술인·예술인·체육인·종교인 교류 등 사회문화 교류	1	2	3	4
㉙ 금강산개성관광·개성공단사업 등 경제협력	1	2	3	4
㉚ 정기적인 남북간 회담	1	2	3	4

8.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북한의 현 체제로 통일한다.
- ② 북한과 남한의 체제를 절충하여 통일한다.
- ③ 통일 이후에도 북한과 남한의 두 체제가 각각 유지된다.
- ④ 남한의 현 체제로 통일한다.
- ⑤ 통일이 이뤄지지만 어떤 체제이든 상관없다.

9. 귀하는 통일이 되면 어느 지역에서 거주할 생각이십니까?

- ① 북한에서 살 것이다.
- ② 남한에서 살 것이다.
- ③ 남쪽이든 북쪽이든 처한 상황에 따라 선택할 것이다.
- ④ 외국에 나가 살 것이다.

대남 인식

10.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이 북한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 ① 남한은 북한이 도와주어야 할 지원대상이다.
- ② 남한은 북한이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다.
- ③ 남한은 북한과 선의의 경쟁을 하는 대상이다.
- ④ 남한은 북한이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 ⑤ 남한은 북한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 대상이다.

11.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셨습니까?

(*해당번호에 동그라미 또는 √로 표시)

	매우 잘 알았다	조금 알았다	들어 본 적 있다	전혀 몰랐다
㉛ 4.19 혁명	1	2	3	4
㉜ 5.18 광주항쟁	1	2	3	4
㉝ 88서울올림픽	1	2	3	4
㉞ 2002 월드컵	1	2	3	4
㉟ 세월호 사건	1	2	3	4
㊱ 개성공업지구 운영	1	2	3	4

12.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 방송, 영화, 드라마, 노래(음악) 등을 접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자주 접해봤다.
- ② 한두 번 접해봤다.
- ③ 전혀 접해보지 못했다.

12-1. (12번에서 ①과 ②번을 선택한 사람의 경우에만) 귀하는 남한 방송, 영화, 드라마, 노래(음악) 등을 접했을 때 어떤 어떤 느낌이었습니다습니까?

- ① 매우 친숙했다.
- ② 약간 친숙했다.
- ③ 별로 친숙하지 않았다.
- ④ 전혀 친숙하지 않았다.

12-2. 귀하는 남한 방송, 영화, 드라마, 노래(음악) 등을 어떤 경로를 통하여 하셨습니다습니까?

- ① 시장에서 직접 구하여 접했다.
- ② 주변 사람들(친척, 이웃, 친구 등)에게서 구하여 접했다.
- ③ 주변 사람들(친척, 이웃, 친구 등)과 함께 접했다.
- ④ 외국에 나갔을 때 접했다.

13. 귀하는 다음 측면에서 현재 남한과 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해당번호에 동그라미 또는 √로 표시)

	많이 있다	다소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㉞ 선거방식	1	2	3	4
㉟ 생활수준	1	2	3	4
㊱ 역사인식	1	2	3	4
㊲ 언어사용	1	2	3	4
㊳ 생활풍습	1	2	3	4
㊴ 가치관	1	2	3	4

14.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이 북한을 무력으로 도발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많이 있다.
- ② 약간 있다.
- ③ 별로 없다.
- ④ 전혀 없다.

15.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북한의 핵무기가 남한에 얼마나 위협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위협적이다.
- ② 다소 위협적이다.
- ③ 별로 위협적이지 않다.
- ④ 전혀 위협적이지 않다.

16. 귀하는 북한주민들이 남한이 쌀, 비료 등을 북한에 지원한 적이 있다는 것을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잘 알고 있다.
- ② 조금 알고 있다.
- ③ 별로 잘 알지 못하고 있다.
- ④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17.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의 대북 지원 규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대폭 늘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 ② 조금 늘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 ③ 조금 줄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 ④ 대폭 줄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 ⑤ 대북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18. 귀하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 북한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긍정	약간 긍정	부정도 긍정도 아님	약간 부정	매우 부정
㉞ 남한의 대북지원	1	2	3	4	5
㉟ 남한의 대북 경제투자	1	2	3	4	5
㊱ 개성공업지구	1	2	3	4	5

북한실태 변화

19. 귀하는 북한주민들이 주체사상에 대해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
- ② 약간의 자부심을 갖고 있다.
- ③ 별로 자부심을 갖고 있지 않다.
- ④ 전혀 자부심을 갖고 있지 않다.

20.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지지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10% 미만
- ② 20%
- ③ 30%
- ④ 40%
- ⑤ 50%
- ⑥ 60%
- ⑦ 70%
- ⑧ 80%
- ⑨ 90% 이상

21.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공간기관에 의한 사회통제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잘 유지되고 있다.
- ② 대체로 잘 유지되었다.
- ③ 별로 잘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
- ④ 전혀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

22.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북한에 지도자나 정부에 대한 비판 행위(낙서, 삐라 등)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많다.
- ② 약간 있다.
- ③ 대체로 없다.
- ④ 전혀 없다.

23.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북한 사회주의 정권이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5년 미만
- ② 5~10년
- ③ 10~15년
- ④ 15~20년
- ⑤ 20~30년
- ⑥ 30년 이상
- ⑦ 생각해 본 적이 없다.

24.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북한은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라는 견해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찬성했다.
- ② 다소 찬성했다.
- ③ 반반/그저 그랬다.
- ④ 다소 반대했다.
- ⑤ 매우 반대했다.

25.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북한의 경제가 어렵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자연재해로 식량생산이 안되어
- ② 과도한 군사비 지출 때문에
- ③ 국가의 정책이 잘못되어
- ④ 간부들의 관료주의 때문에
- ⑤ 지도자(김정일, 김정은) 때문에
- ⑥ 개혁개방을 하지 않아서
- ⑦ 미국의 경제제재 때문에
- ⑧ 통일이 되지 않아서
- ⑨ 기타 ()

26. 귀하가 북한에 살고 계실 때 직장에서 생산규율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었습니까?

- ① 거의 대부분 지켜지고 있다.
- ② 대체로 지켜지고 있는 편이다.
- ③ 대체로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 ④ 거의 대부분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27. 귀하가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북한주민들의 주간 생활총화 출석률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 ① 30% 미만
- ② 30~50%
- ③ 50~70%
- ④ 70~90%
- ⑤ 90% 이상

28.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사회주의 경제(계획경제)와 자본주의 경제(시장경제, 개인소유경제) 중 어느 것을 더 지지했습니까?

- ① 사회주의 경제를 훨씬 더 지지했다.
- ② 사회주의 경제를 약간 더 지지했다.
- ③ 두 가지 모두를 비슷하게 지지했다.
- ④ 자본주의 경제를 약간 더 지지했다.
- ⑤ 자본주의 경제를 훨씬 더 지지했다.

29.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얼마나 자주 다른 지역(다른 군, 시, 도, 외국)에 가 보셨습니까?

- ① 자주 가보았다.
- ② 가끔 가보았다.
- ③ 거의 가보지 못했다.

30.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일상생활에서 집단과 나(또는 가족) 중에서 무엇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집단이 훨씬 더 우선이다.
- ② 집단이 조금 더 우선이다.
- ③ 나(또는 가족)이 훨씬 더 우선이다.
- ④ 나(또는 가족)이 조금 더 우선이다.

31.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로동신문이나 조선중앙방송의 보도가 얼마나 사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대부분 사실이라고 생각했다.
- ② 일부만 사실이라고 생각했다.
- ③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 ④ 생각해 본 적 없다.

32.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외부 소식을 주로 어디서 들었습니까?

- ① 조선신문(로동신문)
- ② 조선방송
- ③ 주변사람(친척, 이웃, 친구 등)
- ④ 강연, 학습
- ⑤ 남한을 포함한 다른 나라의 매체(방송·통신, 배라 등)

33.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가족이 만족할 만한 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월 생활비(월 소득)가 얼마 정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북한돈 _____ 원)

주변국에 대한 인식

34.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다음 국가들 중 어느 나라를 가장 가깝게 느끼셨습니까?

- ① 미국 ② 일본
- ③ 남한 ④ 중국
- ⑤ 러시아

35.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다음 국가들 중 어느 나라가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미국 ② 일본
- ③ 남한 ④ 중국
- ⑤ 러시아

36.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다음 국가들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번호에 동그라미 또는 √로 표시)

	매우 원한다	원하는 편이다	원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㉞ 미국	1	2	3	4
㉟ 중국	1	2	3	4
㊱ 일본	1	2	3	4
㊲ 러시아	1	2	3	4

37.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북한이 통일하는데 한반도 주변국들 중 어느 나라의 협조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중국
- ② 미국
- ③ 러시아
- ④ 일본
- ⑤ 어느 나라의 도움도 필요 없다.

38.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북한이 잘 살기 위해서는 어느 나라와 가까워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미국 ② 일본
- ③ 남한 ④ 중국
- ⑤ 러시아

남한사회 적응실태

39. 귀하는 남한출신 주민이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

- ① 매우 친근하게 느껴진다.
- ② 다소 친근하게 느껴진다.
- ③ 별로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 ④ 전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40. 귀하는 남한에 살면서 탈북자에 대해 남한사람들이 얼마나 포용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포용적이다.
- ② 약간 포용적이다.
- ③ 별로 포용적이지 못하다.
- ④ 전혀 포용적이지 못하다.

41. 귀하는 남한에서 살게 된 이후 자신이 북한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나는 남한사람이다.
- ② 나는 북한사람이다.
- ③ 나는 남한사람도 북한사람도 아니다.

42. 귀하는 현재 남한에서의 생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한다.
- ② 대체로 만족한다.
- ③ 보통이다.

- ④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 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43. 귀하는 현재 남한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한다.
- ② 대체로 만족한다.
- ③ 보통이다.
- ④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 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44. 귀하의 현재 취업 형태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 ① 정규직 근로자 (고용 계약기간 1년 이상 또는 특별한 고용계약 없이 정규직원으로 계속 일하는 경우)
- ② 계약직 근로자 (고용 계약기간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
- ③ 일용직 근로자 (고용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 이거나 일정한 사업장 없이 이동하며 일한 댓가를 받는 경우)
- ④ 고용자 (유급 종업원을 고용하여 경영하는 사업자)
- ⑤ 자영업자 (자기 혼자나 무급 가족의 힘으로 경영하는 사업자)
- ⑥ 실업자 (일자리가 없지만 지난 4주간 구직활동 중인 사람)
- ⑦ 비경제활동인구 (일자리도 없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사람 예. 학생, 주부, 근로 무능력)

45. 남한에서 귀하는 월 평균 얼마를 버십니까?
_____만원

46. 귀하의 월 평균 근로일수와 하루의 평균 근로시간을 적어주십시오.

- ① 월 평균 근로 일수 _____ 일
- ② 하루 평균 근로 시간 _____ 시간

Q5. 귀하가 북한을 나오기 직전까지 살았던 거주지는 어디였습니까?

- ① 평양
- ② 남포
- ③ 개성
- ④ 평안남도
- ⑤ 평안북도
- ⑥ 함경남도
- ⑦ 함경북도
- ⑧ 자강도
- ⑨ 양강도
- ⑩ 황해남도
- ⑪ 황해북도
- ⑫ 강원도

Q6. 학교는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 ① 대학교
- ② 전문학교
- ③ 고등중학교
- ④ 인민학교
- ⑤ 무학

Q7. 북한에서 직업은 무엇이셨습니까?

- ① 노동자
- ② 농민
- ③ 사무원
- ④ 전문가(교원, 의사, 기술자 등)
- ⑤ 학생
- ⑥ 군인
- ⑦ 외화벌이일군
- ⑧ 장사
- ⑨ 가정부인
- ⑩ 무직 및 기타

Q8.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당원이었습니까?

- ① 당원
- ② 후보당원
- ③ 비당원

Q9.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공식적인 월급(생활비)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북한돈 _____ 원)

인구통계학적 정보

Q1. 귀하의 성별은?

- ① 남자
- ② 여자

Q2. 귀하는 몇 년도에 태어나셨습니까?

(년)

Q3. 귀하는 언제 북한을 마지막으로 떠나셨습니까?

(년 월)

Q4. 귀하는 언제 한국에 들어오셨습니까?

(년 월)

Q10.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비공식적으로 벌어들이는 월수입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북한돈 _____ 원)

Q11.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장사를 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Q12. 귀하는 북한을 떠난 후에도 북한 지역의 소식을 어느 정도 접할 수 있었습니까?

- ①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 ②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 ③ 거의 접할 수 없었다.

Q13. 귀하는 북한을 나오기 이전에 남쪽에 혈육이나 친척이 있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Q14. 귀하의 현재 혼인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미혼 ② 결혼 (동거 포함) ③ 이혼

Q15. 귀하의 현재 자녀는 몇 명입니까?

_____명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통일학연구 29

북한주민 통일의식 2016

인 쇄 2017. 03. 15
발 행 2017. 03. 15
발행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발행인 정근식
저 자 김병로·정동준·정근식·천경효·최규빈·황창현
주 소 08826 서울 관악구 관악로1
전 화 02)880-4052-4, 874-7304
팩 스 02)874-7305
홈페이지 <http://tongil.snu.ac.kr>
디자인 (주)다해미디어(02-722-7123)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사도서목록(CIP)

북한주민 통일의식 2016 / 저자: 김병로, 정동준, 정근식, 천경효, 최규빈, 황창현.

— 서울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7

p. ; cm.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통일학연구 ; 29)

권말부록 : 집계표 2016 ; 설문지 2016

ISBN 979-11-955093-8-6 93340 : 비매품

북한 주민[北韓住民]

통일 의식[統一意識]

340.911-KDC6

320.9519-DDC23

CIP2017006580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6

이 보고서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사전 서면 허락없이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